

전략연구 2014-20

지역사회 자산을 활용한 충남 시군의 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

송두범·박춘섭·김종수·장효안·홍은일

발 간 사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에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이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경제를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저성장 시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와 더불어 제3의 경제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나라 사회적경제는 중앙정부 정책중심의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정부의 사업비 지원중심의 경로의존형 발전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정책의 주도권과 재원확보 및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한 우리 나라 관료제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적인 행정구조 하에서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중앙정부가 위임하는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소극적인 사업방식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의 임파워먼트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자산에 기초하여 지역주도의 사회적경제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충청남도 시군의 자연·사회·경제·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시책을 추진하는데 시사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분명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주민이 지역사회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다음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기며, 연구수행을 위해 노력한 송두범 박사님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강 현 수

연구 요약

1.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의 필요성은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중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경제를 도정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로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자평해 왔다. 그러나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시군은 전반적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풀뿌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과연,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왔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충남도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특성과 지역자산을 활용한 독자적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시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관행적으로 위임받아 추진하는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사례의 경우 지역자산에 기반하기 보다는 기존 조직의 운영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청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충남 시군의 특성과 지역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회적경제시책은 불가능한가? 충남의 시군은 입지, 지역잠재력, 경제적 특성, 리더십, 민간역량 등 지역자산에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군의 지역자산을 충분히 반영한 시군의 특성화된 사회적경제 시책의 도입을 통해 차별화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현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에 기반하여 시군의 주체들이 주도하는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시책 추진이 시급하다. 특히, 충남도의 시책에 수동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시군 공무원, 사회적경제활동가, 민간단체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연대를 통해 지역주도적 사회적경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지역사회 자산을 활용하여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의 차별화 및 특성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천군을 사례로 지역사회 자산을 양적 및 질적인 방식으로 탐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충남도 내 타시군의 적용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1) 관련이론 및 정책검토

지역사회 자산기반 접근법으로서 필요기반 접근방법(Need-Based Approach)과 달리 자산기반 접근방법(Asset-Based Approach)은 외부의 도움 없이 지역공동체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자산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개발하면서 공동체가 스스로 결여된 것을 세워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그와 반대로 필요기반 접근방법은 공동체의 문제점, 그리고 결여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가 갖지 못한 것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산기반 접근방법은 공동체의 장소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고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사람, 자산, 참여, 장소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산측정도구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산기반 공동체개발(ABCD)과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방법(SLA)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BCD는 커뮤니티 내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들의 자원을 동원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강점과 자산을 긍정적 인터뷰, 자산지도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시민들이 공동생산자로서 주도적으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시민과 단체의 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적자본을 결합, 연계, 연결을 창조하여 커뮤니티를 개발한다. 개인 및 단체, 조직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과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민중심의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장점이 있다. 재능이나 강점의 측정이 복잡하여 자산지도화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공간과 자산의 연계로 보다 명확히 커뮤니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둘째, SLA는 빈곤퇴치를 위해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움으로 자산과 강점을 인터뷰, 표본조사, 참여 방법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또한 커뮤니티를 공동의 디자이너로 보고 지역지식과 지역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빈곤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응용이 가능

한 방법이다. 자산 오각형을 통해 자산의 강·약점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지역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전체 개념들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지도의 경우 공간과 관계 연결이 애매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빈곤퇴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 커뮤니티 개발에 적용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사회적경제에서 지역자산 활용의 중요성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전체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얻기 쉽다.

둘째,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면 공동체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셋째,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상호이해의 수준이 높아진다.

3) 국내외 시사점

완주군 신태리지사업에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역조사사업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연구가 추구하는 지역조사의 본래적 의미를 투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기존에 실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지역조사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방안의 수립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괴산군 사례는 지역자원조사에서부터 커뮤니티의 구성, 구성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행 및 평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단계화시켜 실제 적용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농산촌 지역개발에 있어 소홀히 되었던 지역의 커뮤니티자원 조사와 커뮤니티 발굴 및 교육은 향후 지역의 자원과 커뮤니티를 연계한 새로운 농산촌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충청남도 및 시군별 사회적경제 시책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시책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자체 시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충남형 혁신사업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 시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광역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몇몇 시군의 제외한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독자적 추진역량이 부족하다. 시군 행정조직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요성이 낮고, 민간영역의 관심과 역량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다. 시군에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회적경제 정책 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 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관행이 여전하다.

셋째,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 간의 연계방안이 미흡하다.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자국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자원 잠재력 등에 의해 자국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시군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시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시군 단위 지역자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을 위해서는 시군단위 지역자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지역자산 활용 사례분석 : 서천군을 사례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자산은 5개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양적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1단계는 사례지역 읍면별 자산의 양적 분석, 2단계는 사례지역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분석(심층면접), 3단계는 사례지역 지역자산맵 작성을 실시하였다.

양적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산면, 마산면 등 내륙읍면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높고, 노인회활동 역시 활발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발굴 및 진행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지역에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있고, 작목반, 농어법인 등이 활발하다. 귀농귀촌인들이 작목반과 농어법인에 적극적으로 연계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역시 중요한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교육기관의 경우, 서천 및 장항읍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 한산면의 경우,

예술고등학교(1), 전수회관(2), 작은도서관(3) 등 다양한 자산이 존재하고 있어, 한산면에서 교육기관간 다양한 연계사업 및 이를 이용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의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관광자원의 경우, 바다와 인접한 읍면이 집중되어 있어, 내륙지역의 관광자원 발굴이 필요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질적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귀농귀촌인’으로, 핵심조직은 ‘서천군 귀농인협의회’이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침이 있었으나, 중간지원 및 인력재생산 등의 허브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간조직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노인회 활동’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행복경로당사업’은 서천군발(發)의 노인건강교실로, 호평 가운데 추진상 발생하는 어려움이 노정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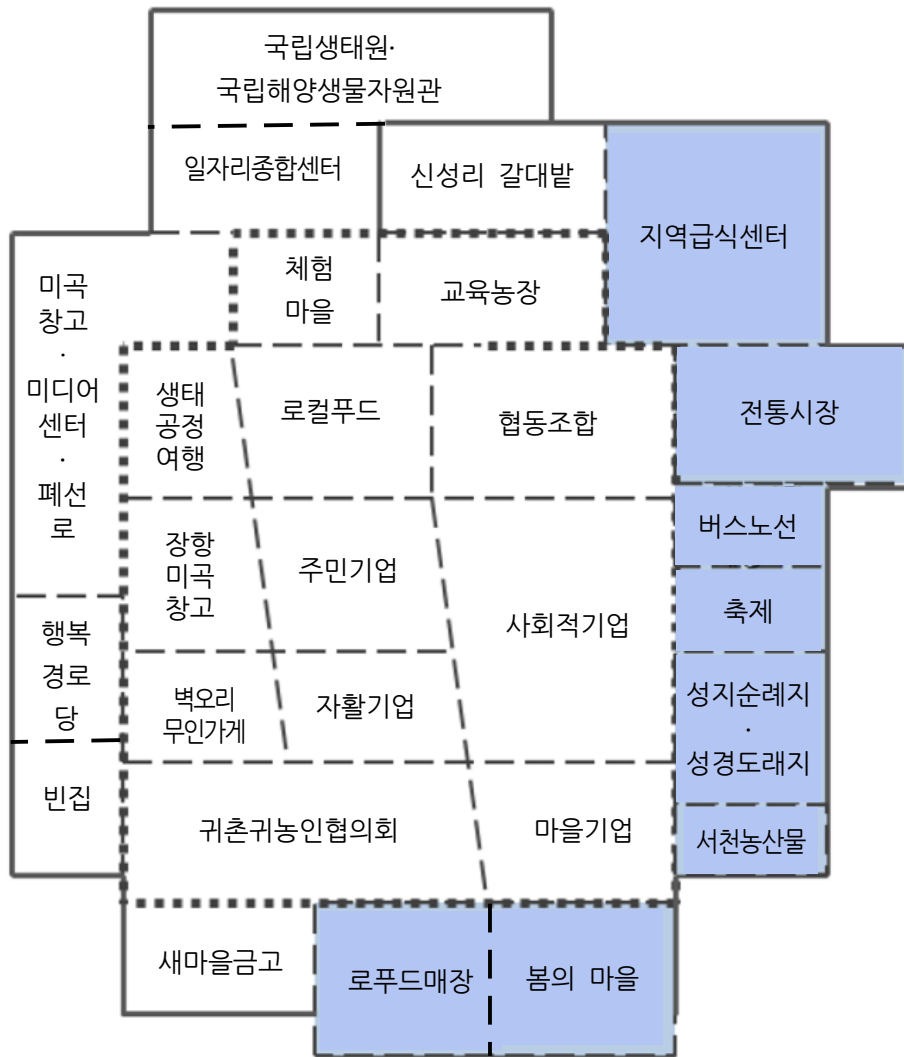
셋째, 기관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국립생태원’과 ‘미곡창고’였다. 특히 국립생태원 개원은 서천의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연계사업에 대한 큰 기대를 걸었으나, 사업의 성과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기능하였고(농민주말장터), 가능한 연계사업이 존재하므로 금후의 역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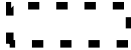


‘미곡창고’의 경우,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장항’에 산재된 지역자산들(장항미디어센터, 화물역, 폐선로 등)은 미곡창고와 더불어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관자산들로 판단할 수 있었다.

넷째, 지역경제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로컬푸드’로, 서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대표적인 지역경제자산이다. 그러나 서천의 로컬푸드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1)생산자조직과 생산량의 부족, 2)로컬푸드 소비층의 부족, 3)직거래장터의 어려운 접근성 등 이다. 현재 로컬푸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물리적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생태자원’으로, 서천은 금강, 갯벌 등 생물자원이 풍부하다. 생태자원의 이용은 단순한 생태관찰이 아닌 생태적 가치와 문제점을 알리는 공정여행방식의 교육프로그램, 지역문화와 역사를 결합한 형태의 지역생태문화교육 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 질적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자산지도를 작성하였다.



범례	자산구분	특 성
	1차 자산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2차 자산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커뮤니티 내부 자산
	미활용자산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미활용자산

3. 결론 및 시사점

지역자산에 기초하여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특성화방안으로, 첫째, 시군 사회적경제 조직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시군단위 지역사회 자원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자산기반형 시군 사회적경제 특성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 단위의 독자적인 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충남 시군에서는 지역사회내 존재하는 자산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상급기관의 단순위임업무 수행에서 탈피하여 시군 주도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조사에 기초한 시군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담당 행정조직의 확대와 전문 인력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주류경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객관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기존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포괄하는 조례나, 공공구매 확대 등의 조례로 개정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자원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 자원조사를 위해 지역사회내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중간지원기관에게 사회적경제 자원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결과를 일반주민들도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군단위가 사회적경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산을 사회적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시군자치단체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량을 연결하고 모아내는 연대체의 결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지역자산 자산활용형 사회적경제 고찰

제1절 지역사회 자산의 의의	9
1. 지역사회 자산의 개념	9
2. 자산사회 기반 접근방법	10
3. 지역사회 자산측정 도구	13
제2절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의 활용	27
1. 사회변화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27
2. 사회적경제의 개념	27
3. 사회적경제의 구성 및 조직	30
4. 사회적경제에서 지역자산 활용의 중요성	31
제3절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33
1. 완주군 사례: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	33
2. 피산군 사례:지역자산을 활용한 순환적 지역발전 모델	38
3. 시사점	42

제3장 충남도와 시군의 지역자산활용형 사회적경제 가능성 검토

제1절 충남도 및 시군별 사회적경제 시책	43
1. 조직 및 제도	43
2. 주요시책	45
제2절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시책	47
1. 조직 및 제도	47
2. 시군별 주요시책	51
제3절 충남도 및 시군시책의 특성종합	57
1.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시책 수행	57
2.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57
3.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간의 연계방안 미흡	58
4. 시군단위 지역자산조사의 부재	58

제4장 지역자산 활용 사례분석 : 서천군을 사례로

제1절 분석을 위한 틀	59
제2절 사례지역의 지역자산 실태조사	62
1. 사례지역의 선정이유	62
2. 양적분석	63
3. 질적분석: 심층면접	86
4. 분석합의와 지역자산 맵 작성	102

제5장 지역자산기반형 충남 시군의 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

1. 시군 사회적경제조직 및 제도의 정비	109
2. 시군단위 지역사회 자원조사	114
3. 자산기반형 시군 사회적경제 특성화	11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131
제2절 정책제언	133
참고문헌	135
[부록 1]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7
[부록 2]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142

표 목 차

<표 1-1> 사회적경제 조직연계 가능자원 유형	5
<표 1-2>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위한 지역자원	7
<표 2-1> 자산과 자원의 비교	10
<표 2-2> 필요 및 자산기반 방법과 관련한 주요이슈	11
<표 2-3> 지역공동체 개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12
<표 2-4> 사람과 장소변영, 필요 및 자산기반 공공정책옵션	12
<표 2-5> ABCD자산유형 및 구성요소	14
<표 2-6> SLA의 자산 오각형	21
<표 2-7> SLA의 자산별 측정방법	23
<표 2-8> 측정도구의 분석	24
<표 2-9> 정부의존성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분류	31
<표 3-1> 충남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주요사업	43
<표 3-2> 충남 시군별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와 인원	47
<표 3-3> 충남 시군별 사회적경제 조례제정 현황	50
<표 3-4>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위임업무	51
<표 3-5> 충남시군별 사회적경제사업	52
<표 3-6> 충남시군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54
<표 3-7> 충남시군별 지역자산기반 사회적기업 현황	55
<표 3-8> 충남시군별 지역자산기반 마을기업 현황	56
<표 3-9> 충남시군별 지역자산기반 협동조합 현황	56
<표 4-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산내용	59
<표 4-2> 지역자산 양적분석을 위한 변수 및 내용	60
<표 4-3> 지역자산의 질적분석을 위한 내용	61
<표 5-1> 사업의 유형에 따른 고려자 맞춤형 사회적기업의 내용	122
<표 5-2>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현황	122

그림 목 차

[그림 2-1] 근린자산지도	17
[그림 2-2] 지역자산맵 예시	18
[그림 2-3] 지역자산맵 양식	19
[그림 2-4] SLA의 자산별 측정 개념틀	23
[그림 2-5] 사회적경제의 구성	30
[그림 2-6] 연구의 추진방법	34
[그림 2-7] 완주군 자원조사 프로세스	36
[그림 2-8] 지역자원 매스틱스 표	37
[그림 2-9] 완주군 사업계획프로세스	38
[그림 2-10] 커뮤니티와 지역자산을기반으로 한 순환적 발전 모델	39
[그림 2-11] 귀농귀촌 공동체의 유형	40
[그림 2-12] 괴산군 지역자원조사 분석결과	41
[그림 2-13] 지역자원의 활용 및 실행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41
[그림 4-1] 사례지역	62
[그림 4-2] 서천군 귀촌, 귀농인 현황	63
[그림 4-3] 서천군 장애인 현황	64
[그림 4-4] 서천군 지체장애인 현황	64
[그림 4-5] 서천군 고령자 현황	65
[그림 4-6] 서천군 저소득층 현황	66
[그림 4-7] 서천군 자원봉사단체 현황	66
[그림 4-8] 서천군 노인회 현황	67
[그림 4-9] 서천군 새마을지도자 현황	67
[그림 4-10] 서천군 작목반 현황	68
[그림 4-11] 서천군 농어업법인 현황	68
[그림 4-12] 서천군 공공기관 현황	69
[그림 4-13] 서천군 국악원과 전수회관 현황	70
[그림 4-14] 서천군 초등학교 현황	70
[그림 4-15] 서천군 중학교 현황	71
[그림 4-16] 서천군 고등학교 현황	71

[그림 4-17] 서천군 작은도서관 현황	72
[그림 4-18] 서천군 개신교회 현황	73
[그림 4-19] 서천군 천주교회 현황	73
[그림 4-20] 서천군 사찰 현황	74
[그림 4-21] 서천군 산업단지 현황	75
[그림 4-22] 서천군 금융기관 현황	75
[그림 4-23] 서천군 기업체 현황	76
[그림 4-24] 서천군 종사자 현황	76
[그림 4-25] 서천군 축제 현황	77
[그림 4-26] 서천군 체험마을 현황	78
[그림 4-27] 서천군 교육농장 현황	79
[그림 4-28] 서천군 사회적기업 현황	80
[그림 4-29] 서천군 마을기업 현황	81
[그림 4-30] 서천군 관광자원 현황	83
[그림 4-31] 서천군 특산물 현황	85
[그림 4-32] 서천군 지역자산맵	108
[그림 5-1] 강동구 사회적경제 은하네트워크	117
[그림 5-2] 집수리 장면과 입주식 광경	121
[그림 5-3] 집수리 장면과 작업상황	121
[그림 5-4] 군산 근대문화유산 도보 여행지도	129
[그림 5-5]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여행프로그램	13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중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경제를 도정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로 도입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자평해 왔다.
 - －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 제정, 사회적경제5개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 그러나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시군은 전반적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풀뿌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추진되어 왔는가?
-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 등은 각 지역이 처한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사회적경제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군이다.
- 그러나 충남도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특성과 지역자산을 활용한 독자적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시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관행적으로 위임받아 추진하는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사례의 경우 지역자산에 기반하기 보다는 기존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청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렇다면, 충남 시군의 특성과 지역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회적경제시책은 불가능한가?

- 충남의 시군은 입지, 지역잠재력, 경제적 특성, 리더십, 민간역량 등 지역자산에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같은 시군의 지역자산을 충분히 반영한 시군의 특성화된 사회적경제 시책의 도입을 통해 차별화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현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에 기반하여 시군의 주체들이 주도하는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시책 추진이 시급하다.

- 특히, 충남도의 시책에 수동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시군 공무원, 사회적경제 활동가, 민간단체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협력/연대를 통해 지역주도적 사회적경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지역사회 자산을 활용하여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의 차별화 및 특성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천군을 사례로 지역사회 자산을 양적 및 질적인 방식으로 탐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충남도내 타시군의 적용가능성을 목표로 한다.

□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충남도 및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시책을 분석하되 지역자산과의 연계측면에서 검토한다.
- 충남 서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산을 양적 및 질적방식으로 탐색한다.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자산을 활용하여 충남도내 시군의 사회적경제 특성화를 위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범위

- 사회적경제의 현황분석은 2013년 기준 충청남와 15개 시군
- 시군의 사례지역으로 서천군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시간범위

-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내용범위

-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에 대한 이해
- 충남도 및 시군별 사회적경제 시책 분석
-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의 연계분석
- 시군별 사회적경제의 특성화 방안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조사자료 분석

- 지역자산의 이해에 대한 문헌조사
- 시군별 사회적경제 관련 시책에 대한 조사
- 관련연구 및 국내외 정책사례, 통계자료 등

☐ 질적연구(심층면담) 활용

- 서천군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서천군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관계자, 서천군 사회적경제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심층면접법 활용하여 서천군의 지역자산

활용 전반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

□ 연구자문위원회 및 연구진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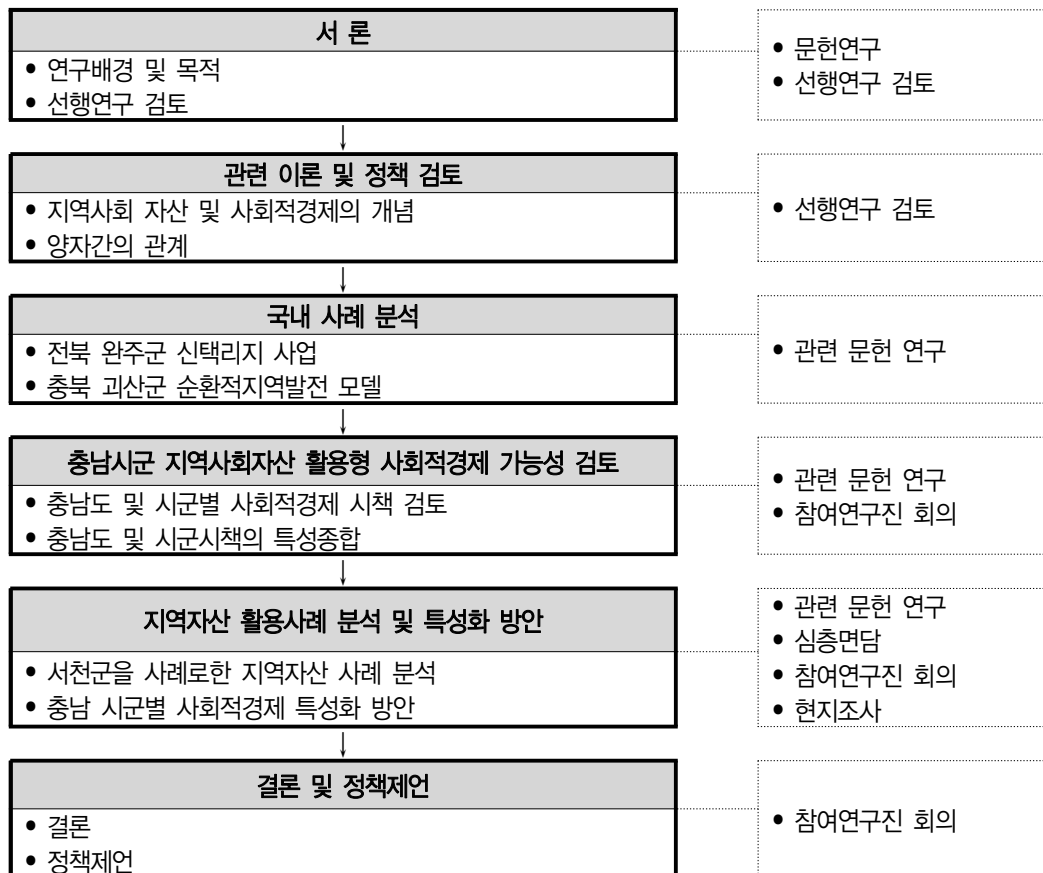
○ 연구자문위원회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관련 활동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운영

○ 연구진 회의

- 원내 연구진이 참여하여 연구의 세부적인 수행방향 등에 대해 협의(수시)

3. 연구추진과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지역자산(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연구한 논문의 수는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역자산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연구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충북대학교(2010), 지경배·김진기(2010), 변필성·윤영모(2011), 김종수 외(2012), 장우진·오승석(2012), 최혁라·김선명·김기현(2012), 한상일·김경희(2013) 등을 들 수 있다.

충북대학교(2010)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연계 가능자원을 기업, 학계 및 프로보노, 공공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금융기관, 민간단체 및 기타, 자원봉사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할 및 자원가능 자원을 유형화하고 있다.

〈표 1-1〉 사회적경제 조직연계 가능자원 유형

구 분	역할 및 자원가능 자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1(예비)사회적기업 협약방식으로 다양한 자원연계가 가능하며, 예비창업자들의 1:1멘토(또는 슈퍼바이저)로서 역할 가능함 ○ 지원가능자원 : 1사 1사회적 기업을 통한 집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인사관리, 제품개발 등 기업의 노하우(정보)제공 -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 직접적 현물, 현금지원 - 교육, 봉사인력 지원 - 생산공정 등 다양한 연계협업 등
학계 및 프로보노 (학교, 전문연구지원단체,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가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멘토로서 역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아카이브역할 및 새로운 자료를 생산하거나 기존 자료를 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 대부분의 창조는 벤치마킹으로 시작됨. 따라서 전문연구자 및 프로보노들의 역할은 예비사회적기업가들에게 현실적인 컨설팅뿐만 아니라 사례를 통해 영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지원가능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취업, 창업정보 포함) -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부터 계획서 작성, 법률, 회계, 인사, 마케팅, 홍보 등 경영전반에 걸친 자문위원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병원, 지방공기업, 기타 지원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서비스 제공, 1사1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 직접적 현물, 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인력풀관리, 교육, 봉사인력 지원 - 다양한 연계협업 등
중앙·지방정부 (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지원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지원기관 설립운영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원 - 상용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사회적기업의 경우에만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광역자치단체 소관으로 이관(2010년부터) ○ 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 매년 소셜벤처대회 개최 ○ 사회적일자리 인건비지원 : 광역자치단체로 이관(2011년) ○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언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사회적기업 인식의 폭 확대, 공감대 형성 - 이슈발굴 및 제도개선, 재정지원 - 직접광고(홍보) 게재지원 등
금융기관 (재정지원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 시설투자비, 운전자금 등 지원 : 필요시 연계 - 이외에 사회서비스 영역사업의 경우 공동모금회, 삼성고른기 회장학재단 등 중앙모금 및 민간복지재단 기금활용하는 것도 연계가능
민간단체 및 기타 (종교, 복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구매, 홍보지원, 교육, 봉사인력, 현물·현금지원외 언론과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내용을 이슈하시킬 수 있음
자원봉사(주부, 학생 등 일반국민, 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예비)사회적기업 필요 봉사인력 연계, 지역사회 홍보 등

자료: 충북대학교(2010). 사회적기업가 교육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체계화 모델에 관한 연구. pp.178-183에서 정리.

지경배·김진기(2010)는 강원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연계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연계형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사회적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해 영업활동 등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결과 강원도가 지

향해야 할 지역사회 연계형 사회적기업이 초기 모델로서 총5개 사업유형을 개발하였다. 이는 1)지역(산업)진흥형 2)(지역)자원활용형 3) 생활지원형 4)자립지원형 5)기타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변필성·윤영모(2011)는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성과 낙후지역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되 특히 인력, 상품 및 서비스시장 수요 창출, 자금공급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육성 그 자체가 주민 고용창출 등 지역기여도가 높은 기업, 사업조직의 투자를 낙후지역에서 활성화시키고, 낙후지역이 직면하게 될 취약계층 및 그에 준하는 계층증가와 그에 따르는 일자리, 소득원 창출 및 사회서비스 공급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수 외(2012)는 필요기반의 접근방식과 자산기반의 접근방식, 그리고 자산기반의 접근방식의 핵심요소인 공동체 자산의 정책을 비교하고 자산기반의 정책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최혁라 외(2012)는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위한 지역자원으로 자원연계 대상, 자원연계 내용, 자원연계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자원은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프로보노, 자원봉사,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연계내용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원료 및 자재공급, 노동력공급, 경영자문, 교육훈련, 인건비 및 재정지원, 홍보 및 마케팅, 공동사업, 정보제공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계방식으로 전담조직 유무, 관련단체 가입, 관련행사 참여, 기관장 활동, 정부기관 지원요청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1-2>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위한 지역자원

분석기준	분석내용
자원연계대상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프로보노, 자원봉사, 지역언론사
자원연계내용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원료 및 자재공급, 노동력공급, 경영자문, 교육훈련, 인건비 및 재정지원, 홍보 및 마케팅, 공동사업, 정보제공
자원연계방식	전담조직 유무, 관련단체가입, 관련행사 참여, 기관장활동, 정부기관 지원요청

자료: 최혁라 외(2012).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2(1).p.312.

나중규·정회운(2012)는 경상북도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농촌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먹거리, 문화, 볼거리, 우수경관)을 조사하고, 이 중 아직 상품화되지 않았으나, 충분한 시장가치가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용재·김봉환(2013)은 사회적기업이 연계하고 있는 자원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지속가능성, 성공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자금,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처, 경영지원, 홍보 및 마케팅, 기술지원, 인력, 인프라, 교육훈련 등 8가지 자원영역을 추출하였다(이용재·김봉환, 2013; 230).

한상일·김경희(2013)는 1990년대 이후 지역공동체개발의 관점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ABCD관점을 중심으로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연구분석의 모형을 수립하였다.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유형별로 나타나는 지역공동체 자산활용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공동체 자산활용정도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자산활용과 관련하여 Kretzmann & McKnight(1993)의 연구를 중심으로 개인적 자산, 기관, 공간적 자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ABCD 방법에서 원하는 지역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조직에서는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자산을 활용해서 경제적 성과 즉, 비용절감과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자산을 활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재생, 커뮤니티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시군을 사례로 지역사회 자산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2장 지역사회 자산활용형 사회적경제 고찰

제1절 지역사회 자산의 의의

1. 지역사회¹⁾ 자산의 개념

지역사회 자산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산’과 ‘자원’에 대한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사전적 의미로 자산(asset, 資産)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²⁾,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위키백과), 유무형의 물품, 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를 의미한다(두산백과). 반면, 자원(resources, 資源)은 어떤 목적을 위해 자연계에서 얻고 생산되는 물질(위키백과),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연계의 일부를 말한다(두산백과).

이러한 자산과 자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위성의 여부에 무게가 있다. 자산은 전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필요에 의해 단시일 내에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가령 특정지역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형성한 연극제라든지 이벤트는 그 지역의 자산이 된다. 이와는 달리, 자원은 과거부터 존재해 오던 것을 지칭하는 측면이 강하다(김현호·한표환, 2004;7-8).

1)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티(Community)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한다.

2) 경제학에서 사용 또는 소비 등을 통해 사람<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인 실체는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전기와 같은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운송이나 대중교통이용 같은 서비스와는 다른 개념이다.

자원과 자산은 포괄하는 개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자산은 특정한 지역의 정치, 행정, 협력 등 보다 포괄적인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자원은 그렇지 못하다. 정치 및 제도까지 자원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표 2-1> 자산과 자원의 비교

구 분	자 산	자 원
인위성	단시일내 생성가능	단시일내 생성불가
개 념	자연계+사회계(정치, 행정, 협력)	자연계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공동체 자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자산개념의 등장은 사회적자본 개념의 등장 및 광범위한 활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자산이라는 개념에는 축적될 수 있다는 의미와 그 활용의 용이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최현선 외, 2012).

공동체 자산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는 용어로 향토자원이 ‘장소자산(place asset)’, 영역자산(territorial asset), ‘영역배타적자산(territory-embedded asset)’, ‘지역부존 자원’, ‘향토지적자산’ 등으로 불리고 있고, 또한 향토자산, 지역사회자산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들 간에는 다소간의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김현호 외, 2004; 김종수 외, 2010).

지역사회 자산은 지역사회의 긍정적 요소, 유무형의 자원(이왕건, 2010; 기운환, 2011), 구성원들의 재능, 자발적 참여, 공동체 역량강화(Kretzmann & McKnight, 1993; 김종수 외, 2010), 사회적연결망, 물리적·경제적 자원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간과 사회적 관계성을 분석하여 커뮤니티 특성을 파악하는 지역사회 자산개념과 그 측정기법들은 지역사회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임순정 외, 2014).

2. 자산사회 기반 접근방법

필요기반 접근방법(Need-Based Approach)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방식이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은 필수공급지표를 사용하여 문제를 정량화함으로써 거기에 수반되는 원인들을 지역

적 특성과 관계없이 일반화하였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대응 방식으로, 전문가가 평가하는 지역의 필요들과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정의하는 지역의 요구들 간의 차이로 나타났고, 정부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문제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들은 자기를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김종수 외,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대안적 접근방식이 바로 자산기반 접근방식(Asset-Based Approach)이다. John Kretzmann & John McKnight의 연구인 “Buildi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iey's Assets(1993)”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다음 표와 같이 필요기반 접근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조된다. 자산기반 접근방법은 태도와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상을 바라는 ‘결핍’방식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다(한상일, 2012).

<표 2-2> 필요 및 자산기반 방법과 관련한 주요이슈

구 분	자 산	필 요
강조점	파트너십	수량화된 수요
결 과	능력증진	의존성
관 계	수평적(네트워킹)	수직적(위계)
진화단계	정체성, 지렛대, 관리	계획, 이전재원

자료 : UN-HABITAT(2009). Asset-Based Approaches to Community Development. 37.

자산기반 접근방법은 외부의 도움 없이 지역공동체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자산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개발하면서 공동체가 스스로 결여된 것을 세워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그와 반대로 필요기반 접근방법은 공동체의 문제점, 그리고 결여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가 갖지 못한 것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방식을 말한다(한상일, 2010).

〈표 2-3〉 지역공동체 개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구 분	필요기반지역공동체개발	자산기반 지역공동체개발
개발의 중핵	욕구(필요, 부족)	자산
목 표	제도의 변화	공동체 형성
변화의 주체	권력의 소유자	다양한 구성원간의 연결망
개인에 대한 관점	고객, 소비자	생산자, 소유자
대응방식	문제에 대응	기회와 강점을 확인
역할주도	기관의 역할을 강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
개발의 초점	개인에 초점	커뮤니티/이웃과 공익에 초점
해결방식	해결책으로 프로그램을 시행	사람들을 해답으로 봄

자산기반 접근방법은 세상을 보는 가치이자 원칙이고 사고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은 시민들과 지역사회를 서비스의 수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자로 보고, 배려, 상호도움과 권한이양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계와 친선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긴다.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것을 알아보고 자기존중 대응전략, 회복기량, 관계, 친선관계, 지식과 개인적 자원을 통해서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미래를 통제하고 서비스나 기금 그리고 건물들과 같은 유형의 자원들을 창조하도록 지역사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다(IDeA, 2010; 임순정 외, 2014에서 재인용).

〈표 2-4〉 사람과 장소번영, 필요 및 자산기반 공공정책읍션

	People	Place
Need (TARGETING)	Redistrib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lfarism • Entitlements (taxes, handouts, housing vouchers, food stamps...) 	Revit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blic Housing • "Ghetto as colony" • Urban Renewal • Slum Upgrading • Enterprise Zones
Asset (CAPACITY BUILDING/ ASSET BUILDING)	Empowe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Capital (networking, trust, and reciprocity) • Co-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skills (between 'expert knowledge' and 'local knowledge') • Social, political, psychological access to resources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storic preservation and a sense of place • "Ghetto as a resource" • Community-University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 CDCs

자료 : UN-HABITAT(2009). Asset-Based Approaches to Community Development. 8.

이와 같이 자산기반 접근방법은 공동체의 장소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정체성을 파악하고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사람, 자산, 참여, 장소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임순정 외, 2014).

3. 지역사회 자산측정 도구³⁾

1) 자산기반 공동체 개발(ABCD,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는 1990년대 초반에서 시작된 활동으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밝혀내고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공동체 발전방식이다(kretzmann & McKnight, 1993; McKnight, 1995; McKnight & Block, 2010).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지역의 강점은 물론이고 낙후되고 소외된 부분으로 여겨졌던 요인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동기유발하는 것으로 정부나 기업 등 외부의 지원보다 내부적인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이다.

Northwestern대학교의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를 중심으로 외부환경에 의존하기보다 지역의 자산을 스스로 개발하여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개발된다. ABCD접근은 1980년대 이후 정부나 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지역의 역량보다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접근이 유발하는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대안적인 지역공동체발전전략으로 주목받는다(McKnight, 1995 한상일 외; 159에서 재인용).

대안적 접근방법으로서 ABCD는 커뮤니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거주자들의 자원, 능력, 통찰력을 이끌어 내어 시민들에게 권한을 준다. 현존하는 자주 인식되지 못하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밝히고 동원하여 공동체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 스스로 개발과정을 이끌어 결여된 부분을 채우고 지역경제 기획에 반응하고 창조한다. 사회적 자산인 개인의 재능과 재주, 지역단체들과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여 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정부 및 지역조직들이 각자의 자산과 기술 그리고

3) 임순정 외(2014)와 한상일 외(2013)의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역량을 발굴하여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다(임순정 외, 2014).

(1) 자산의 유형 및 구성요소

ABCD의 커뮤니티자산은 지역사회 거주자들의 기술, 지역사회 단체들의 힘, 공·사적 그리고 비영리 기관들의 자원, 물리적 하부구조와 커뮤니티 공간, 경제적 자원과 지역장소의 잠재력, 지역역사와 근린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The ABCD Institute, 2009).

이러한 커뮤니티 자산을 ABCD 연구소는 핵심건축블럭(Primary Building Blocks), 2차 건축블럭(Secondary Building Blocks), 잠재건축블럭(Potential Building Blocks)으로 구분하고, 개인과 조직의 역량, 그리고 물리적, 경제적 관점에서 자산의 종류와 특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자산 특성파악을 토대로 지역에서의 수요는 무엇인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McKnight & Kretzmann, 1996; 이왕건 외, 2011).

〈표 2-5〉 ABCD자산유형 및 구성요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핵심 건축블록 근린내부에 있어 대개 근린차원의 통제가 가능한 자산과 역량	개별자산 (Individual capacities)	-개인의 지식: 능력, 자질, 경험 -개인별 소득: 경제활동 형태와 소비패턴 -취약계층: 커뮤니티기업, 사회적 기업 -기업 또는 상점: 일반상점, 음식점, 소규모 기업들 -가정내 상업행위와 영세 기업들: 영세 상업 또는 생산 행위
	조직화된 자산 (Associational and organizational capacities)	-주민조직: 운동모임, 부녀회, 자치조직 등 -기업연대: 연대 조직이 흔치 않다 -금융기관: 소규모, 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문화단체: 예술품, 의식, 설화, 춤, 음식 등 -언론매체: 지역신문, 포럼, 자치회 등, 지역 케이블TV, 라디오 -종교단체: 교회, 사찰 등, 인적 네트워크, 종교 시설과 종교인들간 네트워크
2차 건축블록 근린내부에 입지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목적 기관 (Private)	고등교육기관
		병원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and non-profit organization)	사회 서비스 기관
	공공기관 및 서비스 시설(Public service agencies)	공립학교
		경찰서
		도서관
		소방서
		공원
	기타 물리적 자원 (Physical service agencies)	나대지 (비어있는 땅)
		상업시설
		공장 등 생산시설
		주택
		에너지 및 폐자원
잠재 건축블록 근린밖에 있으며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공공복지 비용	
	공공자산증대 비용	
	정보제공 및 교육	

(2) 기본원칙

ABCD는 커뮤니티를 부족함이 아니라, 사람들과 장소의 능력과 자산을 동원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ABCD는 커뮤니티가 정의한 이슈를 언급하고 커뮤니티가 정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자산을 지도화하고 이러한 자산들을 동원하는 과정이다. ABCD는 자산에 기반하고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주도로 커뮤니티 개발을 한다(Kretzman & McKnight, 1993; Kretzman & McKnight, 1996 Pinkett, 2000).

이러한 ABCD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주도 개발이 변화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끄는 개발과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개발의 하나이다. 둘째, 커뮤니티에 변화를 가져온 성공 스토리들을 공유하는 역사에서 출발한다. 셋째, 공동작업과 사회적 자본의 힘을 인정하는 것으로 커뮤니티의 중요한 자원은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다른 형태로 형성된 조직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사회적 유대이다. 넷째, 얼마나 빈곤한지와 상관없이 모든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인적 그리고 자연자산 등 커뮤니티 내에 존재하는 자산에 감탄하고 동원한다. 다섯째, 삶을 긍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찾도록 기회를 자극하는 것이다. 여섯째, 유용한 자산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는 것이다(Community Connection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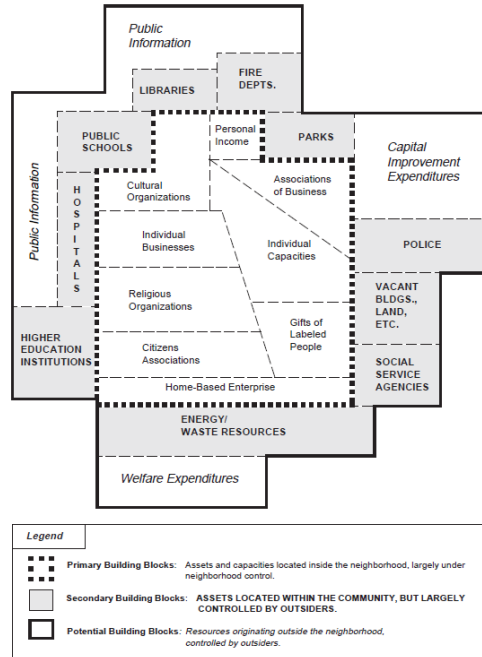
(3) 자산측정 방법 및 표현

지역사회 자산과 지역사회 역량을 정립하는 일련의 과정은 커뮤니티 재생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단계에 해당된다. 지역사회 사람들의 역량강화와 재개발에 대한 방법을 찾고 지역이 가진 자산과 역량 등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 바로 커뮤니티 지도작성이다(John L. McKnight & John P. Kretzmann, 1996).

ABCD연구소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제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블럭으로 구분하여 커뮤니티 자산에 근거를 둔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커뮤니티 지도 작성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그룹과 조직이 실제 계획을 수립할 때 벤치마킹하여 이를 차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도시에 적용된 사례라기보다 여러 커뮤니티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도출된 정보들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이왕건 외, 2011).

이러한 자산지도는 매우 새롭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커뮤니티의 자산 모두를 찾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더 커뮤니티 재생 과정이 창조적일수록 거주자들이 지도에 기술, 역량, 부, 자산, 잠재력, 장소 등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다(Kretzman & McKnight, 1996).

자산지도를 작성하면서 개인, 단체, 기관들의 구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지를 작성하여 그 조사지에 따라서 전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지도 작성을 통해 그 동안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개인들을 포함하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에 대한 조사 이후, 지역사회의 단체 조직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 재정자원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과의 연계 등을 평가하여 그 역량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기관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역에 속한 기관들의 구성을 평가하고, 개별 기관들이 다른 기관과 어떻게 상호연계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관계의 강도를 분석하여 가장 중심성이 높은 기관과 영향력이 큰 기관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는 등 연계성을 고려한다(한상일, 2010).



자료 : John L. McKnight & John P. Kretzmann(1996). Mapping Community Capacity. The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Northwestern University.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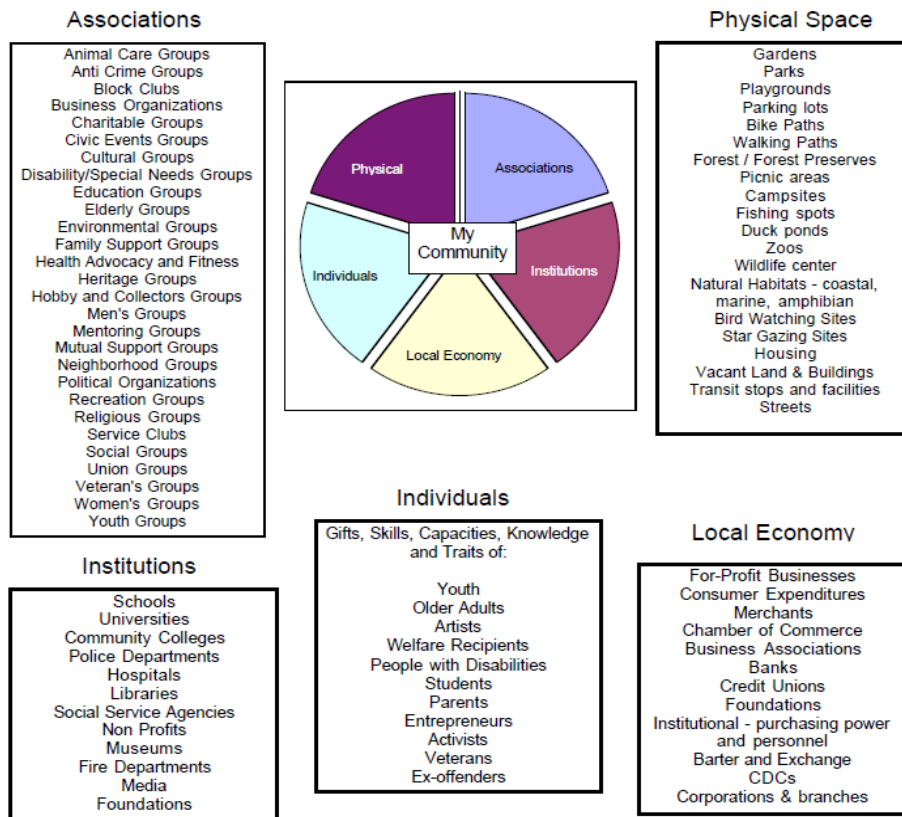
[그림 2-1] 근린자산지도

조사지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영역은 교육, 훈련, 고용경험과 같은 거주자 개인의 역량 조사, 두 번째 영역은 비영리 단체, 도서관, 학교와 같은 기관 등 단체와 기관의 역량 조사, 세 번째 영역은 구입되고 팔리는 생산품과 상품들, 그리고 사용되는 필수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사업 역량 조사이다(Pinkett, 2000; 한상일, 2010).

(4) 활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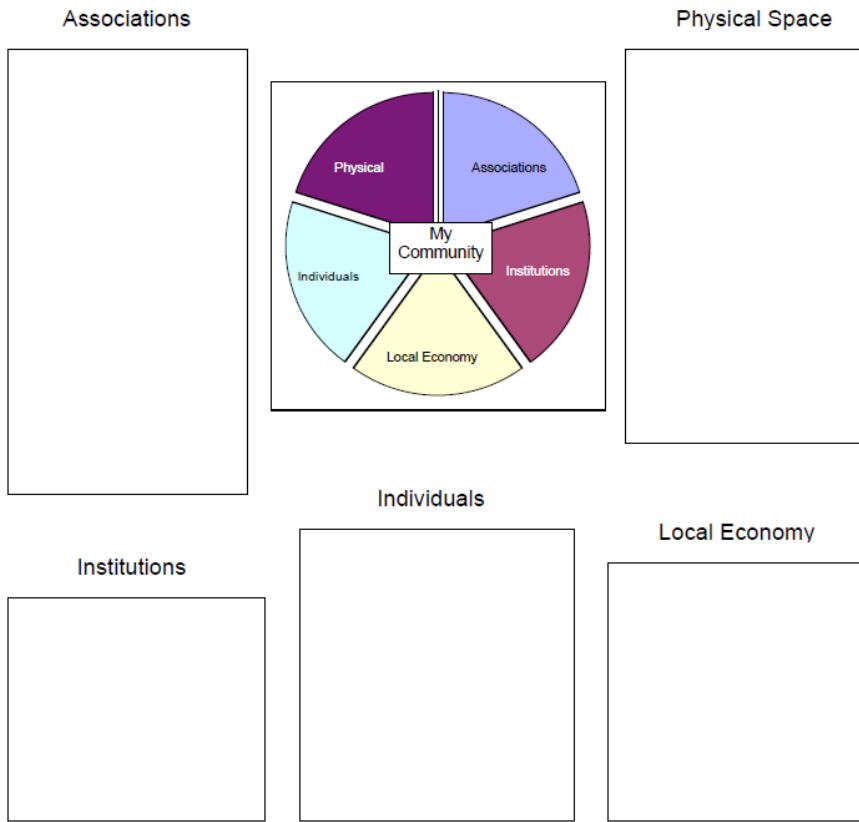
Kretzman & McKnight.(1993)는 전체 커뮤니티를 동원하기 위해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개인, 시민 단체, 지역 기관의 능력과 자산을 지도화 하는 자산 지도 단계, 둘째, 커뮤니티 내에서 상호간 이익이 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자

산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내부 관계 형성단계, 셋째, 경제적 개발과 정보 공유목적을 위해 커뮤니티 자산을 동원하는 자산 동원 단계, 넷째, 커뮤니티 비전과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가능한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그룹이 회합하도록 비전을 형성하는 단계, 다섯째, 커뮤니티 외부로부터 자산에 기반하고 지역적으로 정의된 개발을 지원하도록 활동, 투자, 자원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외부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이다(Kramer, N; Pinkett, 2000).



[그림] John P. Kretzmann and John L. McKnight,(2005). DISCOVERING COMMUNITY POWER:A GUIDE TO MOBILIZING LOCAL ASSETS AND YOUR ORGANIZATION'S CAPACITY.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 School of Education and Social Policy. Northwestern University. 15.

[그림 2-2] 지역자산맵 예시



[그림] John P. Kretzmann and John L. McKnight,(2005). DISCOVERING COMMUNITY POWER:A GUIDE TO MOBILIZING LOCAL ASSETS AND YOUR ORGANIZATION'S CAPACITY.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 School of Education and Social Policy. Northwestern University. 16.

[그림 2-3] 지역자산맵 양식

2)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방법(SLA)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방법(Sustainable Livelihoods Approach)은 Brundtlan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BCED)에서 처음 소개되어, 1992년 유엔 환경 및 개발회의에서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채용된 개념으로 확장되었다(Lasse Krantz, 2001;1).

지속가능한 생계(Sustainable Livelihoods)와 관련하여 1992년에 Robert Chambers와 Gordon Conway는 “생계는 삶의 수단으로 요구되는 능력, 자산(가계, 자원, claims and access) 및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계는 스트레스와 충격을 회복하고, 능력과 자산을 유지 또는 증진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계를 제공, 그리고 지역 및 세계적 수준, 장단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계해택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Lsaee Krantz, 2001; 1).

최근 IDS(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DFID(The British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SL개념과 접근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IDS는 “생계는 삶의 수단으로 요구되는 능력, 자산(물질적인 것과 사회적자원을 포함) 및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계는 자연자원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스트레스와 충격에 대처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을 때, 지금과 미래를 위해 그 능력과 자산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때 지속가능하다”라고 수정 제안하고 있다(Lsaee Krantz, 2001; 1).

생계 접근방법은 빈곤퇴치를 위해 개발의 목적, 범위,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본질적으로 사람과 그들의 우선순위를 개발의 중심에 놓는다. 또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기회를 얻도록 하고 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돕는 정책과 기관 환경을 개발하여 빈곤 퇴치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DFID, 2010). 생계 접근방법은 전체 개발 목표, 일련의 근본적인 개발원칙들, 분석 틀의 3가지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Farrington et al., 2002).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방법은 특별한 충격이나 위기, 그리고 장기간의 빈곤에 대한 지속된 도전에 대응하는 경제 개발을 위한 분명한 지침을 창조하고 있다. 또 다른 강점은 지역 중심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정책, 환경, 기술에 관한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좀 더 풍부한 틀에서 개발을 고려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그 이상의 잠재적 결과들로 넓히고 있다. 지속가능한 생계접근방법은 지역 시민들을 지속가능한 경제와 공동체 개발의 공동생산자로 인지하고, 외부의 충격이나 도전에 대응하는 공동디자이너로 보고 있다(Rusell & Smeaton, 2009).

(1) 자산의 유형 및 구성요소

생계 접근방법의 핵심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산에 대한 접근이다. DFID는 자산 또는 자본을 인적, 사회적, 자연, 물리적, 금융의 5개 범주로 나누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2-6>과 같다. 나중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힘과 능력인 정책 자본이 추가되었다(Hocking, 2003; DFID, 2010).

<표 2-6> SLA의 자산 오각형

구 분	내 용
인 적	기술, 지식, 건강, 교육, 자신감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지위
금 융	이자, 임금, 저축, 신용에의 접근성, 자본, 불법 수입
물리적	주택, 교통, 소유물, 학교, 기초하부구조, 생산자, 상품
자 연	땅, 토양, 물, 숲, 어업, 공기 질
사회적	비공식 네트워크, 공식화된 그룹, 협력, 가족, 친구, 개인 안전

자산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취약성 맥락의 추세, 충격과 계절적 변화의 결과로 파괴되거나 창조될 수 있다. 정책, 기관과 과정들은 자산에 접근하는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산을 창조하고 접근성을 결정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이들은 목표를 추구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보다 큰 생계 선택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다(DFID, 1999).

(2) 기본원칙

생계 접근방법은 최선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원칙들이 있어 개발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등 개발의 중심에 사람을 놓는다(DFID, 1999; Allison & Horemans, 2006).

둘째,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규정하는 생계 우선순위에 귀 기울이고 대응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것이다(DFID, 1999; Hussein, 2002).

셋째, 빈곤, 기관과 과정, 그리고 전략들이 다차원적이며(Mazibuko, 2013), 가장 작은 차원의 현실부터 가장 큰 단계의 구조까지 다차원적이다(DFID, 1999).

넷째, 공공과 민간 부분, 그리고 커뮤니티가 함께 파트너로 행동하는 것이다(DFID, 1999; Ferrington et al., 2002).

다섯째, 경제, 기관, 사회 그리고 환경이 모두 중요하고 그 지속가능성과 균형을 맞추는 지속가능한 개념이다(DFID, 1999; Ashely & Carney, 1999).

여섯째, 생계전략의 역동성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상황을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동성이다(DFID, 1999; Hinshelwood, 2003).

추가로,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에 단지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 지식과 자원을 개발하여 강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의 복잡한 현실을 단지 기술적이거나 부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생계 관련 제약요인들과 기회들을 부분, 차원, 지역에 상관없이 밝히고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생계 전략들과 결과물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함께 생계 접근방법은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분석을 돕는 개념틀에 기초하고 있다(DFID, 1999; Allison & Horemans, 2006).

(3) 자산측정방법 및 표현

지속가능한 생계 개념틀은 개발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분석 구조이며(Ashely & Carney, 1999), 지속가능한 생계 접근방법을 수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분석 도구중의 하나이다(Carney, 2002).

개념틀은 정확한 현실 모델이 되지는 않지만, 생계 기회를 제약하거나 강화하는 다양한 인자들이 넓고 체계적으로 이해되도록 분석적 구조를 제공하고 각 인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생계를 형성하는 자본에 대한 5개의 핵심자산의 범주와 유형을 규정하는 자산 오각형은 시각적으로 자산 정보를 표현하도록 개발되어 다양한 자산사이의 중요한 내부적 관계를 보여준다. 이 오각형은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에 대한 변화를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모양의 오각형은 다른 커뮤니티나 사회적 그룹을 나타낸다. 개념틀은 누가 어떤 유형의 자산에 접근성을 얻느냐를 결정하고 어떤 범위의 생계 전략이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매력적인지를 정의하여서 조직, 정책, 기관, 문화적 규범이 어떻게 생계를 형성하는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공한다(DFID, 1999; Ashely & Ca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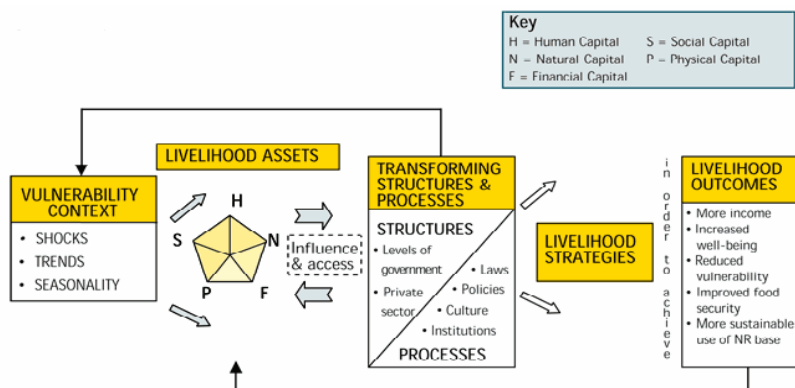
1999; Krantz, 2001).

개념들은 <그림 2-4>와 같이 인간의 생계와 전형적인 인간관계 사이의 주요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고,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구조를 강조한다. 이것은 생계의 지원을 위한 적절한 도입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정은 구조와 개인이 작동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생계 전략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 목적을 달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활동들의 조합으로, 생산 활동, 투자 전략 등을 포함 한다(DFID, 1999).

조사는 개인, 가족 또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인터뷰, 참가방법, 표본조사, 현장조사 등이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2-7>과 같다(Gutierrez-Montes, et. al., 2009).

<표 2-7> SLA의 자산별 측정방법

구 분	내용
인 적	2차 자료, 참여적 방법, 표본조사
금 융	선호순위/매트릭스 스코어링, 계절 달력, 반구조적 인터뷰, 금융 분석, 표본조사
물리적	표본조사, 참여적 방법
자 연	표본조사, 참여적 방법
사회적	커뮤니티 전체 현장조사, 사회 지도, 연대표, 매트릭스/ 선호순위, 밴 다이어그램



Ms. Mona Haidar(2009), 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ES: THE FRAMEWORK, LESSONS LEARNT FROM PRACTICE AND POLICY RECOMMENDATIONS. UNDP Drylands Development Centre. 5.

[그림 2-4] SLA의 자산별 측정 개념들

(4) 활용과정

Oxfam은 전형적인 생계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6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거주자 집단이나 커뮤니티 조직 등 기존에 존재하는 팀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임무를 위해 특별히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생계 프로젝트를 위한 팀은 프로젝트 관리자, 연구자, 참여자로 교육과 지원 등에 참여한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 맥락을 지도화하는 것이다. 개인과 가구의 자산이나 생계 전략들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가구들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정책, 기관, 관례에 대한 정보를 지도화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가구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를 찾아서 인터뷰 과정을 통해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가구의 맥락과 힘의 분석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포착하여 가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실행에 옮긴다(May et al., 2009).

SLA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책차원에도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접근방법들과 혼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Ashely & Carney, 1999). 또한, 국가 차원의 계획에서부터 커뮤니티 계획, 프로젝트 계획까지, 조사, 평가, 분석의 관점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Carney, 2002).

〈표 2-8〉 측정도구의 분석

접근방법	ABCD(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SLA(Sustainable Livelihoods Approach)
배경	커뮤니티가 긍정적인 사회와 경제적 변화를 위해 그들 자신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춤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빈곤을 퇴치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들을 넘어서려는 시도
방향	내부	내부/외부
평가	작업해온 것, 커뮤니티 강점과 자산	자산과 강점

방법	긍정적 인터뷰하기, 자산 지도, 능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질적 방법을 혼합한 빈곤 연구에 대한 학제 간 접근방법이 요구됨 · 넓은 범위의 방법과 도구들이 사용: 주요 정보제공자 인터뷰, 참가방법 그리고 표본 조사
구성요소	개인, 단체, 조직 + (물리적 공간, 지역 경제)	인적, 자연, 금융, 물리, 사회적 자본
기관과 커뮤니티 사이의 관계	공동생산자/시민	공동 디자이너
해결책의 개발	시민 주도의 내부 문제해결	지역 지식과 지역 기반 문제해결
능력배양	시민과 단체	특별한 충격과 지속된 빈곤에 대응 하는 경제적 개발
사회적 자본	자본의 결합, 연결, 연계의 창조	NGO와 커뮤니티사이의 자본 연계
적용가능성	시골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지만 도시의 맥락에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적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지역에 대한 적용 · 자산지도의 지역 유형 파악에 적용 가능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개발 과정에서 외부 단체들과 기관들의 정확한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실패 · 불공평한 힘의 쟁점들을 다루는데 실패 · 다양한 환경에서의 커뮤니티 리더십을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관점의 공간화 하는 과정 필요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단체 등의 재능 등의 목록화 · 공간과 자산의 동시 표현 · 주민참여가 중심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을 유형화하기 좋은 자산지도 · 전체 개념들을 통한 다양한 적용 가능 · 자산의 강약점 파악이 용이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 장점 등 목록화하는데 자산측정의 어려움 · 자산지도의 위치 정보 표시 어려움 · 자산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공론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질로의 전환 필요 · 빈곤퇴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2개의 측정도구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임순정 외, 2014;179).

첫째, ABCD는 커뮤니티 내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들의 자원을 동원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강점과 자산을 긍정적 인터뷰, 자산지도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시민들이 공동생산자로서 주도적으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시민과 단체의 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적자본을 결합, 연계, 연결을 창조하여 커뮤니티를 개발한다. 개인 및 단체, 조직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과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민중심의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장점이 있다. 재능이나 강점의 측정이 복잡하여 자산지도화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공간과 자산의 연계로 보다 명확히 커뮤니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둘째, SLA는 빈곤퇴치를 위해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도움으로 자산과 강점을 인터뷰, 표본조사, 참여방법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또한 커뮤니티를 공동의 디자인어로 보고 지역지식과 지역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빈곤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자산 오각형을 통해 자산의 강·약점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지역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전체 개념틀은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지도의 경우 공간과 관계 연결이 애매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빈곤퇴치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 커뮤니티 개발에 적용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2절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의 활용

1. 사회변화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변화는 경제적 저성장, 사회적격차 증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한상일, 2010;227-228).

첫째, 경제적인 관점에서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미주와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발전이 둔화되고 있다. 경제발전의 둔화는 재정역량의 약화, 정부세수의 감소, 지출확대, 실업률 증대로 개인, 기업, 비영리영역이 재정부담을 안게 되고, 이 경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역할이 강조된다.

둘째, 경제적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격차도 증가한다. 사회적격차의 강화는 국가복지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킴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중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국가가 연금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키고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 고령화사회에서는 노년계층이 경제와 사회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대안 요구되는데 사회적경제는 노년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사회적경제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역할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며, 두 번째 역할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참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역할은 모든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 다양한 기업과 비영리 조직, 결사체 조직 등이 주요주체로 구성된다.

2. 사회적경제의 개념

1) 학자별 정의

사회적경제 개념의 출발은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라는 데 있다. 이것은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플라니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의 원리, 나눔의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를 말한다(신명호, 2009).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각각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산 속에서 변화해 왔다, 스웨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4개국 역시 복지체계의 전통, 정치적인 토대 유산, 사회적경제의 주요주체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지만, 국내·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D(1999)는 “사회적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 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정의한다.

유럽공동체(1989)는 “사회적경제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 행위자인 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민간단체·재단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드푸르니(Defourny, 1990)의 경우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1주 1표제 제외),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이해 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패인과 번사이드(Payne & Buniside, 2003)는 “순수하게 박애적인 활동으로부터 인간 중심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업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영역적 측면에서는 “민간시장 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 영역으로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자원 활동, 지역사회 조직들, 재단, 노동조합, 종교단체, 주택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조직들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신명호(2009)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란 협동조합들 가운데 사회적 목적, 자율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이윤배분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단체를 제외한 NGO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장원봉(2007)은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y)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운영원칙에 의한 정의4)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기업 및 조직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핵심적으로는 이 공통점은 활동이 가지는 공공적 목적의 수준, 그리고 조직양식의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고유의 특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아래와 같은 주요 원칙은 다양한 원천을 조합하는 간명한 방법이다.

- 첫째, 공공적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 둘째, 운영(경영)의 자율성
- 셋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넷째, 잉여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함

공공적 목적이 봉사인 점으로 보아 사회적경제의 활동은 구성원, 또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봉사이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활동의 주요동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운영의 자율성은 사회적경제를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이다. 사실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모든 결사조직의 역동성의 근거가 되는 넓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

통제에 있어 민주성은 이론적으로 1주1표가 아닌 1인1표의 규칙이나 적어도 최고결기구에서 구성원의 표의 제한으로 표현된다. 실제적인 실천의 다양성을 넘어 이 원칙은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자격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일반기업에서처럼 보유한 자본의 정도에 따른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네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기업 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예컨대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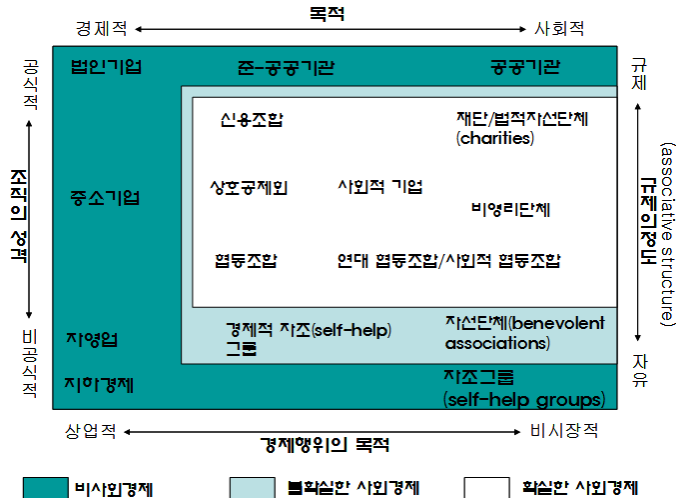
4) 김신양·장원봉(2009). 사회적경제의 이해 : 그 사상과 실천, 역사와 현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사회투자지원재단. 13-14.

에 대한 보상의 제한, 배당금의 형태로 노동자나 이용자 구성원간의 잉여배당, 활동의 발전을 위한 수익금 적립,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익금 사용 등이 그것이다.

3. 사회적경제의 구성 및 조직

영미권에서는 순수한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제3부문을 실체로 여기는(재단이나 자선단체의 자발적 행위가 중요함을 의미: 그림의 오른쪽 부분) 반면, 프랑스어 사용하는 유럽, 캐나다, 사회적경제를 중요시하는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협동조합, 신용조합, 상호공제회가 중요한 역할 수행(흰 부분의 왼쪽)한다. 현재는 흰 부분의 모든 조직을 포괄한다.

한편, 신사회경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탈리아/스페인의 사회적협동조합, 포르투갈의 사회연대 협동조합, 캐나다의 연대협동조합, 스웨덴의 보육협동조합, 덴마크의 프로젝트 개발,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기업, 지역개발기업)을 의미하며, 과거보다 더 다양한 회원, 소비자, 노동자,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자료 : Ninacs, W.Toye,M.(2002), A Review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Social Economy in Canada, SRDC Working Paper Series, 02-02.

[그림 2-5] 사회적경제의 구성

노대명(2007)은 정부의존성에 따라 공공지원형 일자리 사업,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2-9〉 정부의존성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분류

성격 I	성격 II	유형분류	세부설명	
국가 ▼ ▼ ○ ○ ○ ○ ○	정부의존 ▲ ○	공공지원형 일자리사업	장애인 보호 작업장, 노인생산공동체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단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 ○ ○ ○ ○	자립지향 ▼ ▼ ▼ ▼	공공지원형 사회적기업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노동부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자립형 공동체사업(=마을기업)
				지식경제부 커뮤니티비즈니스
	○	자립지향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경제		민간지원기관	대안금융기관	
○ ○ ▲ ▲	비영리 ▲ ○ ▼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단체(서비스공급형)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장	영리		신협, 새마을금고	

자료 : 노대명(2007), 한국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4. 사회적경제에서 지역자산 활용의 중요성

한상일 외(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전체가 지

역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얻기 쉽다(Phillips & Pittman, 200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직면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주민과 지역의 중요한 기관들을 접촉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가게 되며 그 결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을 얻게 된다.

둘째,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면 공동체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이다(Müunkner, 2004). 사회적경제조직은 일반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경제적으로 독창적인 수익모델을 추구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다. 지역사회에는 그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이 활용되었던 자원이 있는 반면 소외되어 널리 활용되지 않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된다.

셋째,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상호이해의 수준이 높아진다.(Mattessich, 2009).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직원이나 활동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역량과 창의력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다.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함께 일할 때 많은 신뢰가 축적되며 이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으로 직결된다. 결국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자산을 많이 활용할수록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이 향상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3절 국내사례와 시사점

1. 완주군 사례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

1) 개요

한국형 커뮤니티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선택리지사업’이란 현장조사에 기초한 귀납적방식의 지역계획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2011).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시행된 선택리지사업은 지역의 개별자원과 각 마을에 대한 심도있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완주군&희망제작소뿌리센터. 2009).

2) 연구의 추진방법

(1) 1단계 : 문헌조사 및 지역연구

문헌조사 및 연구방법론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자료를 통한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의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연구방법론을 개발한다. 1단계에서의 현황파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현장조사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맞는 방법론이 개발되는 단계이다.

(2) 2단계 : Watching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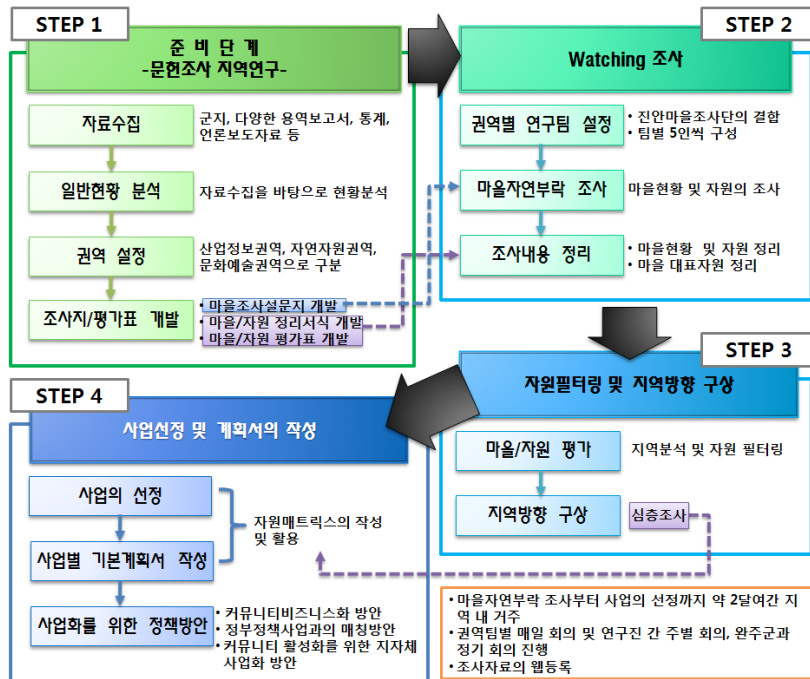
현장조사 단계로서 문헌 및 자료를 통해 파악된 지역과 현장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나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 마을 주민의 협력정도, 마을의 분위기, 사업의 가능성, 주민의 구성, 지역의 역사 등 질적인 내용을 많이 도출해 내어야 한다.

(3) 3단계 : 자원필터링 및 지역방향 구상

지역 및 자원에 대한 평가, 분석의 단계로써 1,2단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류해 내어 핵심자원, 연계자원, 잠재자원 등으로 나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원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비전 및 사업방향, 거점공간 등을 설정하고 진행 가능한 사업목록을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 군의 실무자 및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4) 4단계 : 사업선정 및 계획서 작성

확정된 사업의 실행을 위한 기초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말 그대로 기초사업계획서이므로 바로 실행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사업 개요와 진행절차 및 소요예산 등 실무자가 사업의 진행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다.



[그림 2-6] 연구의 추진방법

3) 선택지리사업 지역조사방법의 특성

(1) 마을조사를 기초로 한 군 단위 지역연구

완주군의 마을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상세한 마을조사와 마을의 자원조사를 실시한다. 전문 마을조사단의 투입과 마을조사/자원조사 평가지의 개발로, 인터뷰·현장탐방 방식에서 발생가능한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일부 해결한다.

(2) 객관성을 부여한 지역조사 분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별, 마을별 평가진단 체계를 만들어 지표별 점수의 책정 또는 유무의 체크를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원평가의 결과는 해당 마을에 대한 분석을, 마을평가의 결과는 해당 면 또는 권역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활용한다.

(3)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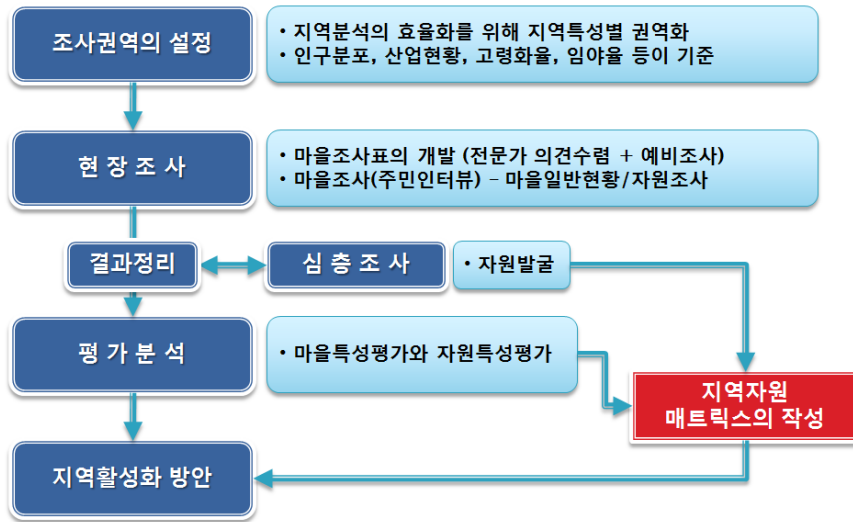
마을평가를 통해 도출된 지역의 문제를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된 자원의 목록화와 세부분류 및 DB화를 통해, 향후 언제든지 정책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핵심자료가 된다.

(4) 선택지리사업 조사방법의 제한점

완주군 선택지리사업만의 조사방법이다. 현장조사 및 결과정리, 분석, 해석과정에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동등하게 적용되고 적합한지를 정당화시키는데 있어 일부 한계를 지닌다.

4) 조사방법

선택리지사업의 조사방법은 다음그림과 같다.



[그림 2-7] 원주군 자원조사 프로세스

5) 정리 및 평가분석 방법

- (1) 조사결과의 정리
- (2) 마을평가와 자원평가
- (3) 지역에 대한 분석

6) 사업화방안의 도출방법

지역자원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지역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역자원 매트릭스 작성서식

구상 사업	현재 있는 자원 (기술)	필요 한 자원 (기술)	창출 해야 될 자원 (기술)	인재 (운영 주체 및 필요 인재)	자금 (어디 에서 조달)	자원 (지역 활 가 능 한 자원)	관련 단체· 기업	현행 정책	필요 정 책	마켓 (수요 판 로가 어디 에 는 가)	외부 자원	특기 사항	기대 효과
a													
b													
c													
d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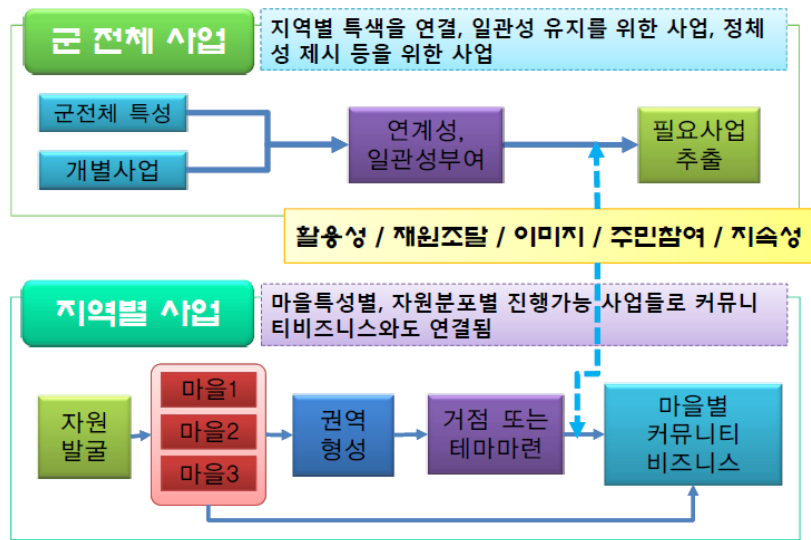
[그림 2-8] 지역자원 매트릭스 표

7) 완주군 자원조사 프로세스

선택리지사업을 종합해 보면 유형별 자원은 자연자원, 문화자원(역사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경제활동자원, 공동체자원)으로 구분하고 각 해당자원을 목록화하여 자원현황을 조사하였다. 마을자원조사지는 ①일반현황 ②마을의 변화모습 ③경제현황 ④공동체생활 ⑤자원현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으로 구성함. 조사는 각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실시하였다. 실시된 조사를 역사축, 자연축, 공간축, 활동축의 평가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A·B·C·D·E의 진단하였다.

예) A(해당자원 존재, 활용 및 주민의지 높음)~E(해당자원 없음, 활용의지 및 관심 없음)

이러한 자원조사를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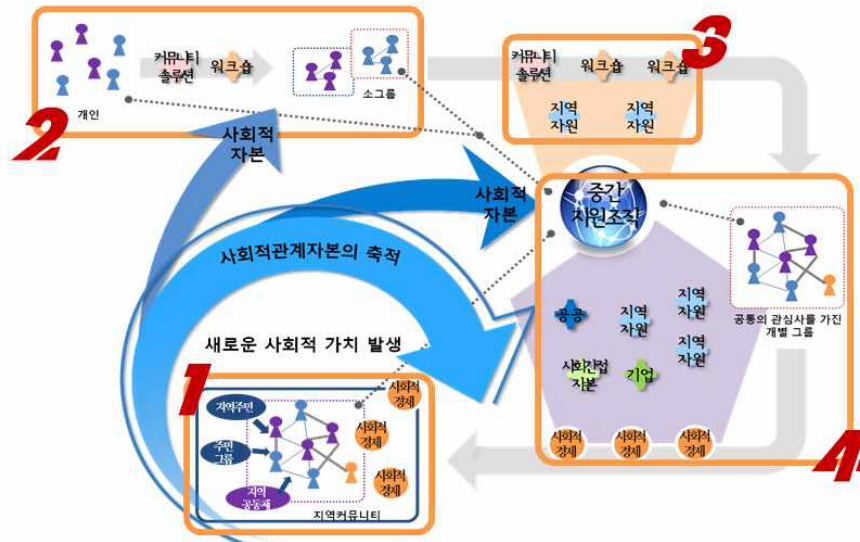
자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http://blog.makehope.org/root/73>)

[그림 2-9] 원주군 사업계획프로세스

2. 괴산군 사례 : 지역자산을 활용한 순환적 지역발전 모델

1) 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지역자산 중심의 커뮤니티발전 접근법에 기초하여 주민 커뮤니티와 지역 자원의 활용, 민관의 지원시스템이 하나로 결합된 순환적 지역발전 모델을 제안하고 실증적 사례적용을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농산촌 지역의 주민과 도시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의 융합 발전시스템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자료 : 김재현·장주현(2014). 커뮤니티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역순환경제형성. 한국지역개발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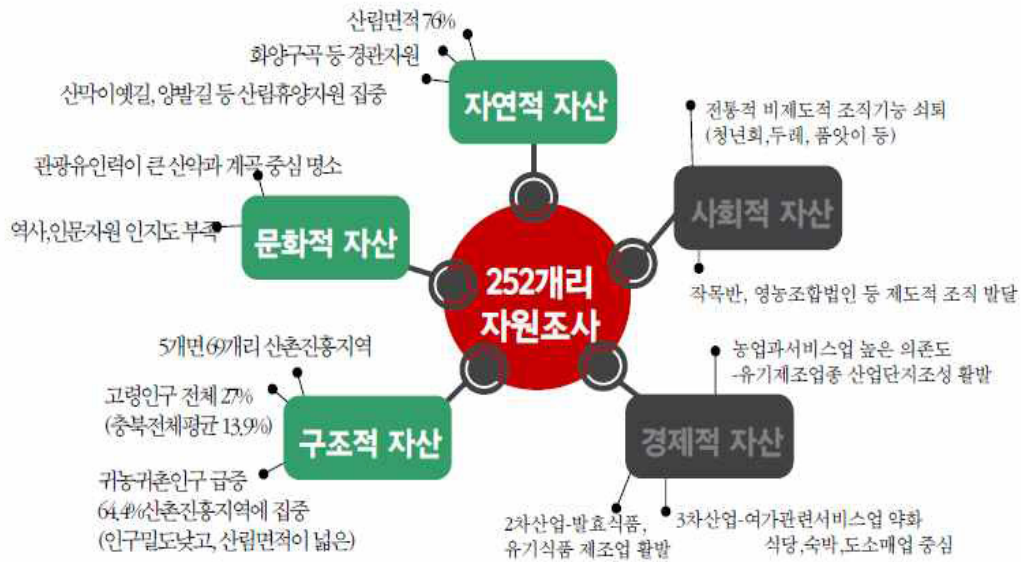
[그림 2-10] 커뮤니티와 지역자산을기반으로 한 순환적 발전 모델

2) 순환적 접근모델 적용 및 결과

(1) 제1단계

기존 지역에 있는 공동체 조사 단계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활동 해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동체 내력과 현황을 조사하고, 특징을 파악하여 새롭게 생겨날 조직들과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조사결과 괴산군의 경우 크게 자립형 공동생산단체, 사회적기업형 공동체, 사회 서비스체고 및 가치추구 공동체, 신규귀촌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한 살림, 흙살림, 흙사랑영농조합 등 농림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공동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자립형 공동생산 공동체와 신규 귀농귀촌인들과의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거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2-12] 괴산군 지역자원조사 분석결과

(4) 제4단계

제4단계는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자원의 활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조직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조사	2 아이디어 공모	3 교육워크숍	4 주민발표
지역현안, 산림자원 활용에 대한 조사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수립 과정(현장+강의 교육, 총6회, 24시간 구성)	완성된 사업계획을 지역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발표

[그림 2-13] 지역자원의 활용 및 실행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지역자원조사결과 괴산군의 대표자원으로 “산림”의 가치를 확인하였고, 그 자원에 대한 잠재적인 활용수요도 확인하였다. 이에 ‘괴산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주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5개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발굴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향후 실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위해 논의하고 토론하여 최종적으로 4팀의 괴산군 산림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주민들이 직접 괴산군청을 비롯한 협력기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실시하여 공유하였고, 향후 사업추진 및 실행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고,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

3. 시사점

선택리지사업에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역조사사업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연구가 추구하는 지역조사의 본래적 의미를 투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기존에 실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지역조사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방안의 수립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괴산군 사례는 지역자원조사에서부터 커뮤니티의 구성, 구성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행 및 평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단계화시켜 실제 적용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농산촌 지역개발에 있어 소홀히 되었던 지역의 커뮤니티자원조사와 커뮤니티 발굴 및 교육은 향후 지역의 자원과 커뮤니티를 연계한 새로운 농산촌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충남도와 시군의 지역자산활용형 사회적경제 가능성 검토

제1절 충남도 및 시군별 사회적경제 시책

1. 조직 및 제도

충남도 사회적경제 시책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모든 조직이 강한 연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조직간에는 강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조직간에는 느슨한 연대로 형성되어 있다.

〈표 3-1〉 충남사회적경제조직 현황 및 주요사업

구 분	실무조직	주요사업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사회적경제 담당	지속가능발전 및 사회적경제정책개발,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담당	사회적경제 총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시군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기업)담당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도정책자문단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15인)	사회적경제담론 확산, 충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 및 우선추진과제 도출, 사업방향과 예산안 수립 자문 등

중간지원조직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정책개발 및 지원, 사회적경제연구 및 조사, 조성사업, 교육 및 홍보 등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상담 및 발굴, 인증지원 및 경영컨설팅, 교육, 홍보 등
	충남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발굴 및 운영컨설팅 지원 등(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설치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와 충남도의 재정지원으로 운영)
당사자조직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예비)사회적기업간 정보교류, 협력증진, 유대강화 등을 위한 활동(업종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충남마을기업협의회	마을적기업간 정보교류, 협력증진, 유대강화 등을 위한 활동
시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천안, 공주, 아산, 서산, 홍성, 금산, 서천, 홍성 등 8개 시군	각 시군 NGO,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동가 등이 주축 생태계 구축
충남도 산하/출연기관	충남도산하 및 출연기관 7개 ⁵⁾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연구조사, 사업수행, 인재육성(교육) 등의 업무수행
대학교	공주대, 순천향대, 나사렛대, 청양도립대 등	대학의 산학협력단, 링크사업단 등과 연계한 아카데미운영, 창업교육 등

한편, 충청남도에서는 기존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경제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다(2012.7.25). 이 조례는 기존 사회적기업의 협소성을 사회적경제로 확장하였으며,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조례로 개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를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5)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자원봉사센터, 충남테크노파크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시설비 등 지원,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 지원, 우선구매 등 지원, 조세감면, 민간위탁사업 참여장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주요시책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시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업무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주도의 사회적경제 시책의 광역단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지원, 협동조합지원, 자활기업 지원 등

구 분	기초자치단체 역할
지역형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지형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지침 등을 제개정하는 등 지정근거 마련
	공모, 심사를 통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예산교부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지원기관과 공동수행)
	기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제도 마련 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하여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노력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여부 심사 및 재정지원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실정에 비추어 자치단체도 육성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 법인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유관기관과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연계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역별 설명회, 간담회 개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구성, 운영
	예비사회적기업심사(세부심사항목 구성 및 배점),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 지원(11년 이후 신규 참여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지역연계 또는 기업연계 지원
	사업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교육업무
	일자리창출사업 수행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등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의 지역고용심의회(노사민정협의체)에 보고
전문인력지원 사업	관할 기초자치단체 지원사업 총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재교부(분기별)
	전문인력 지원사업 수행결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와 지역고용심의회(노사민정협의체)에 보고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 접수, 검토의견서 작성
	사업참여기업과 사업수행 약정체결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등 모니터링(보조금 집행실태 등)

자료: 고용노동부.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

둘째,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시책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시군중간지원 조직 육성
- 지역특화 및 소셜벤처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현지화
- 사회적경제 오피스업무 대행 서비스
- 사회적경제아카데미
 - : 사회적경제 교재개발
 -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운영
 - : 활동가/연구자 학습모임
 - : 초중고 협동조합 특별교육
 - :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대학강좌 개설
 -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실 운영
 - : 사회적경제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협업화 교육
 - : 사회혁신가 육성지원
 - : 사회적경제 청년캠프(지역대학 연계)
 - : 사회적기업 업종별 특화교육
- 전국사회적경제활동가 대회개최
-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운영

제2절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시책

1. 조직 및 제도

충남도내 시군의 사회적경제시책은 주로 일자리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부서의 명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2〉 충남 시군별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와 인원

시 군	담당부서	근무인원		
		담당	팀장	직원
천안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		1	1
공주시	경제과 경제정책			1
보령시	지역경제과 고용정책	1		2
아산시	경제과 사회적기업팀		1	2
서산시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1	1
논산시	경제지원과 지역경제부서	(1) ⁶⁾		1
계룡시	경제교통과			1
당진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		(1)	1
금산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1)		1
부여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1)	2
서천군	경제진흥과 지역순환경제담당	1		1
청양군	지역경제과 시장고용담당	(1)		1
홍성군	경제과 고용정책분야	1		1
예산군	경제통상과 경제통상담당	(1)		2
태안군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	1		1

충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천안시에는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에 사회적기업팀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2명의 직원 사회적기업팀 총괄업무 및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주시는 안전산업국 경제과 경제정책담당내에 1명의 주무관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업무를 포함하여 공주사랑상품권, 계량기 검사, 대부업관리, 복권, 저축, 소상공인육성지원 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6) 시군담당자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나, ①시군홈페이지의 업무분장표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리고 ②담당업무가 직접적으로 사회적경제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괄호로 표시하였다.

보령시는 지역경제과 고용정책 담당이 고용정책 총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총괄을 하고 있으며, 2명의 주무관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포함하여 노동조합 및 노사관련, 취업알선, 직업훈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아산시에는 경제환경국 경제과 사회적기업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3명의 직원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만들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팀장은 사회적기업 업무총괄, 사회적경제 및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육성계획 수립,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TF팀 운영, 팀원1은 마을기업육성지원, 협동조합지원육성지원, 아산형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팀원2는 사회적경제 협력업무 추진,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산시는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2명의 직원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업무,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논산시는 경제지원과 지역경제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의 직원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와 함께, 노동조합관리, 대부업, 방문판매업, 계량질서 확립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계룡시는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1명의 직원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계룡시 홈페이지 과별 업무분장표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업무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경제교통과장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업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센터와의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당진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의 직원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포함하여, 일자리 박람회,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지식재산등록사업 추진,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금산군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의 직원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업무와 함께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산군 홈페이지 과별 업무분장표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업무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부여군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명의 담당자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점검, 협동조합업무 홍보를 포함하여 일반

서무, 물품관리, 과 예산, 경리, 부여사랑상품권, 저축 및 노정, 담배소매업,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등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서천군은 경제진흥과 지역순환경제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의 담당이 지역순환경제업무 총괄, 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1명의 주무관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서천주민기업 육성 및 관리,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사회적(재단)기금 모금 및 관리, 지역순환경제활성화협의회 운영,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구축, 지역순환경제 관련업무 통합관리 지원(로컬푸드,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천군에는 지역경제과내에 따로 일자리 창출담당을 두어 2명의 직원이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고용촉진, 농어민 직업훈련, 일자리종합센터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양군은 지역경제과 시장고용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의 직원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업무를 포함하여 일자리공시제, 취업지원센터 운영, 실업대책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홍성군은 경제과 고용정책담당이 고용정책업무 기획조정, 사회적기업 업무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의 직원이 충남형 사회적기업 업무, 풀뿌리 사회적기업 업무를 포함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업무, 일자리공시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예산군은 경제통상과 경제통상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명이 직원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태안군은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담당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협동조합 육성과 함께 노사정업무, 노동조합,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1명의 직원이 마을기업 육성지원업무를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자리 공시제 추진,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관련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15개 시군 모두가 제정하고 있으나, 천안시와 아산시 는 사회적경제, 서천군은 지역순환경제라는 이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 지역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조례는 2009년 논산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부여군은 2014년 제정하였으며, 서천군은 기존 사회적기업 조례를 폐지하고 2014년에 지역순환경제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체제정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7)에 근거한 조례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천안시(2013.5.13)와 아산시(2013.10.25)에서 제정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사회적경제는 다음과 같이 제정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표 3-3> 충남 시군별 사회적경제 조례제정 현황

시 군	사회적경제 조례명칭	제정연도
천안시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2013
공주시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0
보령시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아산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2013
서산시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논산시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09
계룡시	계룡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2
당진시	당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금산군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2
부여군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14
서천군	서천군 지역순환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청양군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2
홍성군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예산군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태안군	태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2014.10.8일 접속.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서천군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4년 1월 6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발적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가 선순환 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그 밖의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등이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2. 시군별 주요시책

1) 상부기관 위임업무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시책은 충청남도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지원업무와 시군 독자적인 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3-4〉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위임업무

구분	시군업무
사회적기업	기업과 약정체결 사업 추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 등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 등 관리
마을기업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마을기업 등 발굴 마을기업업 지도·점검 등 관리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도·점검 등 관리

2) 시군 독자업무

충남도내 시군별 사회적경제사업을 조례 등 제도, 중간지원조직, 군비중심 독자사업, 민간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5〉 충남시군별 사회적경제사업

구분	사업분야	주요사업
천안시	조례 등 제도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중간지원조직 설치	1)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사업 - 목적: 컨설팅·홍보·판로개척 - 대상: 63개기업(사회적기업 28개, 마을기업 2개, 협동조합33개) - 예산: 20백만원 2)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캠페인 - 목적: TV스팟광고를 통한 홍보 - 대상: 63개기업(사회적기업 28개, 마을기업 2개, 협동조합33개) - 예산: 10백만원
	민간네트워크	천안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설립연도: 2012.10 - 목적: 천안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조직간 네트워크 촉진
공주시	조례 등 제도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조례 등 제도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조례 등 제도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군비중심 독자사업	1)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사업 - 대상: 기업당 1억 5천만원 - 예산: 150백만원 2)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지원사업 - 대상: 아산시 사회적기업(100회) - 예산: 6백만원 3) 주민참여마을만들기 사업 - 대상: 마을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민간네트워크	아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 설립연도: 2012.2.29 - 목적: 사회적기업 연대를 통한 아산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도모
서산시	조례 등 제도	서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군비중심 독자사업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교육 - 대상: 일반시민 30명 - 기간: 2014.3~4
	민간네트워크	서산시 사회적기업협의회 - 설립연도: 2012.3.1 - 목적: 기업간 정보공유 및 사회적기업 확산 기여

논산시	조례 등 제도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군비중심 독자사업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담교육 - 2013년 2회, 2014년 2회 실시
	민간네트워크	논산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 설립연도: 2012 - 목적: 기업간 단합 및 정보공유, 월례회 실시
계룡시	조례 등 제도	계룡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조례 등 제도	당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조례 등 제도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여군	조례 등 제도	부여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군비중심 독자사업	1)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 - 목적: 지역특산물 및 자연자원 활용사업 지원 - 예산: 기업당 2년간 최대 80백만원 지원
서천군	조례 등 제도	서천군 지역경제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중간지원조직	서천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군비중심 독자사업	1) 서천군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수립(2013) 2)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전문가 컨설팅, 홍보영상물 제작 3) 주민기업 공모지원(2012,2013)
청양군	조례 등 제도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비중심 독자사업	1) (예비)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선지지 견학 - 대상: 40명 - 예산: 16백만원
	민간네트워크	청양군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구축중) - 기업들 무관심
홍성군	조례 등 제도	홍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비중심 독자사업	1)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운영 - 대상: 20명, 1개월간
	민간네트워크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설립연도: 2012.11.22 - 목적: 지역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사업 추진
예산군	조례 등 제도	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조례 등 제도	태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비중심 독자사업	태안군 사회적경제 협의회 활성화사업 - 목적: 선진지견학
	민간네트워크	태안군사회적경제협의회

〈표 3-6〉 충남시군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

구분	추진내용
천안시	1사1사회적기업 결연 협약식(중견기업 9곳-사회적기업 9곳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위탁) -사회적경제교육/ -홍보 및 판로개척/ -모델발굴(인큐베이팅)
공주시	사회적기업 생산품 전시판매전 개최(시청로비 2일간) -마을기업 2, 사회적기업 3, 지역공동체일자리 1=300여만원의 수입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증 설명회 개최(네트워크 주관행사)
보령시	인증요건 및 인증전환을 위한 설명회 개최(네트워크 주관행사)
	희망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도 주관 행사)
아산시	사회적경제 홍보영화, 부채제작(시비 1천만원)
	아산온천역 하부공간 5일장 활용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방안 수립에 따른 정책자문(충발연 연구위탁)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추진
논산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현지방문 상담활동
	전국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참여/논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추진
계룡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교육실시(2곳 대상)
당진시	우수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더부러)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구입
금산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종합대학 설립(22회, 15명 수료)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통한 기업 육성정보 공유(2번째는 공문 미첨부, 사진만 첨부)
부여군	부여군 사회적경제 조직 협의체 구성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물 제작
서천군	지역일자리경진대회공모를 통한 사회적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한산모시 조합 우수상 수상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
청양군	청양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우수)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
홍성군	홍성군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민·관협력 거버넌스 “홍성통” 발족
예산군	사회적기업-마을기업간 의좋은형제 운영
	군 홈페이지 내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
태안군	사회적경제조직 홍보관 운영(바다의날 행사, 여성의 날 행사)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및 육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출처: 충청남도(201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도시군 및 사회적경제기관 워크숍자료.

3) 지역자산기반 사회적경제조직

충남내 시군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지역자산에 기반하여 설립된 경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 충남시군별 지역자산기반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활용지역자산
천안시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	지역문화재
공주시	(주)주얼테크:백제문화상품 농업회사법인 미마지 한국자연미술가협회내 자연의 소리 농업회사법인 공생공소	백제문화 공주민속극박물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로컬푸드
보령시	(주) 서각사랑	전통방식 제작기술(현판)
아산시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공세리마을협동조합: 천주교회 풀담문화공동체협동조합	생협조직(한살림) 공세리성당 생협조직(조합원)
서산시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해미읍성
논산시	하늘땅영농조합 (사)한옥체험업협회 양촌영농조합	장애인 전통가옥(고택) 활용 지역농산물 납품
계룡시	군문화체험사업단	군사시설
당진시	백석올미영농조합	고령자
금산군	하늘카페 '휴'	지역특산물 인삼
서천군	에덴영농주식회사 한산모시조합 월산리영농조합 농촌생활목공센터 동자북마을영농조합 너나드리영농조합법인 서툼농부들협동조합	서천김(손김-전통방식) 한산모시 모시떡 귀농귀촌인 한산소곡주 생태여행 귀농귀촌인, 로컬푸드
청양군	천장리영농조합 칠갑산국사봉영농조합 청양유기농영농조합	마을축제 산(산약초)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성군	(주)지랑 홍성환경농업영농조합(문당마을)	전통장류 명인 홍동 유기농발상지
예산군	전통농촌문화연구소영농조합	독립운동가 생가
태안군	갈두천협동조합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건물)

〈표 3-8〉 충남시군별 지역자산기반 마을기업 현황

구분	마을기업	활용지역자산
보령시	꿈이있는 먹방마을 영농조합법인	성주-청라터널입구 재배장(충남도협조)
서산시	영농조합법인 서친숲	마을숲
논산시	문화협력 마을공동체	전통한옥(고택)
당진시	당나루물꽃송마마을 영농조합	생태늪지
금산군	별에별꿀 협동조합	폐교
	금강나루 협동조합	금강
	탐정호 휴양마을 협동조합	로컬푸드
부여군	오디건강 체험마을	생태늪지
	웰빙산약초 공동체	산(산약초)
서천군	흥림1리 마을회	마을고택
청양군	나눔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
	칠갑산꾸러미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
홍성군	지역센터마을활력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건물)
예산군	협동조합 느린손	전통문화(공예)
태안군	대야도 영농조합	섬(대야도)

〈표 3-9〉 충남시군별 지역자산기반 협동조합 현황

구분	협동조합	활용지역자산
천안시	남산중앙시장상인협동조합	전통시장
공주시	공주산성시장협동조합	전통시장
	공주친환경밤협동조합	지역농산물(밤)
아산시	예술마당협동조합	사회단체(문화예술)
	협동조합 고랑이랑	로컬푸드
서산시	가로림만생태문화협동조합	가로림만
	천수만 생태문화협동조합	천수만
	놀이패뽕바람협동조합	전통연희극
논산시	예스민팜포유협동조합	로컬푸드
금산군	다문화협동조합	다문화가정지원
	한국금산인삼협동조합, 금산인삼빵협동조합, 천지현홍삼흑삼협동조합	인삼
	협동조합 금산민속예술보존회	사회단체(문화예술)
서천군	한산소곡주협동조합	전통주(한산소곡주)
	한산소곡주특산품협동조합	전통주(한산소곡주)
	서천예인협동조합	체험농장
	바른생산사협동조합	로컬푸드
홍성군	광천재래맛김협동조합	광천김
	홍성자연재배협동조합	로컬푸드

제3절 충남도 및 시군시책의 특성종합

1.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시책 수행

충청남도에서 자체 시책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충남형 혁신사업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 시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도 주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역차원에서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국비중심의 재정지원을 도차원에서 대행하는 구조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 주도의 시책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충남도가 자체재원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나 시군이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시책을 위한 재정편성은 중앙정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2.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가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몇몇 시군의 제외한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독자적 추진역량이 부족하다. 시군 행정조직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중요성이 낮고, 민간영역의 관심과 역량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다. 시군에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회적경제정책 보다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 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관행이 여전하다.

3.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간의 연계방안 미흡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자국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자원잠재력 등에 의해 자국에 적합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우리 나라 역시 원주시의 협동조합도시,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서천군의 지역순환경제 등 차별화된 사회적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충남도의 시군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시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주군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에서 보듯이 기초 자치단체도 지역특성과 자원잠재력에 기초한 독자적 사회적경제사업이 오히려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민선6기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군별 특성화된 사회적경제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시군 단위 지역자산조사의 부재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을 위해서는 시군단위 지역자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를 보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자산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몇몇 독자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자산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었고,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사회적경제자체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지역자산 조사 역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역자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몇몇 주민의 관심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자산 활용 사례분석: 서천군을 사례로

제1절 분석을 위한 틀

선행연구 중 Kretzmann & McKnight(1993), 충북대학교(2010), 최혁라 외(2012), 이용재·김봉환(2013) 등을 중심으로 검토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지역자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산내용

구분	자산내용	
Kretzmann & McKnight(1993)	개인자산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이민자 등의 기술, 개인적 재능, 교육적 배경, 예술적 능력,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능력 등
	기관자산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도서관, 박물관 등),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종교기관, 이익집단, 사회적기업
	물리적자산	사회간접자본(공터, 주거지역, 공원, 도로, 학교건물, 공공건물), 자연자원
충북대학교(2010)	기업, 학계 및 프로보노, 공공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언론, 금융기관, 민간단체 및 기관, 자원봉사	
최혁라 외(2012)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프로보노, 자원봉사, 지역언론사	
이용재·김봉환(2013)	자금,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처, 경영지원, 홍보 및 마케팅, 기술지원, 인력, 인프라, 교육훈련	

이상에서 분석한 선행연구의 자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자산을 추출하였다. 우선 지역자산은 5개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양적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코자 한다.

- 1단계는 사례지역 읍면별 자산의 양적 분석
- 2단계는 사례지역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분석(인터뷰)
- 3단계는 사례지역 지역자산맵 작성

1단계 지역자산의 양적분석을 위한 변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이변수를 사례지역에 모두 적용하지는 않았음을 밝혀둔다.

<표 4-2> 지역자산 양적분석을 위한 변수 및 내용

구 분		내 용
개인적자산	귀촌, 귀농인	귀농, 귀촌자들의 거주지역, 종사직업 등
	장애인	장애인들의 거주지역/형태, 장애유형, 고용형태 등
	고령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거주지역, 생활, 고용형태 등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의 거주지역, 생활
민간조직자산	부녀회	부녀회의 역할과 기능
	청년회	청년회의 역할과 기능
	노인회	노인회의 기능과 역할
	작목반	작목반의 유형
	영농조합	영농조합유형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언론	마을신문, 방송현황
기관자산	공공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경로당	경로당의 특색사업
	마을공부방 마을도서관	공부방, 도서관의 기능
	박물관	박물관 수 및 유형
	종교기관	교회, 천주교회, 사찰 등
지역경제자산	산업단지	산업단지 현황
	기업체	기업체수, 종사자수, 기업유형
	은행	일반은행, 협동조합은행
	축제	축제의 종류 및 수, 참석
	체험마을	농촌 및 어촌체험마을 현황
	교육농장	교육농장 현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마을기업	마을기업 현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현황
	자활기업	자활기업 현황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현황
물리적자산	빈집	빈집현황
	휴양림	휴양림 현황
	공원	국도립공원, 도시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등
	항포구	항포구 현황
	관광자원	농어촌관광자원
	특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2단계 사례지역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분석은 다음과 같은 7명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4-3〉 지역자산의 질적분석을 위한 내용

제보자	근 무 처	직 위
노 희 랑	서천군청 미래전략사업단	담당
백 세 기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조 동 준	서천군의회	의원
강 기 원	바른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
김 억 수	너나드리협도조합	이사장
정 경 환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사무국장
오 은 순	서천군 사회복지과	주무관

3단계는 사례지역 지역자산 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 [그림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Kretzmann & McKnight(1996)의 자산지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제2절 사례지역의 지역자산 실태조사

1. 사례지역의 선정 이유

지역자산실태조사를 위한 대상지역으로 서천군을 선정하였다. 서천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서천군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지역순환경제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서천군의 시장경제-공공경제-사회적경제 영역 및 각 경제영역간 선순환경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 선순환경제지원센터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센터가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선순환경제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특히 선순환경제센터는 서천군이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를 핵심으로 하여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이라는 점에서 타 자치단체에 한발 앞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1] 사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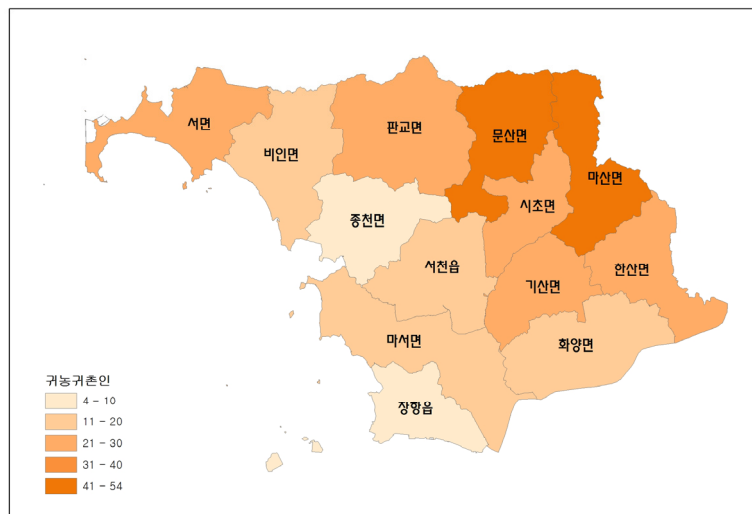
서천군을 사례로 앞의 분석틀에서 확정한 분석변수를 활용하여 면 단위의 지역자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기존문헌, 통계자료, 조사자료 등을 활용한 양적분석과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양적분석

1) 양적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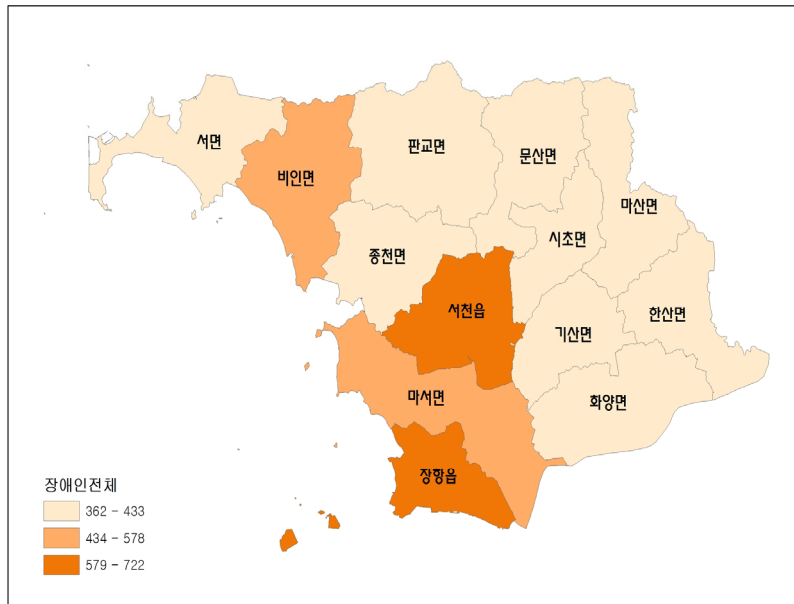
(1) 개인적 자산

서천군의 귀촌, 귀농인은 310명으로 파악된다. 특히 문산면과 마산면에 약 100명이 정착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천군에 정착한 귀촌 및 귀농인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서천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작목 등에 대한 교육과정편성에 어려움이 있다. 서천군의 귀촌 및 귀농인들을 지원하는 단체로는 서천군귀농인협회의 귀농인지원센터가 활동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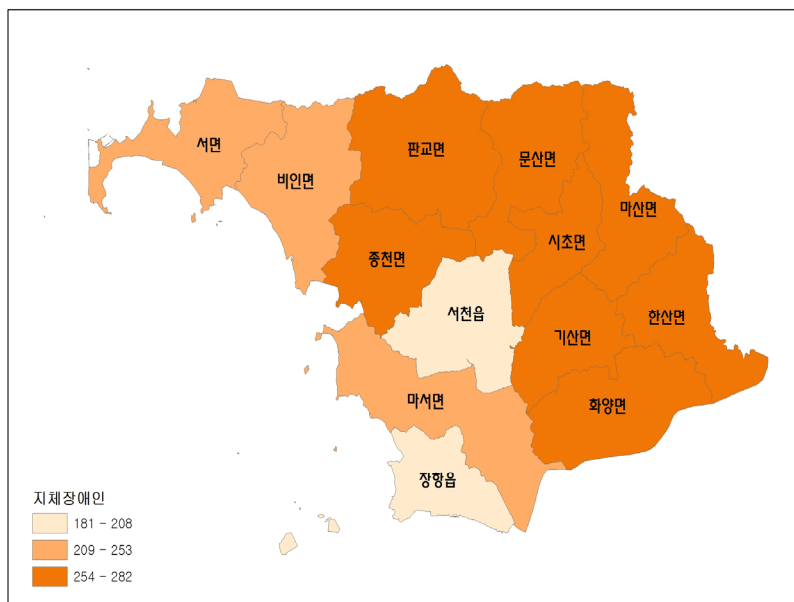


[그림 4-2] 서천군 귀촌, 귀농인 현황

서천군의 장애인은 5,954명으로, 서천읍(11%), 장항읍(12%), 마서면(9%)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은 3,270명으로, 장애인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지체장애란,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앞서 장애인이 많았던 서천읍과 장항읍 등에서 적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거주 고령자들의 상당수가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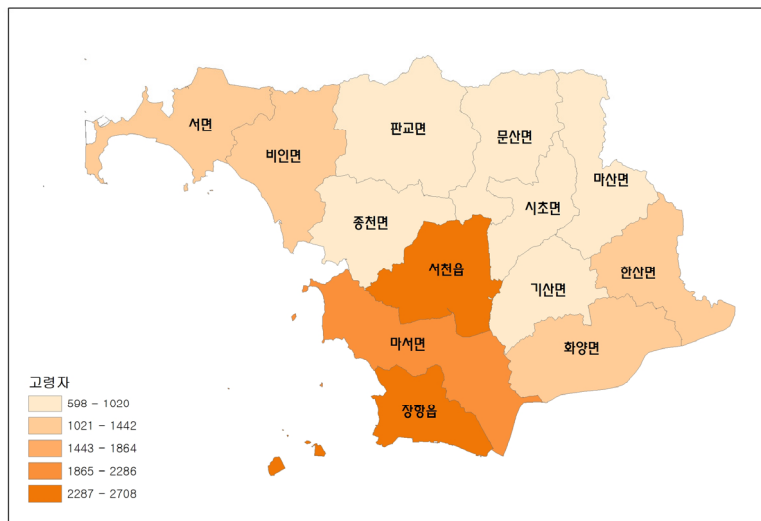
[그림 4-3] 서천군 장애인 현황



[그림 4-4] 서천군 지체장애인 현황

서천군의 고령자는 2012년말 현재 16,491명으로, 서천군전체인구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UN분류)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들은 서천읍(16%), 장항읍(16%), 마서면(12%)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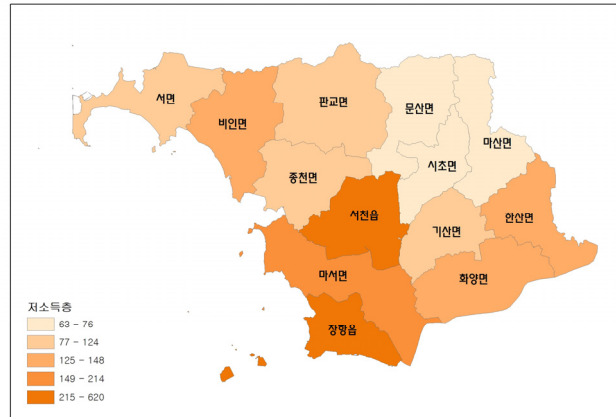
인구대비 서천읍(18%), 장항읍(20%)에 불과하지만, 시초면(46%), 문산면(42%), 화양면(42%), 기산면(41%), 마산면(40%) 등은 심각한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5] 서천군 고령자 현황

서천군의 저소득층은 2012년말 현재 2,406명으로, 서천읍(26%), 장항읍(19%)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상위계층(2,276명) 역시 서천읍(21%), 장항읍(22%)으로 서천의 도시권이라 불리우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인구대비로 판단할 때는 2~6%정도로 확연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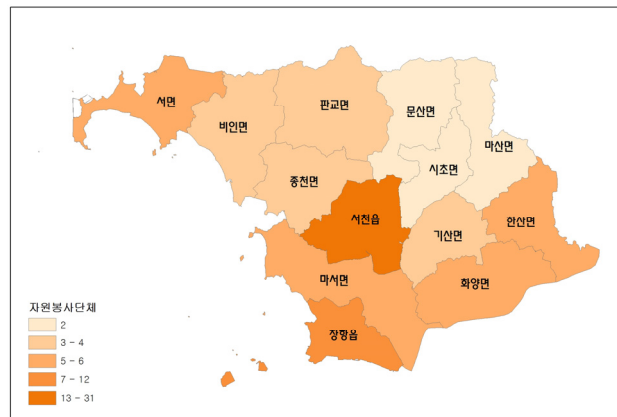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은 서천읍과 장항읍을 중심으로 추진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6] 서천군 저소득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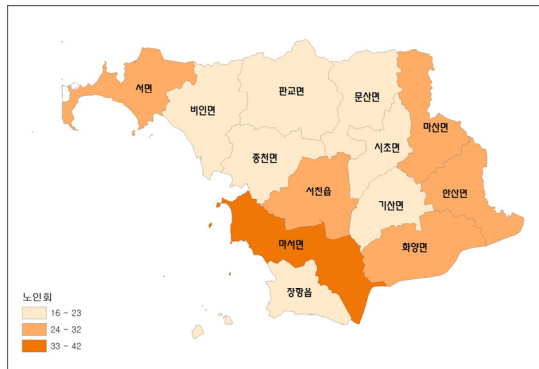
(2) 민간조직자산

서천군의 자원봉사단체는 84개 단체로, 서천읍(37%), 장항읍(14%)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서천군자원봉사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서천군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조례제정 후,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천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미용봉사단, 문화봉사단, 가족봉사단, 늘푸름배움터, 재난재해봉사단 등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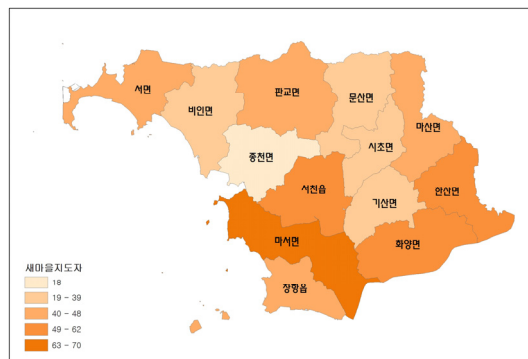
[그림 4-7] 서천군 자원봉사단체 현황

서천군의 노인회는 2012년 현재 323개이며, 마서면 42개(13%), 서천읍32개(10%), 한산면 30개(9%)로 상대적으로 많다. 당해지역 인구대비로 확인할 때 마산면(17%), 문산면(13%), 시초면(12%)로 높게 나타났다. 서천군의 고령자인구가 읍면지역대비 2~6%대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마산면, 문산면, 시초면 등의 지역에서 노인회활동이 활발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8] 서천군 노인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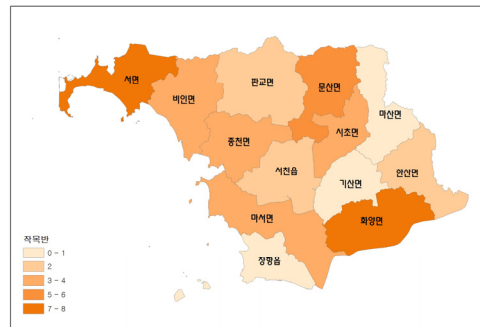
서천군 새마을지도자는 총 593명으로, 마서면 70명(12%), 한산명 58명, 서천읍 57명(10%) 등으로 분포하고 있다. 서천군은 2013년 1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천군 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등의 조직에 대한 육성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4-9] 서천군 새마을지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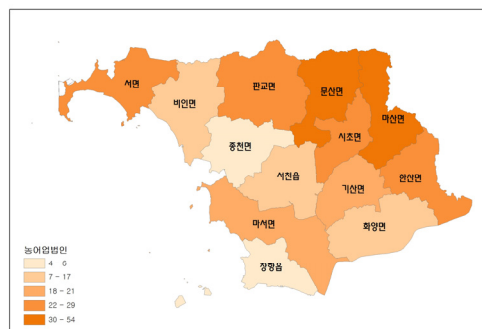
서천군의 작목반은 총 42개로 파악되었고, 서면 8개(19%), 화양면 7개(17%), 문산면 6개 (14%)순 이다. 품목별 작목반 구성현황은 논벼 17개, 채소 21개, 특용작물 5개, 화초 및 관상작물 4개, 과수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지역의 작목반 현황을 살펴보면, 서면과 화양면의 경우 논벼작목반 가장 많았으나, 문산면의 경우 논벼작목반은 없고, 채소작목반 6개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특징을 띠고 있다.



[그림 4-10] 서천군 작목반 현황

서천군의 농어업법인은 총 310개로 파악되었고, 읍면별 현황으로는 문산면 54개(17%), 마산면 44개(14%) 지역이 많이 조직되었고, 시초면 28개, 한산면 29개, 관교면 29개(9%)이다. 이는 서천군의 북서부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업관련 법인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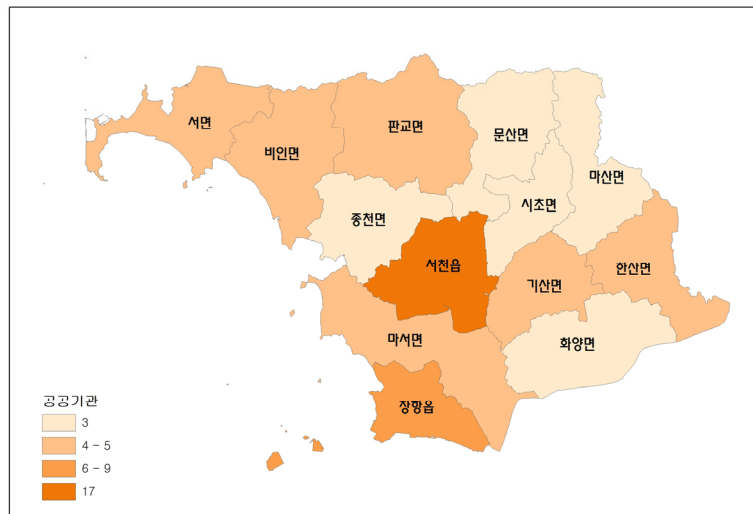


[그림 4-11] 서천군 농어업법인 현황

(3) 기관자산

서천군의 공공기관 현황은 총 68개로, 서천읍 17개, 장항읍 9개로 집중되어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기관으로 각 읍면에 파출소가 존재하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경우 장항읍, 한산면, 비인면, 서면에만 있어 서천군 동북지역(문산면방면)의 대형화재나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긴급한 대처가 취약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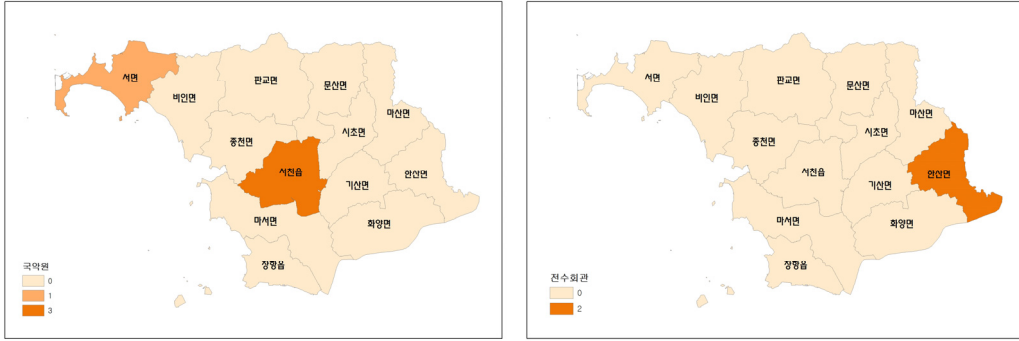
서천군의 지역방송사는 전무하고, 신문사는 2개가 운영되어 지역현안을 다루고 있다. 농협은 7개 단위농협이 활동중이며, 축산, 수산업, 산림조합은 각각 1개가 활동중이다.



[그림 4-12] 서천군 공공기관 현황

서천군에는 3곳의 국악원이 활동 중으로, 서천읍 서림국악원과 서천국악원, 서면에 동백국악원이 활동중에 있다. 한산면에는 전수회관이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서천군의 중요한 무형문화제인 한산모시의 전수를 위한 공간이다.

한산모시는 여름 전통옷감의 대표적인 것으로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기능보유자로는 방연옥, 전수교육조교로는 박승월, 고분자가 있음. 최근(2011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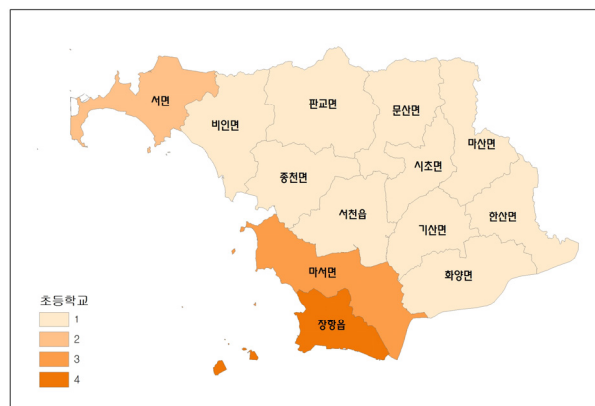
[그림 4-13] 서천군 국악원과 전수회관 현황

서천군의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는 총 19개교(분교포함)가 있다. 장항읍(4), 마서면(3), 서면(2)을 제외한 읍면에는 단 1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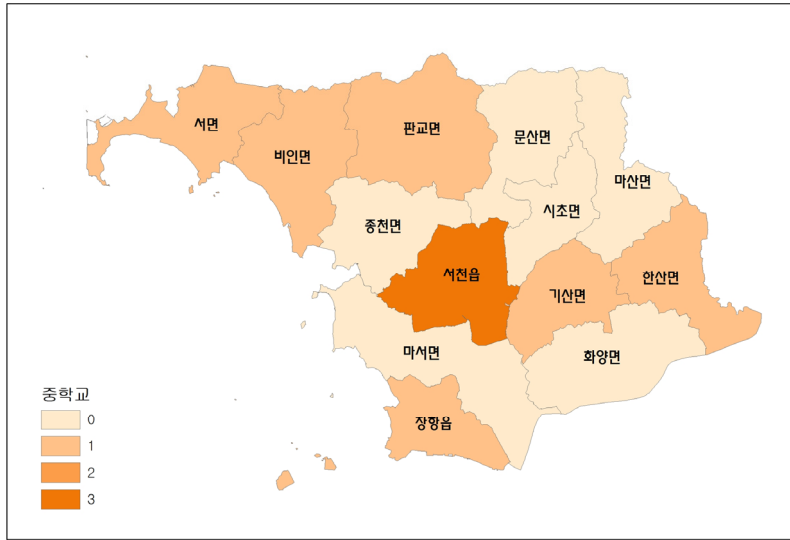
중학교는 9개교가 있으며, 서천읍(3)에 집중되어 있다. 6개면은 중학교가 없는 실정이다.

고등학교는 총 7개교로, 공립(4), 사립(2), 대안학교(1)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한산면의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서천과 장항에 있으며, 10개면에 고등학교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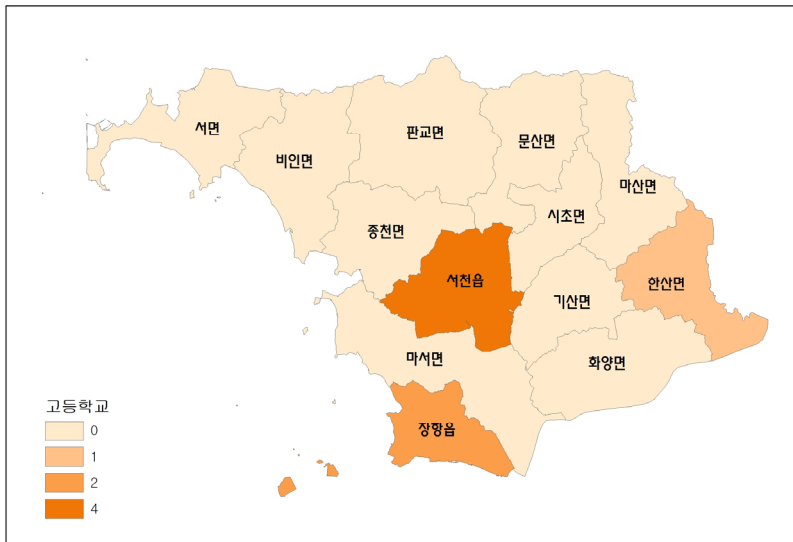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역요구가 높다.



[그림 4-14] 서천군 초등학교 현황



[그림 4-15] 서천군 중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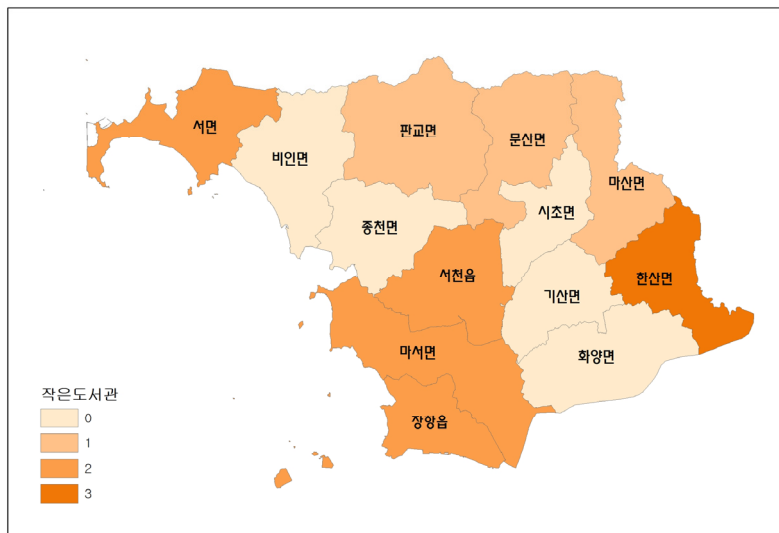
[그림 4-16] 서천군 고등학교 현황

서천군의 작은도서관은 총 14곳으로, 한산면(3), 서천읍(2) 등이 있다. 비인면, 시조면등 5개면에는 작은도서관이 없다.

서천군내 규모가 있는 공공도서관은 2곳으로, 서천도서관과 장항공공도서관이 있다. 서천도서관은 일반도서 약 5만권, 아동도서 2만 6천여권 등 총 8만 2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장항공공도서관은 6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공공도서관 총 이용객 3만명이 넘어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서천과 장항에 입지한 도서관은 타지역 도서관이용자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서비치 공간부족 및 시설노후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천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천읍 군사리 일원과 장항읍 화천리 일원에 군립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90억 190만원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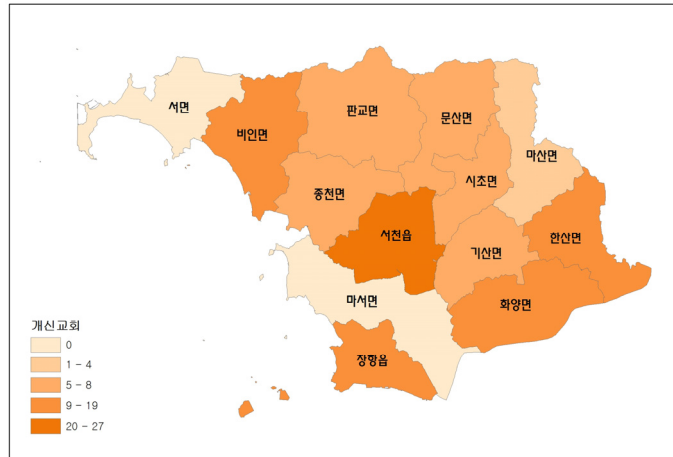
[그림 4-17] 서천군 작은도서관 현황

서천군의 개신교회는 총 121개로 조사되었고, 서천읍(27개), 장항읍(19) 등으로 높았으나, 서면 및 마서면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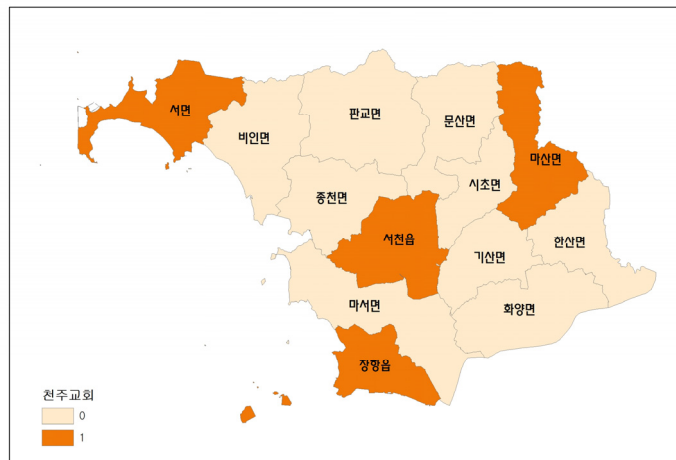
서천군의 천주교회는 총 4개로 조사되었고, 서천읍(1), 장항읍(1), 마산면(1), 서면(1)에 위치하고 있다.

사찰의 경우는 총 20개로 확인되었고, 마서면(6), 문산면(4), 서천읍(3)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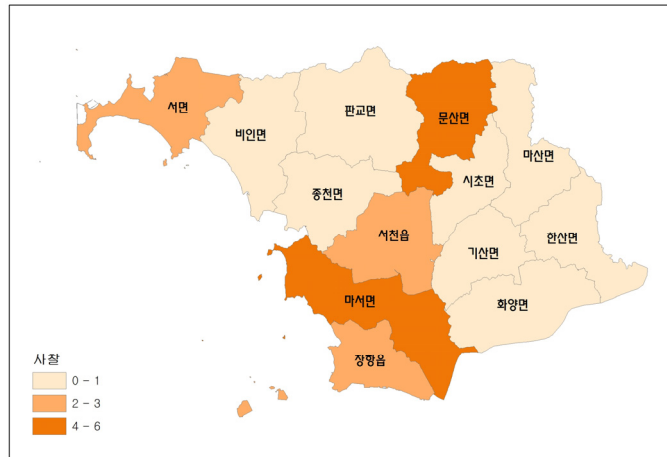
서천군 서면의 마량진은 한국최초의 성경전래지로 유명하며, 서천군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마량진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4-18] 서천군 개신교회 현황



[그림 4-19] 서천군 천주교회 현황



[그림 4-20] 서천군 사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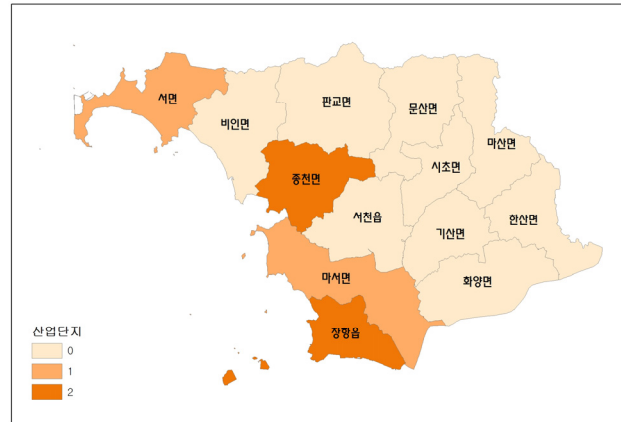
(4) 지역경제 자산

서천군의 산업단지는 총 6개로, 장항읍(2), 중천면(2), 서면과 마서면 각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장항읍과 중천면의 경우 산업단지로 조성되었고, 서면과 마서면은 농공단지로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장항산업단지(2개)의 경우, 총 입주업체가 28개로 거의 대부분(1개업체 제외)이 운영중에 있으며, 석유화학(6), 조립금속(5), 운송장비(5), 음식료(5) 등의 기업이 활동중에 있다. 총 고용인원은 608명으로, 서천주민이 331명 고용되어 있다.

중천산업단지는 총 입주업체 35개로, 33개업체가 가동중에 있다. 조립금속(12), 운송장비(6), 음식료(6)의 업종기업이 활동중에 있으며, 총고용인원은 677명으로, 서천주민이 503명 고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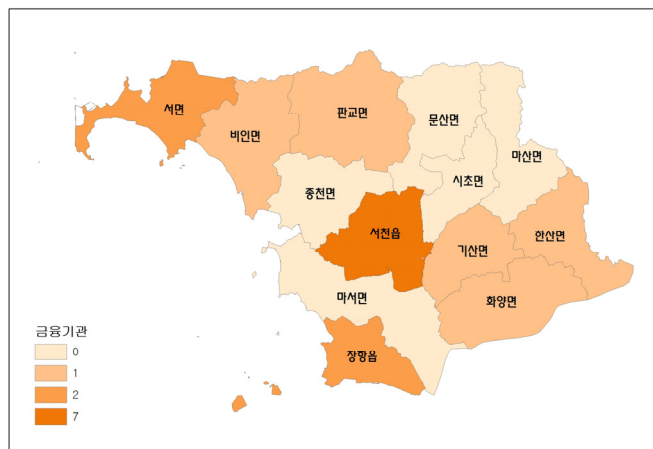
장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장항읍과 마서면 일원에 총 275만㎡ 규모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최근 기공식(2014.9.1.)을 가졌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4-21] 서천군 산업단지 현황

서천군의 금융기관은 총 16개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서천읍 7개, 장항읍 2개, 서면 2개소가 있다. 5개면은 금융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서천읍의 하나은행 외에는 일반시중은행은 없고, 농·수협 등 협동조합계열의 은행만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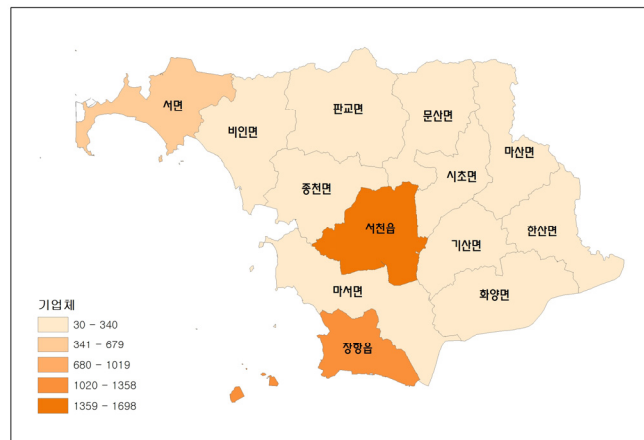


[그림 4-22] 서천군 금융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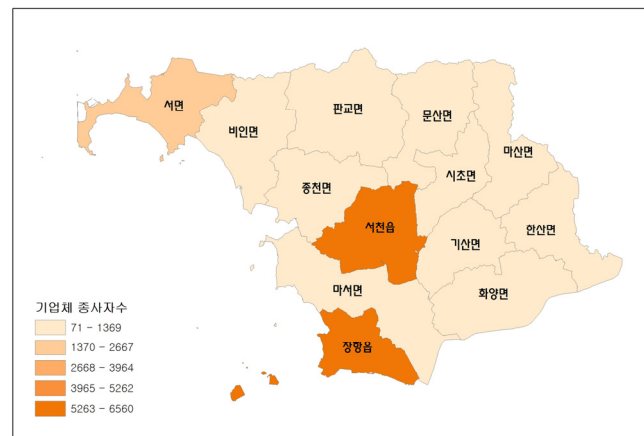
서천군의 기업의 총수는 4,342개, 종사자는 19,172명이다. 기업체가 가장 많은 읍면은 서천읍 1,698개(39%), 장항읍 1,022개(24%)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마산면 30개(1%), 시초면 33개(1%) 등에 그쳐, 서천군내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 수는 서천읍 6,560명(34%), 장항읍 5,676명(30%)로 과반을 넘겼고, 마산면 85명, 시초면 71명에 그쳤다. 특이사항으로, 산업단지가 입지한 중천면은 112개 업체, 1128명의 종사수를 기록하고 있어 서천군 전체기업의 3%, 종사자수의 6% 정도이지만, 기업당 10.07명이 종사하고 있어 장항(5.55명), 서천읍(3.86명)에 비해 규모가 큰 기업이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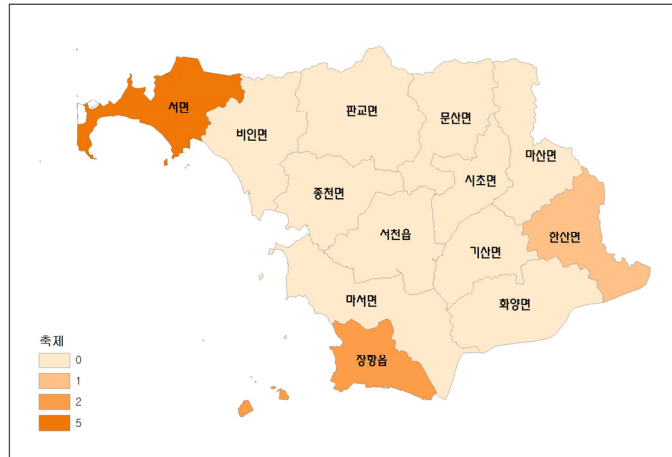


[그림 4-23] 서천군 기업체 현황



[그림 4-24] 서천군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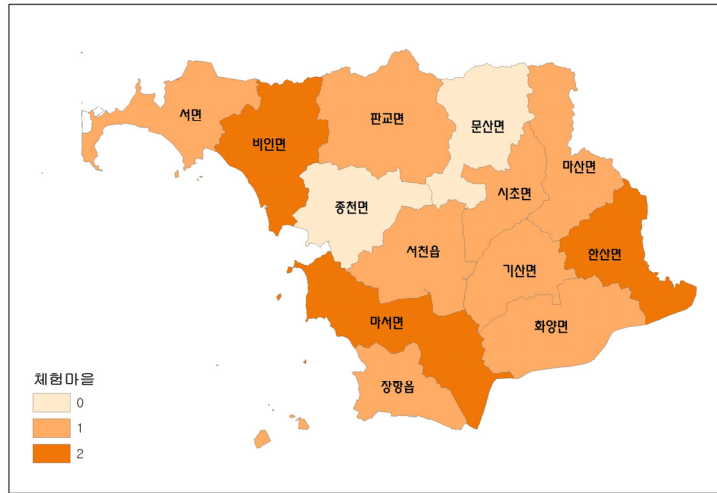
서천군의 대표적인 축제는 총 8개로, 서면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주요 축제는 동백꽃 주꾸미 축제, 한산 모시문화제 등을 들 수 있으면 아래표와 같다.



[그림 4-25] 서천군 축제 현황

축제명	개최지역	개최기간	비고
동백꽃 주꾸미축제	서면 마량리 동백나무숲	3~4월	동백꽃, 주꾸미요리
자연산광어도미축제	서면 마량리 마량포구	5~6월	광어 및 도미
한산모시문화제	한산면 지현리 한산모시관	6월	한산모시
홍원항전어, 꽃게축제	서면 홍원길 130-3	9~10월	전어 및 꽃게
서천철새여행	금강하구	11월	철새관광
마량포 해넘이, 해돋이 축제	서면 마량리 339-2	1월1일	
꿀갑축제	장항읍 물양장	6월	밴댕이, 꿀뚜기 등
춘장대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	서면 춘장대해수욕장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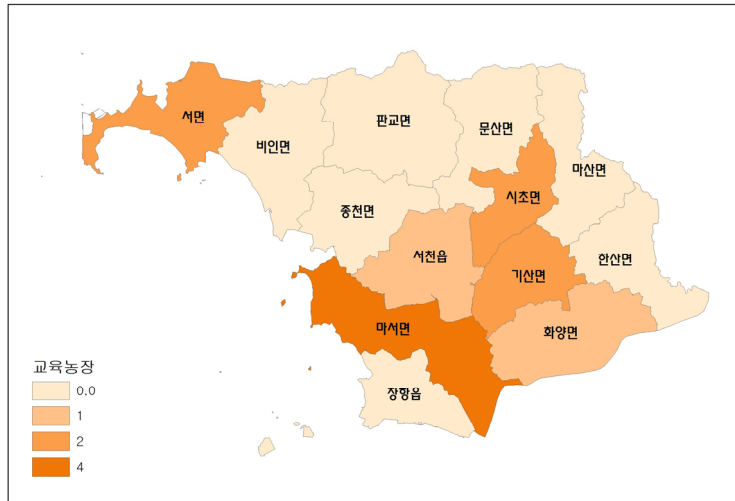
농촌체험마을이란 도시민 등에게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마을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천군의 농촌체험마을은 총 14개로, 중천면과 문산면을 제외한 전읍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서천군 체험마을에 대한 정보는 다음표와 같다.



[그림 4-26] 서천군 체험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소재지
이색체험마을	기산면 화산리 205
황새마을	마서면 계동리 134
행복체험마을	비인면 남당리 228-3
들꽃동산마을	시초면 선암리 23
고살메갈꽃체험마을	서천읍 삼산리 142
갈숲마을	한산면 마량리 217
월하성어촌체험마을	서면 월호리 월하성
심동산촌체험마을	판교면 심동리 284-4
물벼들체험마을	마산면 삼월리 31
달고개모시마을	화양면 월산리 180-5
동백꽃정보화마을	마서면 남천리 112
동자북마을	한산면 신성로 36-16
선도리 갯벌체험마을	비인면 선도리 590-31
솔바람마을	장항읍 신화송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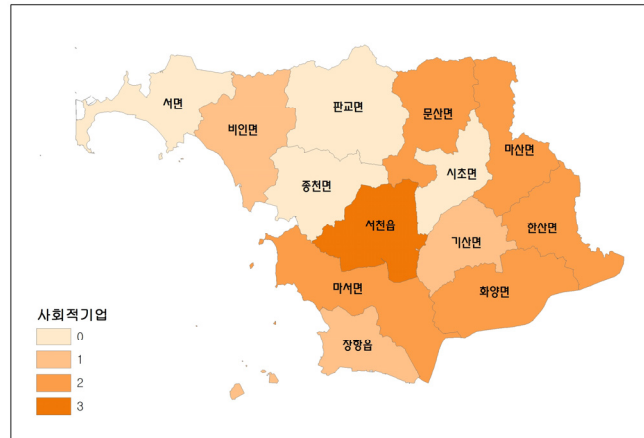
농촌교육농장이란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체험농장을 보완한 것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지정한다. 서천의 농촌교육농장은 총 12개로, 마서면(4), 서면, 시초, 기산면 각 2개씩 지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림 4-27] 서천군 교육농장 현황

교육농장명	주소
아리랜드	마서면 남전리 100
순정이네쌀농장	화양면 봉명리 43
선암동물농장	시초면 선암리 115
꿈꾸는나무들교육농장	기산면 화산리 170
갯벌도예체험장	서면 월호리 월하성 567
두메산골물듬이	시초면 후암리 405
사이언스캐슬	서면 주향리 338-1
마음가리 철쭉분재원	서천읍 신송리 488
해가마을	마서면 남전리 104
별꽃농장	마서면 가양리 232-1
상수리마을	마서면 옥도로 375
아이마을 아트센터	기산면 신산리 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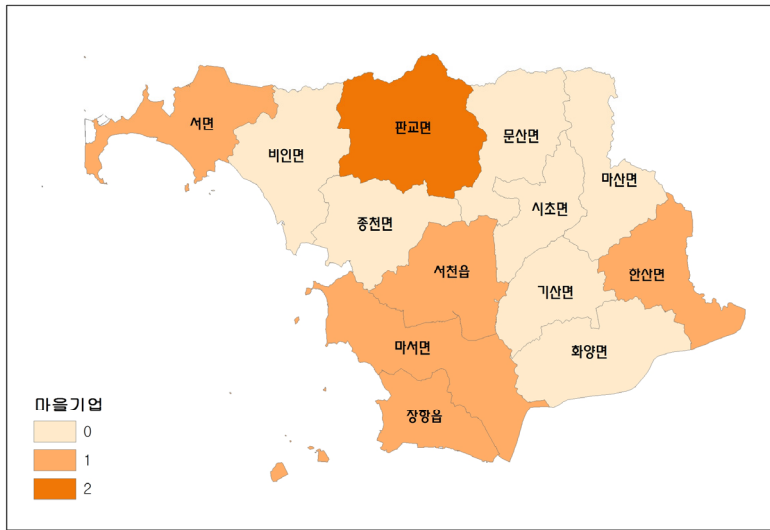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서천군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16개로, 사회적기업은 4곳,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2개가 활동하고 있음.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8] 서천군 사회적기업 현황

유형	단체명	주소
인증	에덴영농주식회사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103-10
인증	한산모시조합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
인증	전통예술단촌	충남 서천군 마산면 군간길 82
인증	지성영농조합	서천군 마산면 마명리 147-5
충남	장항항만농어조합	서천군 장항읍 신창2리 186-6
충남	월산리영농조합	서천군 화양면 월산리 182
충남	농촌생활목공센터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472-1
충남	천군만마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1번길 24-20 1층
충남	동자북마을영농조합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136-1
충남	평화영농조합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27-1
충남	아이마을영농조합법인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72-2
충남	서천곤충영농조합법인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 375
충남	갈숲영농조합법인	서천군 화양면 마양리 217번지
충남	너나드리영농조합법인	서천군 서천읍 삼산길 157
충남	동백꽃정보화마을영농조합법인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합전길 77
충남	서툰농부들협동조합	충남 서천군 문산면 서문로 1258

마을기업이란,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기업활동으로,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서천군에서 올해까지 선정된 마을기업은 총 7개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9] 서천군 마을기업 현황

선정년도	기업명	주소
2010-2011	흥림1리 마을회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97
2011	금강생태환경운동연합 초록지기사업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54-9
2011	지역학교 포럼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모시홍보관
2012	서천 동백꽃 작목반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12
2012-2013	송림영농조합법인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596-1
2013	심동리 산촌 영농조합법인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289
2013-2014	서해바다 영어조합	서천군 서면 서인로 119-6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서천군에는 총 1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중이며, 다음과 같은 조합이 활동중에 있다.

단체명	주소
바른생산자협동조합	서천군 서천읍 군사길 38
한산소곡주협동조합	서천군 한산면 갈숲길 47번길 12
두리하나협동조합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715-8
서툰농부들협동조합	서천군 문산면 지원리 472-1
한산소곡주특산물협동조합	서천군 한산면 성외리 111
너나드리협동조합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141번길 26-13
서천우리조경협동조합	서천군 판교면 금덕리 264
서천예인협동조합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 119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너나드리협동조합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141번길 26-13

자활기업이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서천지역자활센터에 8개의 기업이 활동중에 있다.

기업명	사업내용	참여자(단위 명)
누룽지	누룽지	3
약손	간병	4
아금박	화장실청소	10
새날	화장실청소	9
금강	공원청소	25
퍼펙트	해안청소	7
천군만마	공원청소	17
나눔건축	집수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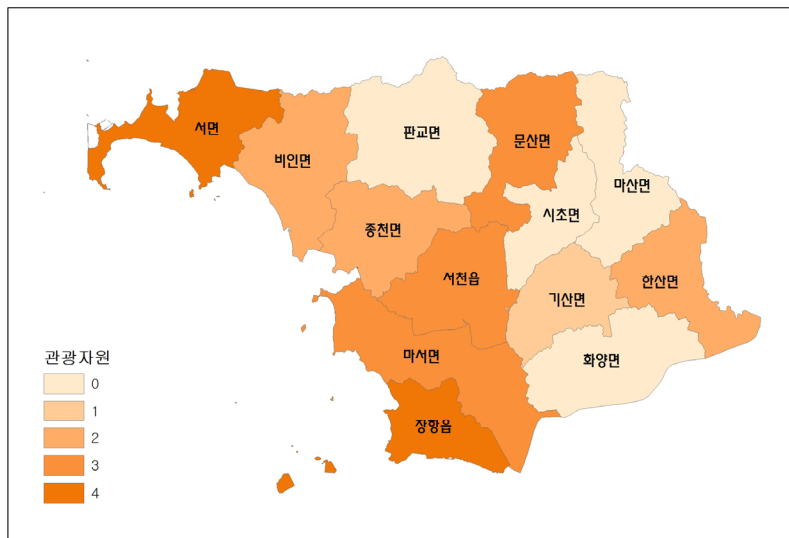
(5) 물리적 자산

2014년 상반기 13읍면 빈집 115호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오랜기간 방치로 폐가수준으로 거주 곤란한 상황이다.

빈집매매 의향 조사결과(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실시한 빈집매매의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지 및 농지를 함께 매매를 희망하여 귀농인 구입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매매결정권한이 소유자 자녀가 가지고 있어 매매가 불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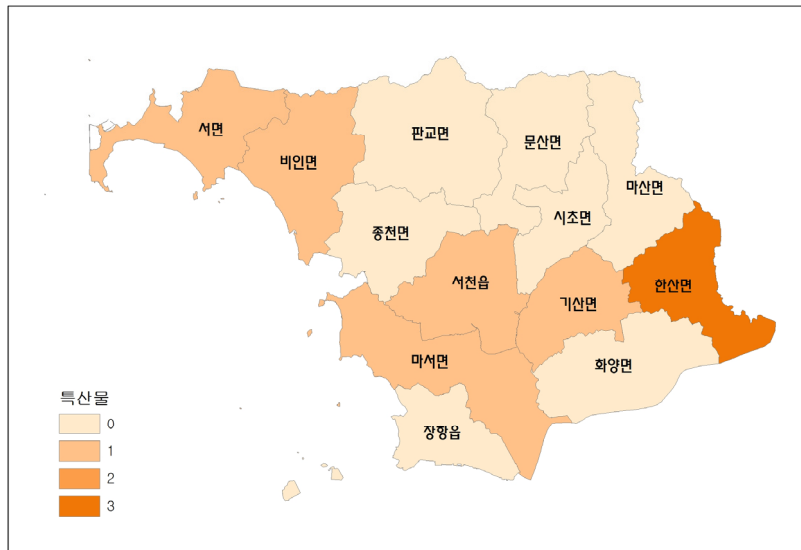
서천군이 제공하는 관광지도를 바탕으로, 포구, 자연자원, 종교, 박물관 등으로 분류한 결과, 총 24개의 관광자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는 향포구, 갯벌, 해수욕장,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월남 이상재선생 생가, 문헌서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4-30] 서천군 관광자원 현황

관광자원	이름	주소
포구	마량포구	서면 마량리
	홍원항	서면 도둔리 1222-7
	다시항	비인면 다사리
	장항항	장항읍성화로
산	천방산	문산면 신농리 34-1
	희리산(자연휴양림)	종천면 산천리 산35-1
	월명산	비인면 성내리 307-4
자연자원	마량리 동백나무숲	서면 마량리
	금강하굿둑관광지	마서면 당선리
	춘장대해수욕장	서면 도둔리 1319
	신성리갈대밭	한산면 신성리 125-1
	장항송림산림욕장	장항읍 송림리 산64-9
	봉선저수지	종천면 희리산길 206
종교	천주교성지순래지(작은재출무덤)	문산면 수암리
	천룡사	문산면 북산리 산12-1
	서천향교	서천읍 군사리 315
전시/박물관	조류생태전시관	마서면 장산로 916
	국립생태원	마서면 금강로 1210
	한산모시관	한산면 충절로 1089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전통시장	서천특화시장	서천읍 충절로 42번지
	장항전통시장	장항읍 성화로 104번지
기타	봄의마을	서천읍 군사리 642-78
	월남이상재선생 생가	한산면 종지리 263



[그림 4-31] 서천군 특산물 현황

서천군 지정특산물은 한산세모시, 한산소곡주, 까나리액젓 등 총 8가지이다. 특히 한산면에 3가지가 지정되어 있다.

제품명	해당기업 및 단체	주소
한산세모시	한산모시관 관리사무소	한산면 지현리 60-1
한산소곡주	한산소곡주 공장	한산면 지현리 66-9
청국장	천혜땅식품	한산면 지현리 343-8
서천군	해돋이 맛김	서면 도둔2리 75-1
까나리액젓	해인수산	비인면 구북리 30
어메니티 서천쌀	서천군 농림과	서천읍 군청로 57
아가리쿠스 버섯	기산성현농장	기산면 화산리 245-6
죽염장	해가마을	마서면 남전리 104

3. 질적분석 : 심층면접

1) 개인적 자산

개인적 자산은 서천군내 정주하는 귀농·귀촌인,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들 수 있다.

서천군에는 서천군귀농인협의회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운영되는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이다. 다양한 귀농목적이 있다 보니,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비교적 일찍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 귀농인이기도 하다.

서천군 귀농인들은 서천군 사회적경제 영역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 귀농인들을 지역자산으로 볼 때 이들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귀농인·귀촌인

저는 서천귀농인협의회 처음 만들때부터 관여했다. 지원보다는 자발적으로 귀농기업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다.

내가 볼 때 귀농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층이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계속 남아서 활동을 하시는 분과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나가신 분들이 있다. 이들은 개성이 강하고, 반목도 상당하다.

귀촌의 목적 역시 다양하다. 현재 3,000여명의 카페회원(서천군 귀농인카페)이 있는데, 3천 여명중 정착자는 얼마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00여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천귀농인협의회를 통해 적정기술(준)관련 모임, 서툰농부들, 얼굴있는 먹거리 등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다. 사실 귀농인들은 만들기도 잘하고, 열정도 있고, 돈도 있어서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급단체나 다른 단체들과 잘 섞이지 않는 것 같다.

귀촌귀농인은 지역정서와 좀 다르다. 그들은 지역의 활동을 열심히 한다. 최근 학교 급식지원센터 토론회나, 적정기술 준비모임, 레츠운동의 주축멤버들이다. 원주민들의

성향은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기업의 사무장은 80~90%가 귀농귀촌인이고, 사회적경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적경제를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기 보다, 귀농해서 보니, 사회적경제쪽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어느 지역에 새로운 사무국장이 만들면 다른 쪽에서 일하는 사무국장(귀농귀촌인)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다.

사실 기존 원주민들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귀촌인들이 바라는 임금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사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들은 100~150만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사무장으로 가려고 할 때는 그 이상의 수준을 바라고 있다.

또 하나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지역갈등의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있다. 귀농귀촌인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여, 지역민들에 대해 무관심.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서천군 시초면 풍경리의 귀농귀촌인 8가구가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기존의 이장과 의 반목이 있어서 협동조합이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귀농귀촌인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곳에 이사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귀농귀촌인들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회적경제조직 평가에서 생산성과 매출만 보는 것의 문제다. 취약계층을 채용해서 생산성과 매출이 나오나? 이런 평가체계가 문제이다. 귀농협의회가 사회적기업을 받고 매출만 집중하게 되니, 다른 필요회원사업(귀농컨설팅등)을 소홀히 하게 된다. 본연의 기능을 제껴두고, 매출에 집중하게 된다.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기업을 시장에 똑같이 던져두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생산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저소득층은 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우리조직에서도 고령자 6분이 일하시는데, 어머니들 힘들어 한다.

서천군에서 지원해서 노인회 빨래방사업을 한 적이 있다. 매달 1인당 20만원의 수익금을 가져갔다. 사실 서천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구운 김을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까지 한다고 들었다. 단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나 역시 아는 친구와 함께 장애인들이 고물을 분리하는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정상인이 계속 같이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사업화를 그만두었다.

된장고추장을 잘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그곳에는 고령자의 기술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적합업종이 있을 것이다. 일본 이로도리 사례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것이다.

(3) 사회적경제리더

또한 서천에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는 인력들이 많이 생성 되었었다. 그것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리더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많이 있었으나, 최근 특히 올해 교육이 없어졌다.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천에는 새로운 사회적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게 나쁜가? 경험자들이 기반을 가지고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그냥 '지원금' 타먹기로 보는 편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여 활동가육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냥 나누면 자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4)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하는데 충남도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회적기업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지원'만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망스럽다. '바른생산자협동조합' 역시 '얼굴있는 먹거리'에서 이름만 바뀌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의심하기도 한다.

지역에서의 사회적기업가들은 겹칠 수 밖에 없다. 회의를 가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회적기업가들은 그 길을 잘 알고 있는데, 색안경을 쓰고 본다. 돈도 없고, 이분들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그냥 시장경제에 내던져지면 자생하기 어렵다

짧은 시간속에 시장 속의 경쟁력과 사회적 목적을 같이 갖추라는 현실은 어렵다. 사회적기업의 생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동기부여의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2) 민간조직 자산

서천군 민간조직 자산으로 농촌/마을만들기조직, 농산물 판매조직, 행복경로당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내 마을단위 민간조직인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작목반, 영농조합, 자원봉사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서천군 화양면 모시마을의 경우 노인들로 구성된 마을주민들이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을 추진하다 마을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마을조직의 경우 주민간 오랜 기간 동안 유대를 맺고, 가가호호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할 경우 상호 신뢰에 기반한 관계형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목반과 영농조합 역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의 주체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농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상당수의 영농조합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 가치보유 및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1) 행복경로당

행복경로당 사업이란, 경로당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요가 등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마을부녀회가 군비 지원을 받아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한다. 자원봉사성격이다. 이런 식사대접비용을 대신 사회적기업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시군정서상 좋지 않다. 마을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요즘 어른들은 저녁때는 혼자 계시면 재미없으니까, 경로당에서 사신다. 대신 레크레이션 강사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알아보니 식사준비를 어렵게 생각한다. 만만하지 않다. 따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2) 협동조합

‘바른생산자 협동조합’은 상인과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로컬푸드를 목표로 한다. 농산물 3천만원정도 판매하지만, 정작 서천산은 20~25%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생산되는 것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조직력도 부족하고, 우리도 그 정도로 힘이 없다. ‘서툰농부들’도 꾸러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쉽지 않다.

(3) 새벽시장

저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새벽시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서천읍내 ‘봄의 마을’ 앞에서 새벽 6:00~8:30까지 제한적으로 판매했으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2시간하려고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로컬푸드를 추진했던 마서장터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졌다. 버스노선이 달지도 않았다.

어른들이 이런 장터가 생기면 집에서 키운 것들을 몇 개 가지고 나와서 팔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봄의 마을’에서 계획을 했으나, 서천 특화시장에서 반대를 했다. 품목이 중복이 되면, 시간을 제한하면 되는데도 말이다. 인근상인들과의 관계 충돌이 되었다. 직거래장터는 그것이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체계를 세워야 한다. 안정적인 판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되고 그러면 생태원등과의 협상력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되지 않고 있다.

(4) 적정기술

적정기술은 시장이 좋죠. 특히 농촌에서는 도시는 어렵지만, 시장성이 충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것도 좀 어려워서 그래서 뭐 그런 직업 교육기관 같은 거를 하면 그것도 하나로 할 수 있겠죠. 적정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을 교육을 해서 지역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주면 지역에서는 그걸 쓰죠. 식당 같은 곳이나 집, 난로 같은 거 충분 하죠 그게 사업화시키기엔 가장 무난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진행을 못하죠.

적정기술은 아직 초기단계라 저는 더 많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마다 적정기술협동조합, 적정기술 날로 등 이름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해서 다 하나씩 있어야죠. 농촌은 있어가지고 한 부분은 일반인들하고는 사고, 보통 관계를 하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곳은 어떤 업체에서 일부분 사회적기업을 하지만 정부보조금이 있잖아요. 복지 그런 예산들을 요정도로 해서 거기 설치를 해주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천에서도 한 다섯명만이라도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3) 기관자산

기관자산으로 공공기관, 학교, 경로당, 마을공부방, 마을도서관, 박물관, 종교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서천군의 기관자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가칭)지역순환경제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서천군 정부대안사업⁷⁾은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서천군의 위상 및 정체성 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대 및 협력관계 형성, 지역공동체사업 활성화 등 서천군 사회적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이 개장된 시점에서 보면,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서천군 사회적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천군 사

7)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인 서해안 갯벌을 대규모(445만평)로 매립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로 지정(1989년)하여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갯벌매립에 따른 환경문제 등으로 사업을 중지하는 대신 내륙지역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정부와 서천간 협약(2007년 6월 8일)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국립생태원은 2009년 7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09년 12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2014년 착공에 들어갔다.

회적경제 부서 담당 공무원의 해석이다.

국립생태원의 서천군에 대한 기여 역시 초기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개원 이후 국립생태원의 입장, 서천군의 입장, 계약제도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천군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입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1)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국립생태원이 가장 유망한 사업이었다. 대안사업과 연계한 고용창출,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등을 생각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국립생태원 담당부서(미래전략단)에 와서 보니, 이는 사회적경제와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 현실적인 부분과 서천군의 희망과는 다르고, 전혀 맞지 않았다. 특히 놀란 것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원장까지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막연하게, 기본적인 입장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지만, 국립생태원측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 두번째는 생태원내 홍보관은 지역사회에 발주할 것을 협의를 해놓았지만, 수의계약의 조건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단 또는 지역재단’ 이라고 한정하고 있었다. 지역자활센터는 어렵다고 했다. 서천군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관(카페)를 맡아 운영할 만한 조직이 부재하였다. 즉, 운영할 만한 자본력과 인력을 갖춘 조직이 없었다. 현재 사회적경제 진영에서는 생태원과 연계된 공정여행 등을 상정하고 있다.

지역먹거리를 납품하려고 했는데, 생태원측에서는 수용하는 척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워홈과의 일괄계약을 하였다. 현재는 김치품목만 조금씩 납품하고 있으나, 그것 역시 어렵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납품이나 운영권 등 각각 하나씩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데, 행정편의주의로 일괄위탁을 주고 있다는 점이 불만이다. 결국, 생태원측은 앞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 서천에는 계약직 일자리만 일부 창출되었지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다.

서천군에서는 생태원과의 연계프로젝트는 없다. 사업모델이 없다. 생태원이 왜 생겼

나 할 정도로 불만이 많다.

근데 지금 우리도 기대했던 것이 생태원이 들어오고 나서 자원관이 들어오고 나서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 우리 여행사 뿐만은 아닐 거예요. 생태원, 자원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소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성이 지금 상당히 없죠.

그래서 우리생태원에서 오는 손님이나 우리 같은 여행사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생태원도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생태원이 만들어져서 자리 잡는데도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일정종대의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 같고, 서천군 문제는 그 우리입장에서 보면 서천군은 지금 여러 가지 시티투어 같은 걸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게 좀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예전에 한참 유행 이었거든요. 외지 관광객유치한다고해가지고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받아드리고 했던 말이에요 그니깐 오는 분들도 그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가격만큼 근데 그 예산을 거기가 투여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경쟁상대가 서천군이 되어버리는 우리 여행사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생태원이 환경부의 직속기관이 되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고, 현재 환경부 간부공무원들이 많다.

생태원이 공단으로 가면 결국 독립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 시장논리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생태원도 보령댐의 수자원공사처럼 지역주민에게 많은 돈을 써야 한다.

그러나, 생태원이 지역사회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200~300명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사실 연계사업도 서천군이나 지역주민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많다. 우리 서천군을 위해서 국가계약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닌가?

(2) 지역경제순환센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경우 사업비의 용도를 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고 한다. 그 문제와 중앙부처에서 이와 같은 공익재단법인의 허가를 내줄 만한 부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처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추진하였는데 몇 년 지난 후 이렇게 취급하니 지역에서는 화가 나는 상황이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충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 의지가 부족했다. 센터를 만들 때, 소관 부서의 문제가 걸렸으나, 완주센터의 성공 예도 있듯이 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으나, 2년 전에 결정된 사업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미래센터 역시 계약까지 했는데도 안된다고 했다.

충남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관심만큼 안 뜨는 이유는 도의 집행부의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여진다.

4) 지역경제자산

지역경제 자산은 산업단지, 기업체, 은행, 체험마을, 교육농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일자리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서천군은 어메니티 정책으로 인해 산업단지보다는 생태자원, 농산물 및 수산물가공산업 등 소규모 기업체들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 등 소위 사회적경제기업은 충남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양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는 기업 및 산업단지 유치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서천군의 정책기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서 성장하기 어렵고, 단지 명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 라고 했을 정도이다. 과연 어떤 것을 사회적경제가 만들었는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사회적경제라는 라벨로는 어떤 지원도 이끌어 내기 힘들다고 본다.

현 제도 하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에 대한 제도 정책이 내려오면 수용하는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이 무엇을 해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럴 때 사회적경제조직이 무엇과 연계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를 지역사회에 설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다. 정부정책이 한 두 개인가? 사회적경제는 부서만 관심이 있지, 다른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도 취약 계층과 연계되어 있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사회적경제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또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업으로 와 달지,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같은 의미, 기반조성과 같은 의미로 와 달지는 않는다.

현재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초기단계인 것 같다. 토대가 유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더군다나 군수도 바뀌어서 열성적으로 관심을 가지던 공무원들도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역순환경제센터의 경우도 그렇다.

(2) 지역급식센터

지역급식센터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토론회를 2번 개최했다. 원래 서천군에서 농협에 학교급식센터를 위탁을 주었다.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등 몇 개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농협이 독점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으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반발하였다. 서천경제네트워크에서도 거론되어 토론회를 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급식업자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농들의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의제21과 함께 토론했다.

농협, 생산자, 시민단체들과의 토론회. 좋은 논의가 되었다. 농협에게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농협이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9월1일 충남도에서 소규모급식센터는 직영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이 나왔으나 서천에서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토론회를 열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모여 회의를 했고, 분위기는 충남도에서는 서천군에서 추진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서천군 군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없었다.

(3) 로컬푸드

로컬푸드는 우리를 포함한 협동조합들이 조금씩 하고 있으나, 축협매장에 매대형식으로 하고 있다.

사실 로컬푸드는 돈이 안된다. 공주에서도 우성농협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협은 하기 싫은 사업이나, 충청남도 및 공주시의 권유에 떠밀려 하고 있는 느낌이다. 와 보면 알겠지만 로컬푸드 매장 크게 만들어 놓았고 상품도 많이 들어왔다.

군 단위에도 로컬푸드도 담당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지관,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묶어서 발주를 넣을 수 있는 형식이었으면 좋겠는데, 3품목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민간이 할 수 없다.

익산에서 아는 친구가 생협을 했다. 처음에는 친환경농가들의 것을 꾸러미로 했다. 전주, 익산 등으로 보냈고, 지금은 아파트단지에 소매장을 만들어서 추진하였으며 그것이 성공하여 지금은 3호점까지 만들었다. 시간은 11시에서 4시까지 한나절만 영업한다. 서천에 적용하면 좋겠다. 축협의 경우는 다른 물품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되므로 어렵다. 로컬푸드만 있는 매장이 있어야 한다.

나도 매장사업을 해봤다. 그런데 매장의 주요 소비층이 중산층인데, 서천의 중산층은 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많은 수가 공무원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서천의 중산층의 부모들이 시골에 산다는 것이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생산물인 제철야채 등을 사주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생산물을 보내주셔서 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렵다.

대전에도 생협이 있는데, 매장사업에 성공하였다. 엄마들이 계속 오게 할려면 2,000~3,000품목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와서 원스톱쇼핑이 되어야 하는데, 물건 몇 백개 진열해서는 안된다. 처음에는 인터넷판매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공동직배송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매장방식이 바람직하다. 여기도 그런 규모가 되어야 한다. 서천도 가능하다고 본다.

서천읍 봄의 마을에도 매장이 있다. 그러나 몇 개의 물품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잘 안된다.

(4) 귀농인협의회

저희는 원래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라는 명칭은 추후에 생겼지만, 저희가 보통 서귀협이라 약칭해서 많이 부르거든요, 2006년도 7년도에 서천에 귀농귀촌 한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초창기 내려오시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라든지 터득했던 경험 같은 걸 함께 나누고자 ‘서귀모’ 서천귀농인모임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는 품앗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집짓기, 농사일이라든지, 친목 관련된 집 고치는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친목 관련된 주로 모임을 많이 했고요. 2009년도 2월 달에 당시 서천군에서 도시민유치사업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폐교된 귀농지원센터를 성암분교 였거든요, 그 당시 명칭은 성암분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 당시 도시민 유치 시범사업으로 많이 인프라를 갖다가 많이 구축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교육같은 경우 생태관 구축, 에너지라든지, 영농관련 그런 것 뿐 만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어요, 목공도 포함했었고요, 그런 교육 통해서 회원 분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 됐었고 또 하나는 견학 같은거를 가면서 타 지역에서 잘하는 부분들은 배워오고 그 지역에서 우리랑 안 맞는 부분들은 수정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그런게 됐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도시민유치 시범사업이 2009년을 끝났으니까. 시범사업이 끝나고나서 센터 운영비가 전혀 없었어요. 보면 대부분 국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보조사업 그런걸보면 하드웨어 적인 건 딱 되어도 권역사업 같은건 보면 서천군도 지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긴 있거든요 좀 아까 김억수 대표님 가셨던데 거기도 권역사업인데 10억이 투입되고 하신데 그거를 전기세를 못 내고 그러고 있다가 김억수 대표가 들어가면서 그런 게 좀 해결되고 그런 건데 참 그런게 문제예요, 지금 안 그래도 서천군에 그런 사업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사무장 인건비도 못 내는곳이라 못 받아서 아무도 근무를 못한 그런 게 많아요.

충남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됐고 덕분에 인건비도 5명 정도 지원을 받고 사업개발비 조금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가 사회적경제에서는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기에 농촌의 도시민을 유치해서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부분이 사회적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수익부분들을 잡아서 충남 사회적 기업을 계속 운영을 했었고 2012년도 말쯤 돼서 매출이 5억까지 나오더라고요.

외형적으로 확대만 되다보니깐 그래서 우리 좀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자 그런 거에 많이 의견이 모아졌고요. 저희가 노동부인증 가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 그 소기업에서 회원분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 하는 그런 동아리라든지 사업단 같은걸 갖다가 도와드려 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진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자체 매출도 현재는 2억 정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밑에 원래 갖고 있던 사업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독립 시켜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별도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그쪽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실 분은 가시고 또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활동하시고 친목위주의 동아리들은 동아리대로 갈수 있게 그런 위주로 현재 가고 있고요,

성과부분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중간조직기관이 작은 서천 내에서 중간조직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거기서 당시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셨던 그분들이 많이 타 마을이라든지 법인이니 단체에 들어가셔서 그쪽에서 사회적 기업에 가실 수 있도록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지역 활동가로서도 많이 남아계시고,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본연에 일이 원래 귀농귀촌 관련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5) 농촌생활목공센터

처음에 농촌생활목공 동아리에서 시작할 때는 돈을 안 받아요. 오히려 여기서 가스니 뭐니, 이런 거 쓰는 거 다 무료로 다 쓰시고 오히려 동아리의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해드리는데 일단 법인이 된다는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지 독립을 하시면 그때는 그분들이 오히려 소기업에 무엇을 낸다든지 회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농촌생활목공 센터가 잘못됐던 부분이 사업 쪽만 가려고 하고 여기 센터에 돈은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초창기에는 도농교류, 이부 강사비도 드리고 재료비도 드렸는데 이친구들은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운영회의에서 자꾸 나온 게 그런 것도 안하면 수도세, 전기세, 왜 그런 걸 무료로 주느냐 매년감사를 하면 감사의 지적사항 이었어요.

(6) 빈집

농촌에서 빈집들이 있다면요 그걸 가져다 군에서 소식지라든지 귀향하신 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임대가능한집들, 매매가능한집들, 군에서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빈집수리비를 개인한테 주지 말고, 그 돈으로 빈집들을 다 수리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을 가져다 활용을 해도 좋고요, 폐교를 활용해도 좋고, 또는 권역사업하면서 비어있는 건물들 하드웨어만 달랑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좋고요

거기를 가져다 무엇으로 쓰냐면 귀농인들, 보육센터 그런 얘기도 농림부에서 그런 것들도 몇 십억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그걸 차라리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귀농귀촌 할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 할 수 있게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고..

그렇죠, 그런 거는 만약에 큰 거는 임대로 가고요,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지랑 집 있고 텃밭 100여평 있는 거 이하로 딸려 있는 거 몇십평.. 딸려 있는 거 그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대 쪽으로 간다고 해도 임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리비가 들어가잖아요. 한 10년도 ..5년은 좀 짧다고 보고

(7) 장항선셋 페스티벌

장항선셋 페스티벌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다. 서천군이 국비 10억을 지원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회로 끝나고 말았다. 예산이 없었다. 인천이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한다.

선셋행사는 장항주민과 하나되질 못했다고 본다. 너무 앞서 나간 행사였다. 그러나 덕분에 미디어홍보관, 미곡창고도 생겨났다. 그런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8) 공정여행 주민여행사

읍면별 공정여행 주민여행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 이였어요. 읍·면별..한사람씩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왔어 서천읍에 와서 그런데 저쪽 서면에 가야 되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거거든요, 그니깐 읍면별로 여행사를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큰 여행사가 아니고 주민여행사이니까 그 읍면에 산사람들은 제일 잘 알잖아요. 주민들한테 어떤 고급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살아왔던 전통생태지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9) 무인가게

마산면 벽오리에는 무인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정도 되었나? 마을사람들이 수수료를 떼고, 그때 그때 생산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1일 10만원 정도의 수입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5) 물리적 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빈집, 휴양림, 공원, 항포구,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들 수 있다.

서천군은 서해안과 금강에 연해 있어, 이와 연계된 물리적 자산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갯벌, 송림, 갈대숲, 해수욕장, 항포구, 장항제련소, 장항선폐선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물리적 자산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내에서 배태될 수 있는 토대로서 기능하고 있다.

(1) 장항

장항은 화물역이라 군산과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고, 개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 장항역과 연결해서 자전거 기차 등을 운영하면 어떨까 한다.

장항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바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제련소의 환경문제, 하구둑 등의 문제가 많다. 피디수첩, 추적60분 등에서 환경문제가 자꾸 노출이 되어 장항에서 사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많다. 지금도 제련소지역은 제토를 계속하고 있다.

장항은 군산과 다리가 만들어지면(건설중) 정말 좋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그 문제가 걸린다. 장항이 살아야 서천이 산다고 생각한다.

(2) 금강

서천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강이죠. 금강, 바다갯벌, 거기서 그거와 관련된 생물정들 특히 철새, 저서생물들 그게 가장 큰 자본이죠. 생태적으로는 근데 이제 현재의 관점 에서 보면 지속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금강 같은 경우 하구역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토사, 대저, 수질오염, 그리고 군산전북과의 갈등문제 이게 계속 불거져서 해결 되지 않잖아요.

금강을 활용하려면 우선 건강성부터 살려놔야죠, 생태적 건강성부터 회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여행에서 하는 부분들은 좋은 것만 얘기는 안하거든

요. 그러면 우리여행사가 지향하나는 것 하나가 지역운동성이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그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알려주지만 현재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해결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한 부분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운용성이나 표준 면에서 보면 생태원, 자원관, 조류생태전시관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3) 김

우리나라의 원초의 많은 부분이 서천에서 생산된 것이다. 김 자체는 경쟁력이 있으나 선도매입이 되어 정작 지역의 중소기업자는 비싼것을 사고 있다.

김은 가공이 중요하다. 현재 서천김 명품화사업단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안주김(가칭)’을 사업화 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을 위해서다. 조미김 같은 것은 일본에 수출되지만, 과자김은 태국이 최고로 잘 만든다. 현재 그것을 벤치마킹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

나는 무산김(염산처리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만든 김)이 명품화인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안한다. 현재 생협에 납품하는 김업자가 한명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명품이 아닌가?

에덴영농(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손김으로 시작했고, 모시떡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였다. 최근 롯데백화점 1억4천 주문 등이 들어오고 있으며 서천군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의 사업수완이 대단하다.

에덴영농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에는 혜택이 있다. 마을 지역 어르신 20~3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그 대표는 담보를 받을 필요없이 (재력이 있어) 쉽게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돈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척하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원초적으로 막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에덴영농처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치부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사업성과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으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원은 초창기때 1~2년 받은 것은 지원인것이지, 그것에 목매지 않으면 안된다.

4. 분석합의와 지역자산 맵 작성

1) 양적분석의 합의

이번 연구에서는 서천군을 사례로 지역자산의 양적·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중요한 이슈가 확인되었다. 양적분석을 통해 서천군 지역자산의 지역적 특성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문산면, 마산면 등 내륙읍면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높고, 노인회활동 역시 활발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발굴 및 진행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지역에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있고, 작목반, 농어법인 등이 활발하다. **귀농귀촌인들이 작목반과 농어법인에 적극적으로 연계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역시 중요한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교육기관의 경우, 서천 및 장항읍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중 한산면의 경우, 예술고등학교(1), 전수회관(2), 작은도서관(3) 등 다양한 자산이 존재하고 있어, **한산면에서 교육기관간 다양한 연계사업 및 이를 이용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의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관광자원의 경우, 바다와 인접한 읍면이 집중되어 있어, 내륙지역의 관광자원 발굴이 필요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원구분	주요한 현황과 이슈
개인적 자산	1) 귀농귀촌인: 문산면, 마산면에 집중 2) 고령자: 시초면(46%), 문산면(42%), 화양면(42%), 기산면(41%), 마산면(40%) 3) 저소득층: 서천읍과 장항읍에 집중.
민간조직 자산	1) 자원봉사단체: 서천읍(37%), 장항읍(14%)에 집중됨 2) 노인회: 마산면, 문산면, 시초면 활발 3) 작목반: 문산면 논벼작목반 없고, 채소작목반 6개 조직. 4) 농어법인: 문산면 54개, 마산면 44개에 활발히 조직되어 있음.
기관 자산	1)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문산면, 시초면, 마산면 등 없음 2) 교육기관: 서천읍과 장항읍에 집중되어 있으나, 한산면의 경우 전수회관(2),

	충남디자인 예술학교 등이 존재함. 고등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 전무 3) 작은도서관: 전체 14곳 중 한산면(3)
지역경제자산	1) 장항산업단지의 경우, 종천산업단지에 비해 서천주민 고용율이 떨어짐 2) 산업단지의 기업규모는 영세한 편임(장항 5.5명, 서천 3.86명) 3) 축제: 총 8개중 서면 5개
물리적자산	1) 관광자원의 경우, 바다를 인접한 지역의 자원이 많고, 내륙에 위치한 지역의 관광자원은 없거나 개발이 안된 상황임.

2) 질적분석의 함의

질적연구는 서천군의 다양한 관계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진행하였고 지역 자산에 대한 현황과 이슈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개인적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귀농귀촌인’으로, 핵심조직은 ‘서천군 귀농인협의회’이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는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침이 있었으나, 중간지원 및 인력재생산 등의 허브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간조직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노인회 활동’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행복경로당사업’은 서천군발(發)의 노인건강교실로, 호평 가운데 추진상 발생하는 어려움이 노정되는 상황이었다.

셋째, 기관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국립생태원’과 ‘미곡창고’였다. 특히 국립생태원 개원은 서천의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연계사업에 대한 큰 기대를 걸었으나, 사업의 성과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기능하였고(농민주말장터), 가능한 연계사업이 존재하므로 금후의 역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곡창고’의 경우,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장항’에 산재된 지역자산들(장항미디어센터, 화물역, 폐선로 등)은 미곡창고와 더불어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관자산들로 판단할 수 있었다.

넷째, 지역경제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로컬푸드’로, 서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대표적인 지역경제자산이다. 그러나 서천의 로컬푸드는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1)생산자조직과 생산량의 부족, 2)로컬푸드 소비층의 부족, 3)직거래장터의 어려운 접근성 등 이다. 현재 로컬푸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물리적자산의 주요한 자원은 ‘생태자원’으로, 서천은 금강, 갯벌 등 생물자원이 풍부하다. 생태자원의 이용은 단순한 생태관찰이 아닌 생태적 가치와 문제점을 알리는 공정여행방식의 교육프로그램, 지역문화와 역사를 결합한 형태의 지역생태문화교육 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산구분		주요한 현황과 이슈
개 인 적 자 산	귀 농 귀 촌 인	<p>1) 서천군 귀농인협의회(이하 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 귀농귀촌인의 핵심조직임. 초기 폐교를 활용한 도시민유치사업수행. 그러나 운영비등의 경비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음. 그러나 폐교는 역사적인 물품 등 좋은 인프라가 구비됨. 서천군과의 연계사업을 통한 운영비지원 - 주요사업: 농산물 위탁판매, 방문객과 지역연계사업, 귀농귀촌투어 - 성격 및 결과물: 중간지원 및 인력재생산 등 허브적인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동아리지원 및 취업연계 ② 사회적경제관련 인력 재생산, ③ 국립생태원과의 연계사업, 농민주말장터: 소농의 농산물 거래 활성화, ④ 극단 산너울패 구성 <p>2) 귀농귀촌인의 어려움: ① 준비부족(예, 절임배추 대량공급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②귀농귀촌자와 원주민과의 갈등, ③높은 정착비용, ④ 사회적기업화의 어려움(교육동아리정도 수준)</p> <p>3) 빈집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임대거처만들기(수리하여 사용), 마을단위로 귀농귀촌인촌을 만들지 말고 각 마을의 한집 정도 임대거처(귀농귀촌인 초기 저렴한 장기임대). 이를 통한 성공적인 정착</p> <p>4)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과의 갈등존재, 그러나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원주민들과는 다른 인식이 두드러짐. - 사회적경제의 핵심인력, 이유는 귀농귀촌인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요구임금수준이 높지 않음 -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장애인	1) 장애인관련 사업 - 서천김사업 등이 추진되었음 - 재활용사업으로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어려움이 많았음
민간조직자산	노인회 / 경로당	1) 행복경로당사업 - 서천군 노인건강교실의 호평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들어감. - 노인건강교실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서천군에서는 수월함. - 성공요인: 중식제공, 재료비(군지원)외 자원봉사,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인해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한 계속사업으로는 어려움이 노정됨. - 현재 동절기 노인건강교실(3일), 행복경로당(하절기1일)로 추진되고 있음 - 예산: 3억 4천정도 -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인력부족과 예산부족 2) 이외 사업 - 효도방이라는 공동생활가정 추진중 - 노인회 유류비지원, 보건소 건강프로그램 등이 있음 3) 고령자관련 현황 및 사업 - 문맹이 70%로 노인일자리를 하기가 어려움 . - 지병으로 인한 노인자살이 많다고 함 - 노노케어, 재능나눔일자리(정부사업) - 노인회 빨래방사업을 추진했음.
	국립생태원	1) 사회적경제과의 연계사업 - 전반적으로 원만하지 않음. 그 이유로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부족, ② 제도적인 장벽, ③ 일괄위탁의 문제점 등을 들고 있음. 2)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농민주말장터: 소농의 농산물 거래 활성화에 기여
기관자산	미곡창고	1) 미곡창고의 시작 - 2011년 리모델링 완료, 장항 선셋페스티벌에서 활용 - 장항 선셋페스티벌은 ①1회성 국비사업이었다는 것, ②외부자원(홍대 인디밴드 등)의 의존, 지역민과의 관계를 만들지 못함. - 2014년 문화예술공간 미곡창고로 거듭남. 운영은 극단 산너울패, 인형극 또봄, 커뮤니티아트 자람, 도자기공방(4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음 2) 장항의 가능성 - 미디어센터, 미곡창고, 장항화물역, 폐선로 등의 연계투어 가능성 - 환경문제(제련소 오염)가 어려움

기관 자산	지역 순환경제센터 등	<p>1) 지역순환경제센터 설립의 실패와 아쉬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발현할 수 있는 시스템 - 충남도의 몰이해 및 제도미비로 인한 실패 - 현재 일자리종합센터가 지역순환경제센터의 역할 담당할 예정 - 그러나 역할은 크게 축소될 듯함 <p>2)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둘러싼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의 주요주체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익제기 - 농협은 중소기업체와의 협력거부, 농협탈퇴 - 현재 논의중 <p>3) 서천군의 시티투어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역내 여행사들이 어려움 가중 - 읍면별 공정여행사 설립가능성(지역주민+교육) - 공공기관 우선구매 필요 <p>4) 사회적경제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제고 -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 인식부족, 공무원 집체교육의 필요
지역경제 자산	로컬푸드	<p>1) 로컬푸드 추진의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력 및 생산량의 부족, 소비층의 부족 - 현재 로컬푸드매장은 없고, 농협 등에서 메대형식. 이는 다른 상품과의 경쟁하게 되므로 어려움 <p>2) 로컬푸드 추진시 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담당부서 필요 - 한시적 시간운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음 - 로컬푸드를 추진했던 마서장터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짐. '봄의 마을' 과 같은 장소에서 새벽시장. 그러나 이도 기존시장과의 갈등
물리적 자산	생태 자원	<p>1) 금강과 생물자원 풍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벌, 신성리 갈대밭 - 오염 및 군산과의 갈등 등 해결문제 산적 - 단순 생태관찰의 한계 -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된 지역생태문화 교육사업 추진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로그램은 생태적가치뿐만 아니라 문제점도 함께 교육 ② 생태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를 같이 교육 ③ 지역기관들(국립생태원 등) 대상으로 한 지역에 대한 교육필요 ④ 청년대상 교육필요성 ⑤ 이전 군수시절 다양한 교육을 추진했으나 개별적으로 그 성과가 남지 않음. 협력적 교육기관 필요 ⑥전통적인 생활지식의 사라짐에 대한 고민, 또한 적정기술과의 연계
	특산물	<p>1) 서천김은 원초로는 좋으나, 가공에서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출을 위한 명품김 추진 - 무산김(염산처리하지 않음)과 같은 친환경 '김' 개발의 필요성

3) 지역자산 맵의 작성

지역자산 지도란 사회적경제에서 활용가능한 지역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구체적 위치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도화(mapping)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도화 작업을 수행할 경우는 보다 체계적인 실태파악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지도화작업을 통해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위해 동원가능한 자원과 자산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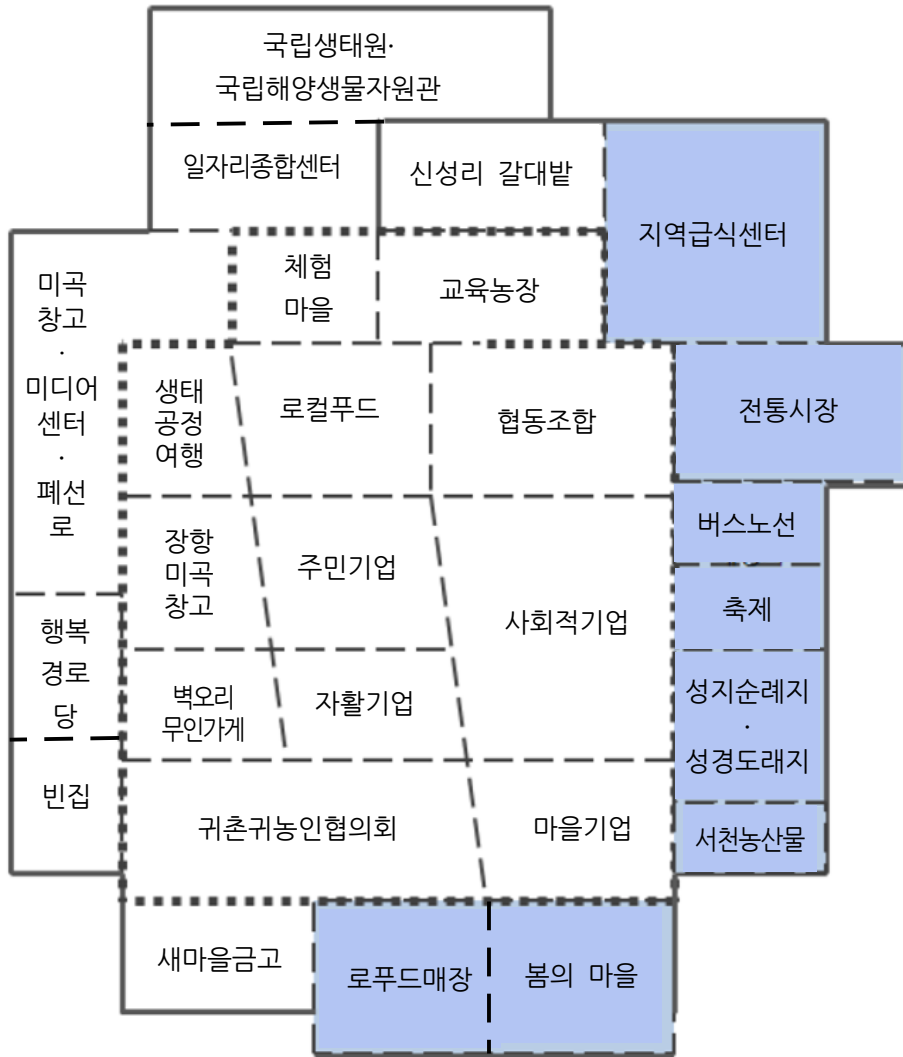
사례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지역자산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이왕건 외, 2012).

첫째, 지역자산의 발굴 및 작성을 위한 주체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진 기존 주민단체, 지역연고 비영리조직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둘째,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자산에 대한 조사 및 계획수립, 의사결정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논의 및 결정과정에 대상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자산들이 발굴, 관리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도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원만하게 수렴하여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발토록 해야 하며,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외부의 자산과 적극적으로 연계시킨다. 지역사회는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주변 지역사회와 유무형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지역사회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부에 있는 자산과 원활한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지역자산의 지도작성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닐 경우 작성의 초기단계에는 단순한 종류의 가시적인 지역자산이 도출되고 주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완성도가 낮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면 활용가능한 지역자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동원가능한 자산의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림 4-32] 서천군 지역자산맵



범례	자산구분	특 성
	1차 자산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2차 자산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커뮤니티 내부 자산
	미활용자산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미활용자산

제5장 지역자산기반형 충남 시군의 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

1. 시군 사회적경제조직 및 제도의 정비

1) 사회적경제 담당조직 확대

충남 시군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분석을 통해본 결과 대부분의 시군은 팀 또는 담당조직내에 1-2명 많게는 3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중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중앙정부나 충남도에서 위임된 역할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 충남 시군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에 있어 모든 시군이 사회적경제를 핵심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모든 시군이 기업유치와 같은 시책에는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이해의 정도가 차이를 보여 핵심시책으로 추진 중인 시군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장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양당모두 입법발의⁸⁾한 상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식은 정체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군 자치단체장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지

8) 새누리당은 류승민 의원을 비롯한 67명의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을 4월 30일 발의한데 이어, 새정치연합은 신계륜 의원을 비롯한 65명의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10월 10일 발의하였다.

만,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산시의 경우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여, 사회적경제를 마을만들기 등과 연계하는 융복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시군 사회적경제조례의 개정

충남도 15개 시군은 사회적경제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운용되고 있으나, 천안시와 아산시, 서천군은 차별화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천안사와 아산시는 충청남도과 같은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회적기업의 협소성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그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천군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순환경제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발적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가 선순환 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그 밖의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순환경제센터를 설립하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몇 몇의 시군들은 이미 사회적경제 및 지역순환경제라는 점에서 접근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중심의 시책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육성조례의 개정을 논의하기 보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적경제육성조례가 제정된다면, 시군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산시가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충남사회적경

제네트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고 이러한 충남도내 다른 자체단체들도 조례제정 및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 조례제정에 대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논평]

[논평]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아산시의회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육성조례)’를 제정한 것을 환영한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이어 아산시의회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내재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일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사회적경제의 주체를 확대하고, 이들 기업이나 조직의 체계적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기로 의결했다.

아산시가 사회적기업 외에 다른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육성을 천명한 것은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아산시와 다른 충남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이어 아산시가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충남도 내 다른 지자체에 사회적경제 육성 필요성과 조례 제정을 독려하는 고무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충남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내재적 발전,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사회적경제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자체와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충남도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아산시가 조례 제정에 이어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 및 적극 지원정책을 펴기를 촉구한다.

2013년 10월 10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3) 시군 독자적 사업 발굴 및 재정확보

충남 시군들은 독자적인 사회적경제시책의 발굴 및 집행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물론 서천군의 주민기업 등과 같이 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독자적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기업 교육, 선진지 견학, 1사1사회적기업 결연,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전, 사회적경제 조직홍보물 제작지원, 홍보업무 등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그러한 사업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회적경제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나 충남도에서 위임된 사업에서 탈피하여, 시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사업비를 투입한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서천군에서는 서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성격을 지닌 ‘주민기업’제도를 운영해왔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이나 특성에 맞는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충남형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천군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서천군 주민기업 사례]

□ 서천군 주민기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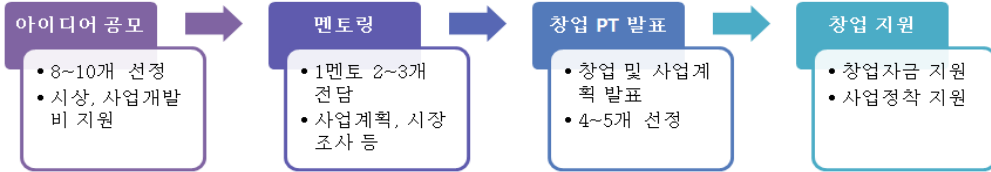
• 서천의 지역공동체와 주민을 기반으로 지역자원(문화관광·자연·향토자원 등) 활용 또는 사회서비스나 사회문제 극복 등을 사업화하여 주민의 일자리창출, 소득증대, 지역공동체성 회복,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이루고자 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서천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목표

- 지역 주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이나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서천주민기업」의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고자 함
- 「서천주민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향후 충남형 사회적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도록 연계 지원

□ 사업추진방법

• 「서천주민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선정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전문가들의 전담 ‘멘토링’을 실시하여, 이중 최종적으로 창업에 이르는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추가적인 지원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개인, 단체, 마을, 그룹으로 서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1인 기업 가능)
-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와 같은 유사 사업(체험마을, 취약계층 참여 사업 등)을 이미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민
-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농업법인, 기타 비영리단체 형태 우대

※ 제외대상

- 단순 아이디어 차원으로 구체적 창업이나 사업수행 계획이 없는 경우

□ 신청사업분야

분야	내용
지역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안사업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대안사업과 연계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아이템 예) 특색 있는 먹거리(식당, 도시락, 간식 등), 기념품, 각종 지역상품(문화, 특산물, 공정여행 등) ○ 자연자원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 기존 농특산물·신규 작물 개발을 통한 상품개발, 유통 ○ 공공부문 위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사회서비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간병 등 사업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방과후 아이 돌보미사업 등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집중 추진
지역사회 문제극복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재활용 또는 친환경 어메니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쓰레기, 폐자원(한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적 어메니티 창출 사업 ○ 문화예술교육·노인문제 등 농촌지역 사회문제 극복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각종 주민 대상 맞춤 교육, 고령화에 따른 노인 문제 해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시군단위 지역사회 자원조사

1) 지역사회 자원조사의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 자원조사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나 충족시켜야 하는 사회적 필요를 파악하고 문제 또는 필요와 관계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물적, 인적, 재무적, 제도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의 활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내에서 우선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산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완주군의 신택리지사업과 같이, 시군지역 내에는 사회적경제로 활용할만한 다양한 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나, 충남도내 시군들은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테마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인지? 지역사회내에서 어떤 자원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개별적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단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지역자산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시군 차원의 조사가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자원조사의 실시

지역사회내 자산조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산 조사가 가능하다. 자산조사는 지역사회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민간단체나, 외부 전문기관, 대학교, 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수행이 가능하다. 물론 이 과정에 지역사회내 활동가나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지역자산은 보이는 유형의 자산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내 단체나 조직들이 지역사회 자원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지역사회내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창업이 이루어지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산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산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역자산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역량과 자산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자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다양한 사회계층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며, 해당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는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자산 목록 작성은 해당지역이 가진 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보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이왕건, 2011;222).

완주군 신태리지사업 이외에도 이미 2012년 충북 옥천군을 비롯하여 2013년에서 서울시 강북구, 강동구, 노원구 등에서 이루어졌고, 2014년 인천시 부평구 등에서는 추진 중에 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북구 사회경제적 일반현황(일반, 인구, 재정, 사업체), 강북구 사회적경제 민간주체현황(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제안(주거복지분야의제, 청소년분야 의제, 문화예술분야 의제, 일상용품 자원순환분야 의제, 장애인분야 의제, 교북지역생산공동구매 의제, 장애인분야 의제, 교북지역생산공동구매의제, 지역금융의제), 강북구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역자산지도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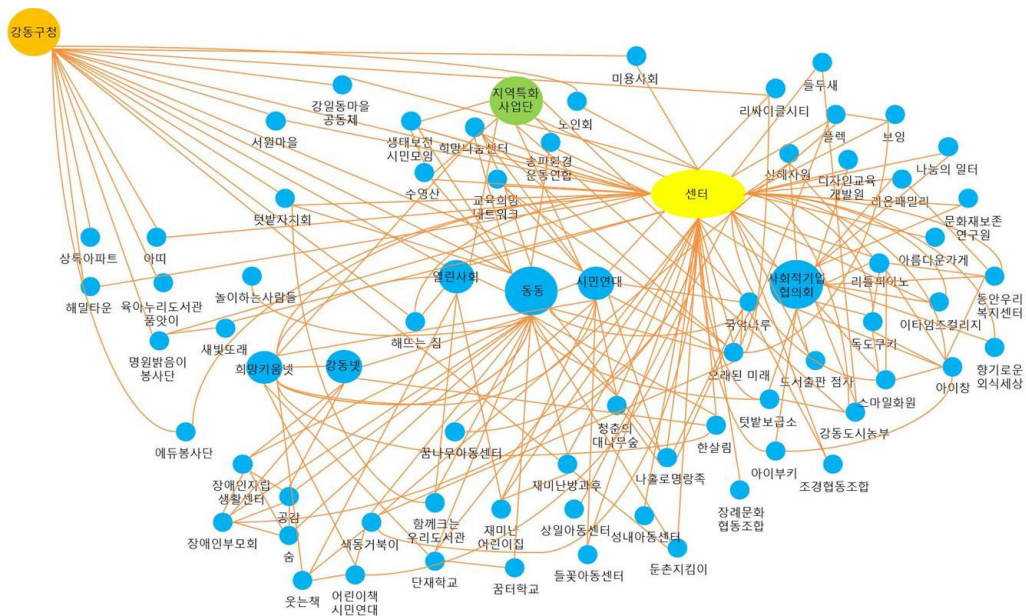
지역자산지도란 활용가능한 지역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위치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도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도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체계적인 실태파악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제점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위해 동원가능한 자원과 자산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산지도화기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시각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보유 자산을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지역자산에 대한 주민간의 상호 토의를 통해, 지역개발의 비전에 대한 시각차를 좁히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다양한 참여지원 도구를 이용하여 커뮤니티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주거지 정비 과정에서 ‘걸리버맵’이라 불리는 대형 커뮤니티맵을 제작하여 지역특성에 대해 논의하며, 직접 지도 위에 공동작업을하며 주민들간 토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김규리외, 2008).

자산지도화기법에 있어서 적절한 도구의 활용은 시각화를 통해 참여자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다양한 참여자 간 합의도모과정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이 손쉽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이연숙 외, 2010; Sanoff. 1991).

해당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지역자산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이왕건 외, 2011:224-225).

셋째, 지역 내외부의 자산과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현대사회는 하나의 조직이 혼자서 존재하지 않고 지역내 다양한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나아가 지역 사회 역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인근지역과 유무형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지역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에 있는 자산과 원활한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5-1] 강동구 사회적경제 은하네트워크

지역자산 지도작성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아닐 경우 작성의 초기단계에는 단순한 종류의 가시적인 지역자산이 도출되고 주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완성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를 위해 활용 및 동원 가능한 자산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3. 자산기반형 시군 사회적경제 특성화

1) 지역사회 자산의 특성화 정책 기본방향

지역사회 자산은 해당 시군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유무형자산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ABCD이론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인적 자산, 민간조직자산, 기관자산, 지역경제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유무형자산을 포괄하고 있다.

지역자산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자산과 이를 도와주는 보조적 자산, 그리고 사회적자산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감할만한 근거를 제공한다.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는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 타 지역과 공통적, 차별화된 특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자산 역시 시군마다 다르게 축적되어 있고, 이러한 지역자산도 공통적,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산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시군의 차별화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시군의 특성에 기반한 자산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언제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충남 시군에서는 지역자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발굴한 자원은 활용형태, 자원특성 등에 따라 체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자산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손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자산은 시간이 경과하면 변화되거나 새로운 자산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및 발굴내용은 시군이 보유한 지역자산의 수와 유형, 잠재성은 물론이고 활용실태, 권리화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일정한 범위에서 교육적 기능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용 및 개발실태에 대한 상세정보도 수록하면 좋다.

지역자산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은 시군 주민들이 지역자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애향심과 동질감을 느껴 사업수행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지역자산 유형별 특성화 방안

(1) 개인적 자산

개인적 자산으로 귀농·귀촌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귀농귀촌인은 시군의 사회적경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충남도내 시군의 귀농·귀촌인들중 상당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정되어 운용 중에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의 주요자산인 이유는 농촌의 고령화문제 해결 및 공동화 방지를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귀농·귀촌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유한 다양한 능력을 지역사회 내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귀촌인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된 인력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지닌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농산촌 창조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창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시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나 선진사례 등을 소개 및 연결해주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서천군의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귀농·귀촌인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역내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들을 가진 능력을 여하히 발휘케 하는가 하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 즉 거주지확보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마을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토지(대지 및 농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서는 억단위의 비용이 필요로 한다. 이는 귀농귀촌은 염두한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농림부 등)는 대단위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귀농귀촌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비용인 동시에, 귀농귀촌인만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 원주민들과의 공간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원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나, 이런 공간적 단절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공간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①비용과 ②공간단절+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에 존재하는 ‘빈집’을 활용하는 데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빈집’의 구입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높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장기임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임대’는 귀농귀촌을 염두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즉 실패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귀농귀촌인 ‘가족’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억단위의 비용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며 귀농귀촌을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농촌마을의 빈집활용은 원주민과의 공간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빈집+장기임대’방식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대구광역시 동구의 ‘행복동지 디딤돌 사업’〉

2012년 7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저소득층 탈빈곤지원과정에서 저소득 가구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이 생활안정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민간자원 연계와 자원봉사 협력을 통해 폐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무상임대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자원봉사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가옥주로 부터 폐공간을 무상임차(3년이상)하여 민간자원(후원금 및 한국해비타트)과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활용하였다.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집수리 후 저소득층에 최소 3년이상 임대지원을 했다. 현재 3개의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 가구가 입주하였다.



[그림 5-2] 집수리 장면과 입주식광경

(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제주폐가살리기 협동조합(JEJUzip)〉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주에 버려지는 폐가를 복원하여 마을과의 소통을 하는 공간(오픈 키친, 게스트 하우스)을 만들어보겠다는 목적으로, 2013년 7월에 시작하였다. 비용은 온오프믹스(ONOFFMIX)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약 100명의 후원자, 1200만원 확보)을 하였다. 빈집(폐가)의 가옥주와 5년간 무상임대하였다. 집수리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4개의 빈집을 수리중에 있다.

작업	날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쓰레기 청소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주변식재정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파벽돌 바닥깔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비계설치 및 장식형 가림막 설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내부 철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내부 싸리벽 흙붙이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강관비계색칠하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조경가꾸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한림 3리 농활 참여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사진 5-3] 집수리 장면과 작업상황 (출처: slideshare 홈페이지)

다음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사회적경제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그들을 통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케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지역사회내에서 사회적배제가 되지 않도록,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지역사회내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업종이 있고 이러한 분야에 이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어떤 사회적기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각 시군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특성, 역량, 사회·경제·문화·환경·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인. 또 이들의 일자리가 공공형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민간형 성격이 강한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5-1> 사업의 유형에 따른 고령자 맞춤형 사회적기업의 내용

사업유형		설 명	비 고
공공분야	공익형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예산에서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지원
	교육형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복지형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노인적합형 일자리	
민간분야	시장형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운영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경비를 지원
	인력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을 수료한 업무능력자를 파견하는 노인일자리	

<표 5-2>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현황

사업유형		설 명
공공분야	공익형	환경정비, 문화재관리, 교통지도, 질서계도, 폐의약품 회수, 환경지킴이 등
	교육형	숲생태해설, 문화유산해설, 학습지도강사, 체육강사, 구연동화, 충효훈장님 등
	복지형	독거노인돌보미, 학대예방지킴이, 거동불편노인돌보미, 방과후아동돌보미 등
민간분야	시장형	택배, 식당, 재활용사업, 공예사업, 옷수선, 편의점, 천연염색 등
	인력파견형	시험감독관, 환경미화원, 농어촌일손도우미, 경비원, 주유원 등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은 개인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으면, 관주도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내 공감대, 소통 및 조직력 등이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한 가운데 지역자산 활용욕구가 있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공동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체활동은 지역이 자생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이러한 지역공동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중 리더를 선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개인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2) 민간조직 자산

민간조직자산으로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작목반, 영농조합, 자원봉사 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민간조직자산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유는 민간단체에 의한 경제활동이 지니고 있는 집합적 이해의 추구, 자율적이고 집합적인 운영, 이타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성격이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내에는 다양한 민간조직 자산이 분포한다. 농촌지역사회의 경우 마을단위의 부녀회와 노인회, 청년회, 개발위원회, 새마을조직 등이 산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들은 사실 관 의존적인 조직의 성향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영농조합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간 지분이 한 두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조합내 의사결정과정의 비민주적인 점, 사회적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상당수의 영농조합은 영농활동에 따른 세제상의 인센티브 때문에 설립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가치 즉, 소셜미션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자원봉사조직은 사회성은 충분하나 비즈니스적 성격이 부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녀회와 청년회, 노인회 역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자발적 운영, 결사체로서의 결속력, 비즈니스 역량 등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민간조직 자산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할 있도록 지역사회내 사회적경

제 중간지원조직이나 협의체 등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추진중인 ‘행복경로당사업’은 사회적경제방식으로 시도해 볼만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천군이 추진해 왔던 ‘노인건강교실’이 호평을 받아 도의 정책사업 ‘행복경로당’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행복경로당사업은 ① 행복경로당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②무료경로식당 운영, ③정보화사업 추진으로 나뉘는데, 특히 고령자들에게 호평을 받는 것은 ‘① 프로그램운영(노래교실, 요가 등)’과 ‘②무료경로식당(중식제공)’에 있다.

그러나 사업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평을 받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중식제공)’은 재료비 등은 지자체에서 집행하지만, 실제 식사준비는 마을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 마을별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 주로 새마을부녀회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부녀회원들의 업무로드가 커, 계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녀회원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대신하는 준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착목하여 ‘무료경로식당(중식제공)’을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해 볼만한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예산(전체 3억4천정도)으로는 사업조직이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기존사회적경제조직의 일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만 하다.

서천의 경우, 서천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으로 ‘서래야 건강밥상’의 일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서래야 건강밥상의 주 사업은 친환경 로컬푸드 재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매장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단의 사업아이템에 ‘행복경로당 중식제공’아이템을 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중식제공은 경로당 현지가 아닌 매장에서 실시하고 운반은 서천군의 자량인 ‘희망택시’로 추진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복경로당+서래야 건강밥상+희망택시’라는 사회적경제 연계사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기관자산

기관자산은 공공기관, 학교, 경로당, 마을공부방, 마을도서관, 박물관, 종교기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가수준의 기관 등이 지역사회내에 입지해 있을 경우 이

러한 기관과 지역사회간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시키는 협력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내 사회적경제영역과의 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관들은 정부지원이 아니라 기관의 독립적인 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운영도 경쟁과 비즈니스 우위의 경영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서천군의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자원관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립생태원+로컬푸드 서래장터’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로컬푸드 서래장터는 주말마다 정문앞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장터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농산물의 품질은 생산농가와 협회 간 품질관리협약과 서래장터운영 규약을 명문화하였고, 규약을 통해 참여단체 스스로 품질관리와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방문객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농들의 농산물 거래활성화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서천군에서는 국립생태원에 대한 기대, 즉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국립생태원내 시설운영 및 납품 등 서천군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추진했던 사업들은 높은 제도의 벽(일정수준의 운영 실적 등)과 (국립생태원이) 독립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협력사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래장터의 성공적인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국립생태원이 다양한 생태적 ‘불거리’를 제공하지만, 서천이라는 지역과는 유리되어 있다. 즉 국립생태원이 서천의 생태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천군이 오랫동안 ‘어메니티 서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이 만들어낸 생태·문화적 지역자원을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자원의 미활용은 단기적으로 국립생태원에 중요한 이익 또는 의미로 작용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시야로 바라볼 때는 중요한 이익을 놓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시도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시군내에는 다양한 기관자산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들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되는 경우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독립기념관, 국공립박물관, 국공립도서관, 대학교, 각종 연수원 등 수 많은 기관들이 충남도내

시군에 분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독립형 조직보다는 기관자산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정상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내 다양한 기관자산과 어떻게 연계하여 창업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의 조언이 필요하다.

(4) 지역경제자산

지역경제 자산은 산업단지, 기업체, 은행, 체험마을, 교육농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지역경제 자산 중 일부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직접 전환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에는 진입을 희망하는 지역경제자산에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피어(peer)컨설팅 등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경제 자산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는 주류경제 영역에 속해 있다. 이러한 자산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자본과 경쟁의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 때문에 지역경제자산에 대해서는 사회적가치를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로컬푸드 활성화는 중요한 기회를 주어야 할 지역자산으로 판단된다.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천군은 ‘지역먹거리 체계구축 기본계획(2008)’을 세워, 기반조사생산자 및 소비자조직·유통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인 ‘얼굴있는 먹거리’,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인 ‘마서동네장터’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서천의 로컬푸드는 현재 ① 생산자조직과 생산량의 부족, ② 로컬푸드 소비층의 부족, ③ 직거래장터의 어려운 접근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다.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 요소들 가운데 특히 도심부(서천읍)의 주요 소비층이 로컬푸드를 접하기 어려운 ③ 접근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접근성이 좋은 공간’으로 ‘봄의 마을’의 활용이 거론된다. ‘봄의 마을’은 로컬푸드가 주요고객이라 할 수 있는 서천군의 중산층(공무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장소이다. 물론 현재 ‘봄의 마을’의 부속건물 안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다. 그러나 상품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맞추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매장을 넓히고 다양한 물품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봄의 마을+로컬푸드 장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근 세종시의 ‘싱싱 장터(아래기사 참고)’의 사례는 접근성이 좋은 로컬푸드 장터의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서도 농가참여율 및 품목수 증대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은 지자체의 주도로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자조적인 협동조합 구축 등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인 안착에 지름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세종시, 로컬푸드 준비과정 도입 ‘싱싱장터’ 추진결과 발표〉

세종시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운영한 로컬푸드 매장 ‘싱싱장터’에서 총 1억 7천 여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소비자도 1만 1천여 명이 방문해 호응도도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용화 세종시 명예농업부시장은 9일 오전 9시 30분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로컬푸드 준비과정으로 도입한 ‘싱싱장터’ 추진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8월 21일 한솔동 생태터널에서 처음 문을 연 싱싱장터는 이후 어진동, 종촌동, 아름동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후 11월 22일까지 65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총 54회 장터를 개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해 소비자를 직접 생산자 농장에 초청하는 팜투어를 실시해 세종시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함을 소개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싱싱장터에서 토마토, 사과, 복숭아, 포도, 밤, 땅콩, 고구마, 열무, 상추, 유정난, 계란, 두부, 묵, 호박, 호박잎, 고추, 표고버섯, 느타리, 무 등 과수와 신선채소 등을 선호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싱싱장터 참여 농가를 대폭 확대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더욱더 확보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싱싱장터는 내년 3월경 재개장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싱싱장터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생산자실명제, 생산자리콜제, 식품안전성 검사 등을 도입하여 생산농가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용화 명예농업부시장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3월에 싱싱장터를 다시 열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참여 농가와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운동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세종시는 싱싱장터를 로컬푸드 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아서 내년 5월 1일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1호 직매장과 향후 구축될 농민가공센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등과 함께 세종시표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의 소리, 2014.12.09)

이와 더불어, 기존 기업체 CEO 및 직원교육시 사회적경제기업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편성하여 기존기업종사자들에게 자본보다는 사람, 경쟁보다는 협력, 배려와 나눔을 중시하도록 하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물리적 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빈집, 휴양림, 공원, 항포구,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들 수 있다. 충남시군은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양한 물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물리적자산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좋은 소재들이 되고 있다. 일본 이도도리의 경우 평범한 나뭇잎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이 되었듯이, 시군내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자산은 활용여하에 따라서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예를 들어 산림이 우수한 시군의 경우는 국민들의 산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가치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휴양, 치유와 같은 공익적 기능과 더불어 산림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숲 해설가와 산림치유지도사, 탄소전문가 등을 양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태아와 산모를 위한 숲 태교 프로그램, 유아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숲과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일반 시민들을 위한 도시숲과 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장림 조성 등을 통해 숲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서천의 경우, ‘장항’은 중요한 물리적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항’은 일제가 곡물을 출항했던 항구의 역사와, 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의 아픈 역사를 가지면서도, 신성리 갈대숲, 금강하구둑과 같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물리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구 미곡창고(일제강점기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갤러리, 공연무대 등이 공존하는 종합예술공간으로 바꾸었다. 여기에 장항읍 창선리 일원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스튜디오, 미디어도서관, 영화관, 편집실 등으로 이루어진 장항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다채로움을 더하였다. 장항미디어센터는 현재 관악공동체라디오가 위탁운영을 통해 ‘라디오개국’ ‘작은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장항화물역과 폐선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항에 존재하는 물리적 자원들을 잘 연결한다면, ‘군산(아래그림 참고)’과 같이 도심도보여행을 추진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출처: <http://creativehope.kr/archives/293>)

[그림 5-4] 군산 근대문화유산 도보 여행지도

이와 같이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및 공정여행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충남 시군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물리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흥동
공정여행

☆☆ 대흥동 달밤 여행

바쁜 직장인, 청년들을 위한
2시간의 짧은 일탈

대흥동 공정여행 포인트

퇴근 후,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대전 원도실에서 만나는
사람과 공간의 영화 같은 이야기
대흥동 달밤 여행에 초대합니다.

여행일정 11월 28일 (금) / 19:00 ~ 21:00
12월 12일 (금) / 19:00 ~ 21:00
12월 26일 (금) / 19:00 ~ 21:00

여행장소 대전 대흥동 일대

여행경비 1만원

참가대상 성인 20명 내외
* 성인을 동반한 미성년도 참석 가능합니다.

(출처: <http://www.fairtravelkorea.com/>)

[그림 5-5]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여행프로그램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이 연구는 지역사회 자산을 활용하여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의 차별화 및 특성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즉, 서천군을 사례로 지역사회 자산을 양적 및 질적인 방식으로 탐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충남도내 타시군의 적용가능성을 목표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Northwestern대학교의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institute에서 개발된 지역공동체발전전략인 ABCD이론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할 지역자산을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대표적인 자산을 추출한 다음, 3단계에 걸쳐 지역자산을 분석하였다.

우선 1단계는 사례지역 읍면별 자산의 양적 분석, 2단계는 사례지역 사회적경제 이행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분석(심층면접), 3단계는 사례지역 지역자산 지도작성 등의 단계를 거쳤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분석한 결과 지역자산에 기초하여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특성화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 사회적경제조직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충남 시군별 사회적경제 담당조직의 확대가 요구되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팀 도는 담당조직내에 1-3명 정도의 직원이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를 담당하고 있

어, 시군주도의 사회적경제 시책의 추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산시 등에서는 사회적경제시책을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마을만들기사업과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별로 사회적경제를 통합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시군 사회적경제조례는 대부분 사회적기업육성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나, 천안시와 아산시는 사회적경제육성조례, 서천군은 지역순환경제활성화지원조례로 운용하고 있어 차별화되고 있다. 조례역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발의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조례로의 개정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시군이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사회적경제 위임업무에 매몰되어 독자적 사회적경제 시책의 발굴 및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시군의 사회적경제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충남도에서 위임된 사업에서 탈피하여, 시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사업비를 투입한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시군단위 지역사회 자원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군단위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의 활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내에서 우선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시군단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지역자산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지역사회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자산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역자산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후 지역자산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 용이한 다양한 참여지원 도구를 이용하여 지역자산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자산기반형 시군 사회적경제 특성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충남 시군내 지역자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및 발굴한 자원은 활용형태, 자원특성 등에 따라 체계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자산에 기반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은 시군 주민들이 지역자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애향심과 동질감을 느껴 사업수행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자산 유형별 시군의 특성화 방안을 개인적자산, 민간조직자산, 기관자산, 지역경제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유형별 자산을 구성하는 세부자산들을 시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 단위의 독자적인 사회적경제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충남 시군에서는 지역사회내 존재하는 자산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상급기관의 단순위임업무 수행에서 탈피하여 시군 주도적인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지역사회 자원조사에 기초한 시군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담당 행정조직의 확대와 전문인력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주류경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객관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 의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기존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포괄하는 조례나, 공공구매 확대 등의 조례로 개정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자원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자원조사를 위해 지역사회내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중간지원기관에게 사회적경제자원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군단위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결과를 일반주민들도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시군단위가 사회적경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

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일 정도로 사회적경제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단위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산을 사회적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것에 관심을 갖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시군자치단체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역량을 연결하고 모아내는 연대체의 결성을 통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다. 이미 충남시군 자치단체 상당수가 사회적경제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산 역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조사, 발굴되어 사회적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201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Vol.2. 사회투자지원재단.
- 김선기(2003).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중수(2009).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김현호(2003). 장소관측적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자산형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6.
- 김현호·한표환(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나중규·정희훈(2012). 경북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사업모델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2016-66.
- 박홍영 외(2011).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정책개발학회.
- 이왕건 외(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2011-51. 국토연구원.
- 이용재·김봉한(2013). 사회적기업 자원연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227-235.
- 임순정·박정은·이효원(2014).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자산 측정도구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1).
- 장우진·오승석(201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향에 관한 탐색적 고찰 : 인터뷰자료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정책개발학회.
- 지경배·김진기(2010). 강원도 지역사회연계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최혁라(2012).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308-317.
- 최현선 외(2012). 커뮤니티개발과정에서의 자산지도화기법 활용사례 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75권, 국토연구원.
- 한광식 외(2011). 향토자원의 개념 및 분류체계의 적용실태 분석 : 향토산업의 부처별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 한상일(2010). 사회적기업과 지역공동체발전. 창조와 혁신, 3(1). 223-246.
- 한상일·김경희(2013). 한국사회적기업의 지역자산 활용 : 자산기반 지역공동체발전 관점에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9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함창모(2012). 사회적경제 사업체 사례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충북발전연구원.
- 황영모(2013).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Krantz, Lasse(2001). **The 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 An Introduction**,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Sida).

[부록 1]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7.27 조례 제 842호

(일부개정) 2012.03.09 조례 제1026호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개정

(일부개정) 2012.06.15 조례 제1052호

(전문개정) 2013.10.25 조례 제12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교환·분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항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안행행정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 라. “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

는 조직

아. 기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 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아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인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 관련 실·국장 및 공무원(경제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각·1명을 둘·수·있으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서기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역 및 지원 계획
 6.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지방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1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0조(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한 주간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를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1.06 조례 제22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발적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가 선순환 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순환경제”란 지역경제의 생산활동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가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로 이어져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이 선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즉, 분배측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영업잉여의 대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출측면에서는 지역 내 투자 및 소비지출을 확대하며, 확대된 지출이 다시 생산 유발을 통해 지역 내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그 밖의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안전행정 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사업 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 아.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 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지역 내 고용, 생산, 소비, 투자의 선순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6.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7.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 시키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순환경제 관련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민간과 행정 사이의 조정과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인재육성, 주민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지역순환경제활성화협의회

제4조(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순환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생태관광과장, 친환경농림과장, 경제진흥과장, 생태도시과장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을 대표하

는 현장 활동가

4. 지역순환경제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5.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및 도시재생에관한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순환경제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 등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육성 등)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용자 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의 촉진)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 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 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기관·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 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4장 민·관 중간지원조직

제18조(민·관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순환경제와 마을공동체 및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중간지원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순환경제와 마을공동체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순환경제관련

- 가.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 나. 지역순환경제 관련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
- 다.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
- 라. 사회적 기금 관리 및 조성·배분사업
- 마.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
- 바. 지역자원에 기반한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 지역순환경제 관련 민간단체 간의 연대·협력 지원
- 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의 개발 및 시행
- 자.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 개발
- 차. 취업상담 및 취업교육 등 기술훈련
- 카. 그 밖에 지역순환경제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 가.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 다.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 마.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바.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현장사례 국내·외 견학지원
- 사.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 아. 그 밖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 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사업의 추진지원
- 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라. 그 밖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중간지원 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도시재생 관련 사항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01호, 201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춘섭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김종수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장효안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홍은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전략연구 2014-20 · 지역사회자산을 활용한 충남 시군의 사회적경제 특성화 방안

글쓴이 · 송두범, 박춘섭, 김종수, 장효안, 홍은일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4년 12월 31일 / 발행 · 2014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200(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19

ISBN · 978-89-6124-269-1 03350

<http://www.cdi.re.kr>

© 2014.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